금주법구

한가지 선심(善心)을 닦으면
백가지 악을 깨는 결과가 된다.
마치 작은 금강석이 수미산을
무너뜨리는 것 같다.

-열반경-

현대불교

봉사하는 불교 신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신상선원 041)734-2680 무료복지관이 있는 불교 선학사 대전 논산시 연산면 주정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월 24일 수요일(주간) 제 304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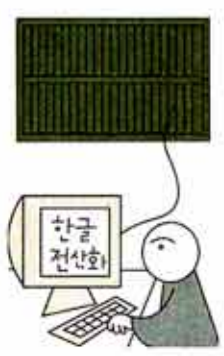
노스님의 대장경불사 '원력'

지난 16일 서초구민회관에서는 서초구사암연합회 주최로 서초구민을 위한 신년대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사는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 스님은 지역기관장과 지역민 1천여명에게 30여분 법문을 하셨다.

"새해에는 나의 수행과 남을 위한 봉사, 즉 자리이타(自利利他)행을 하나라도 진실되게 실천해 보라"는, 실천수행을 권하는 법문이었다. 간간히 특유의 유머가 실리고 새겨들어야 하는 내용이라 청중들은 어느새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법문 말미에 스님은 한글대장경에 대해 언급하셨다.

팔만대장경이 36년만에 다 한글로 번역되었다. 요새는 컴퓨터시대니 수정본을 만들어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제 전산화를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전산화를 하는데 올해에만 7억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간신히 4억을 받게됐는데 나머지 3억 마련에 불자들이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흔히들 '2천만 불자'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중 0.5%인 10만명이 한달에 1천원씩만 후원해 준다면 1억이 모입니다. 1년이면 10억이 넘어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 '돈 좀 달라'고 사정사정 할 필요가 없어요. 불자들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재정이 준비돼 잘하고 있다고 도리어 정부를 향해 자랑할 일이 되지요." 스님은 평소에도 한글대장경 완간으로 부처님 가르침과 그것을 삶의 체험으로 승화시킨 숱한 선지식들의 마음자리에 보다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으니 불자들, 나아가 국민들이 경전을 일상에서 손쉽게 읽을 수 있고, 불교연구도 보다 활성화 될거라고 기뻐하시며 많이 보급하는 일에 여생을 바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커피 한잔 사먹으려고 해도 보통 2천~3천원을 주어야 하는 요즘이다. 또 불자들은 사찰에 가서 1만원을 주고 기와불사도 하고 범종이니 탱화, 법당 건립



불사에도 정성을 모은다. 그렇게 사찰불사에 쏟는 마음으로 한글대장경 불사에도 관심과 지원을 보내 달라는 것이 바로 스님이 강조하시는 점이다.

평생을 역경사업에 몸바친 것도 부족해 70이 넘은 노구에도 전국 어디든 법회에 초청받으면 역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원을 당부하시는 월운스님. 한글대장경 보급과 전산화를 위한 노스님의 끝없는 원력에 새삼 머리가 숙여진다.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인터넷 불교비방 '극심'

사찰 · 불교단체 사이트 무차별 침범
스님과 불경교리 등 비하 · 왜곡 일삼아

정부 '통신망 명예훼손법' 제정 시급

인터넷사이트와 언론의 불교비방이 도를 넘고 있어 교계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통신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성이 강하고 증거보전이 어려워 폐해가 심각한 만큼 미국이나 영국처럼 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법을 정부에서 제정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onias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불교비방사이트 '안티불교'를 개설한 것을 비롯해, 세계일보가 통일교를 선교하기 위해 불교와 부처님, 성철스님을 모독하는 '영계리포트'를 제작해 돔의를 빚고 있다.

또 격레의 혼, park8866, p886644, I@I, 부처, 법수호,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들은 네플 등 검색엔진과 종교회해사이트, 사찰 및 단체의 불교사이트 게시판을 돌며 불자들을 현혹하여 안티사이트로 인도하거나 삼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검색엔진인 야후와 라이코스코리아에 등록돼 있는 '안티불교'는 △조작된 불경 △윤회의 모순 △부처님 비판 △가난해지는 불교 △불교의 폐단 △승려들의 범죄 모음 △돈에 찌든 조계종 △사리의 속임수 △부처는 귀신 △불교 비판글 모음 등 어처구니없는 불교비방글들이다.

수록된 내용들은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무시하고, 왜곡과 비방을 위해 불교교리를 각색하는가 하면, 기사와 출판물 등에서 필요한 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놓아 일반인들과 초심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엽씨(전북불교대 사무처장)는 "안티불교는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토론방 게시판 기능도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해불이 극에 달한 만큼,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교계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면으로 계속



◇국운융창과 국민대화합을 기원하는 신년법회에 참석한 불교지도자와 정 · 관계 인사들이 두손을 모아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1천여 사부대중 "국민화합" 기원

종단협 신년법회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19일 서울부암동 하림각 특설법회장에서 신년대법회를 봉행하고 국운융창과 국민대화합을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26개 종단 총무원장을 비롯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민주당 김중권 대표, 한나라당 김태호 불자회장,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청불회 회장) 등 1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삼귀의 반야심경 현화기원사(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발원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대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할 때일수록 수처작주(隨處作主)하는 주인정신이 필요하다"며 "분별심을 버리고 화합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한길 문화부장관이 대독한 축하메시지에서 "호국불교의 전통으로 민족의 안위와 번영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불교계가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초 대정사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상생과 화해의 시대가 이 땅에 나투어 한민족의 평화통일이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정성운 기자

설 연휴로 1월31일자 신문 쉽니다

'신행수기' 시상식
때: 2월 3일(토) 오후 2시
곳: 조계사 문화교육관

총지종 12대 통리원장 혜암종사 선출



총지종은 18일 총지사에서 제12대 통리원장에 부산 경남교구장인 혜암종사(사진)를 선출했다. 신임 혜암 통리원장은 1935년 生으로 중앙종회 부의장, 통리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울산 실보사 주교로 있다. 임기는 4년이다.

이경숙 기자

해인골프장 못 짓는다

서울고법 불허판결 "건설반대 10년 결실"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이 10여년만에 최종 결실을 맺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제4부(재판장 김묵민부장판사)는 19일 원고인 가야개발(주)측이 피고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인골프장 '공원사업시행기간 연장허가 재신청 불허처분 취소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91년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상 최초로 백만인 서명을 달성한 해인골프장 반대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게 됐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골프장은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공공자산인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은 보전도어야 한다"는 불교계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국립공원보존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이와관련 환영을 표하고, 사찰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각종 건축개발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대불교 지사 · 지국 모집

불법 홍포의 주역으로 각 지역의 신문 홍보와 구독 확장, 광고 사업을 전개할 참신하고 역량 있는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장을 찾습니다

1. 모집 지역(11개 지역)
강원북부 : 춘천, 철원, 양구 일원 / 강원남부 : 원주, 영월, 정선 일원
경기 : 수원, 화성, 용인, 안성 일원 / 충북 : 충주, 제천, 진천 일원
충남 : 서산, 당진, 아산 일원 / 경북 : 문경, 상주, 예천 일원
경남1 : 진주, 산청, 거창 일원 / 경남2 : 울산, 양산 일원
전남 : 순천, 여수, 보성 일원 / 전북 : 전역, 제주 전역

2. 활동영역
관할지역 내 신문홍보, 구독확장 및 광고 영업
본사 수익 사업 추진

3. 제출서류 및 기한
구비서류 : 자필이력서(사진부착 및 연락처 명기), 자기소개서, 사업활동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기 한 : 2001년 2월 17일(토)
방 법 : 우편(기간내 도착분만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4. 제출처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직통전화 (02)737-0090 대표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불교서적의 모든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 : (02) 737-0695
Fax : (02) 737-0696

一心佛院
각종 불사 / 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탱화, 단청
02-725-2030 / 725-2040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성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 룸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 설

'다툼' 접고 화합의 장 열자

정화회의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16일 조계종으로서는 마음 졸이는 날이었다. 결과는 정화회의의 패소로 나왔다. 정화회의는, 지난 99년 1월 구룡사에서 열린 원로회의에서 종회를 해산했다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룡사 원로회의의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년 동안의 법정 다툼이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정화회의에서 상고하더라도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제 조계종단의 문제를 사회법의 판단에 맡기는 일은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인천(人天)의 사표로 추앙받고 있는 스님들이 종단 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잘잘못을 가려달라는 것은 불교의 권위를 스스로 팽개치는 일이다. 종단 내부에 법과 규칙이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보니 격앙될 수도 있겠지만, 세속인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불자들과 국민들의 바람이다.

이제라도 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징계를 받은 스님들도 여전히 조계종의 스님들이다. 멸빈의 징계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찰에 머물며 부처님을 시봉하는 스님들이 많다. 신도들로부터는 여전히 귀의처가 되고 있다. 물론 지난 98~99년 사태를 일으킨데 대한 참회가 먼저 있어야 한다. 사태의 중심에 있던 당사자들이야 할 말이 많겠지만, 당시 폭력이 난무하는 사태를 보며 많은 불자들은 어린 자녀들과 가까운 이웃들의 "스님들이 왜 싸우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없었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신도들뿐이었겠는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던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재판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 새로운 계기를 주고 있다. 화합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기는 승가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다. 마침 98~99년은 물론 94년 종단 개혁 때 징계를 당했던 스님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더 이상의 법정 다툼은 걷어버리고 화합의 한 마당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종교인 상식 저버린 '왜곡'

지난 12일 통일교단이 발행하는 종합일간지 〈세계일보〉에서는 '영계리포트'라는 제목으로 16쪽짜리 타블로이드판형 별쇄본을 신문과 함께 배달하였다. 그 속에 실린 불교 비방 내용은 종교인으로는 상식을 뛰어넘은 것이었다. 세계 인류평화를 염원하고 인간의 복지와 안녕을 소망하는 종교 단체에서 어쩌면 이렇게 몰상식한 글을 만들어 유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인류의 미래가 막막하기만 하다.

'영계리포트'에는 "부처님이 설파한 진리는 잘못된 것, 석가모니 부처님도 진리를 왜곡해서 영계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부처님을 비하하면서 부처님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잘못 인도하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혹독한 망설을 늘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개체 완성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불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종속된 것이며, 불교의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사회의 올바른 소식과 지식을 깨우쳐 주어야 할 신문이 이처럼 왜곡되고 치우친 망설을 발행하고 배포한다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불교 비방도 인용하기 민망할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인터넷상에 불교비방을 목적으로 개설된 '안티불교'는 일반인과 불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익명에 기대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종교인의 태도도 아니거니와 전자민주주의에도 크게 어긋나는 소행이다. 바른 가치관을 지닌 종교인이라면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자기 종교의 가르침을 더욱 내밀화하고 실천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종교간에 갈등과 반목만을 초래한다면 인류 평화에 이익될 것이 무엇이겠는가? 정부도 종교간의 문제라 하여 강건너 불구경하듯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안된다. 심각한 사회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근절책과 함께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종단에서도 엄중히 대처하여 불교도와 국민에 대해 종단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인천 전법 燈 밝힌다

조계종 포교거점 지정 예산 · 행정지원

불교회관 · 포교당 열고 주민포교 나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대전시를 포교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및 행정지원에 나선다. 포교거점지역으로 선정된 인천과 대전지역에는 1차로 각 6천만원과 포교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그동안 대도시임에도 불교세가 상당히 미약한 불교 취약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인천과 대전지역이, 전폭적인 지원과 예산투자로 불교 활성화의 틀을 지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교원은 대전과 인천지역의 불교회관과 전법포교당이 지역포교네트워크 센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도교육과 조직, 포교방법의 전형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인천사암연합회(회장 현성)는 8일 인천불교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원광)를 구성하고 6월까지 불교회관건립 기공식을 갖기로 했다.

인천시청 앞에 213평 부지를 마련한 조계종 인천사암련은 3~7층 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해, 지역사찰의 불교신도 교육을 위한 불교대학 설립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조계종 인천사암련 불교회관건립추진위는 16일 포교원을 방문하고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 선정과 지역포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불교회관추진위는 회관건립규모와 운영계획서를 26일까지 포교원에 제출키로 했다.

대전지역거점포교를 위해 포교원은 12월 22일 장곡스님(갑사 주지)을 대전포교도량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제2정부청사가 있는 서구 둔산동에 전법포교당을 마련했다. 포교원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위원을 위촉한 뒤 2월경 개원법회를 개최한다.

대전 제 2정부청사 공무원불자회와 직장 · 직능불자 포교를 위해 마련된 전법포교당은 직장 · 직능단체의 법회공간과 대불련 대불청 등 각 신행단체의 사무실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년불교 활성화 선포 조계종포교원(원장 정련) 신년하례법회가 150여명의 포교신도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산 갑사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교부장 상운스님은 "올해를 청년불교활성화의 해로 선포한다"며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청년불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청년불교활성화를 위해 △대학생불자 프로그램 연구및 교육사업 △대불련 단체활동지원 △대불청 발전기획단 설립 △청년실태 및 종교의식 조사 △청년아카데미교육사업 실시 △지구별 청년지도자육성 △청년포교지표조사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기자

종립학교 위상 찾는 세미나 잇따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가 종립학교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 토론회를 잇따라 연다.

종립학교관리위 산하 종립학교 발전을 위한 연구소위(위원장 영담)는 15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중앙승가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3월 6일), 동국대 불교대학 위상 정립을 위한 세미나(3월 20일), 동국대 일산병원 관련 세미나(4월 초)를 3~4월중에 열기로 했다.

교육원과 공동 주최하는 중앙승가대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는 3월 6일 불교회관에서 열며, 기조 발표('중앙승가대학의 설립 역사와 의의', 발표자 무비스님)와 주제 발제,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한국불교 발전과 동국대 불교학 연구의 현주소 '를 주제로 한 세미나는 종립학교관리위 주최로 3월 20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정성운기자

비구 · 비구니계 분리

조계종 계단위 올부터 시행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범룡)는 16일 동화사 비로암에서 20회 계단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비구계와 비구니계를 분리해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구족계 수계를 비구, 비구니 합동으로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율장 정신에 입각해 비구계단은 봄에, 비구니계단은 가을에 개설해 각각 봉행하기로 결의했다. 정성운 기자

☞1면 '불교비방'서 이어짐

또 통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세계일보가 12일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회의 의뢰에 의해 불교와 부처님, 성철스님을 공개적으로 모독한 '영계(靈界)리포트'를 제작 · 배포했다. 16면에 걸쳐 실려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석가모니부처님과 성철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왜곡해놓고 있다. 또 부처님과 성철스님이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통일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는 등 부처님과 성철스님을 모독하고 있다.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위원장 양산)는 16일 세계일보 발행인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영계리포트 발행에 대한 귀사의 입장 △영계리포트 발행배경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계약관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원우기자



◇지관스님



◇천운스님



◇동춘스님

지관·천운·동춘 스님 원로의원

조계종 원로회의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법전)는 17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16차 회의를 열고 지관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과 천운스님(광주 향림사 조실), 동춘스님(전 봉암사 주지) 등 3명을 원로회의의원으로 선출했다. 1월 말로 임기 만료되는 석주, 원담, 도견스님의 중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번에 원로의원으로 선출된 세 스님은 지난 해 11월 열린 중앙종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천됐다.

지관스님은 1947년 자운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으며, 해인사 주지와 중앙종회 부의장,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천운스님은 47년 월정사에서 종욱스님을 은사로 출가, 화엄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대흥사 주지를 역임했다.

동춘스님은 56년 석암스님을 은사로 선암사에서 출가,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오고 있다. 조계종립 특별선원인 봉암사 주지를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명칭·자율 보장하면 통합 찬성"

전신회 선진규회장

"(사)전국신도회 명칭사용과 신도회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중앙신도회와 통합할 수 있다"

전국신도회 선진규회장은 16일 교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로 분리돼 있는 신도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신도회는 올해 △신도 일상용 게송문 제작 및 보급 △염불선 수행방법 도입및 전국염불결사운동 전개 △통일토론회 개최 △인터넷홈페이지 개통 △시민단체와 연대활동 강화 △불교지도자양성강좌 개설 △청소년지도자 교육장 설립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서울신도회 5계 실천

조계종 서울신도회(회장 정인악)는 16일 교계기자 간담회를 갖고 5계 실천운동 전개를 골자로 한 2001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신도회는 5계 실천운동의 사회적 의의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서울지역 연합신도연수회를 3월 17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 구별 신도연수교육을 실시해 5계 실천모임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도회는 올해 내 구별로 기초신도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현 대 만 평 박 구 원



엽기가 따로 없네

2001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왜! 대원불교대학인가?

최고의 불교학교수님들이 펼치는 주옥같은 강의로 불교의 진수를 만나보십시오.

☞ **최봉수**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과 졸업.
철학박사. 현재는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인터넷 불교대학 책임교수.
저서로 《원시불교 원전의 이해》《원시불교와 초기대승불교 사상》《근본불교의 가르침》 외 다수.

☞ **장휘옥**
부산대 사범대학 졸업.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과 석 · 박사 졸업. 문학박사.
현재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저서로 《해동고승전연구》《불교학개론 강의실》《대승기신론 이야기》 외 다수.

☞ **허경구**
동국대 불교학과.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 불교학 박사.

☞ **김사업**
동국대 불교학과 인도불교 전공.
일본 국립 경도대에서 인도철학 연구.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초빙교수**
월운 스님, 혜거 스님,
권기종 교수, 정병조 교수.



☞ 넉넉한 교육환경
학년별 강의실과 큰법당, 참선실 등 넉넉한 교육신행 공간에서 자유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총 1만 여권의 불교학술 및 교양도서는 교수님들의 명 강의와 더불어 폭넓은 불교공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불교계 각계 각층에 포진한 대원불교대학 동문들과 만나 보십시오. 생생한 불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동 · 하계 수련대회와 전국순회 강연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열린불교, 대중불교의 실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 하기 위하여 불교지도자와 포교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2년제 야간전문 불교대학이다.
1972년 고 대원 장경호 거사님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대원정사를 설립하고 대승불교의 정신을 오늘에 구현하고자 「自我를 發見하고 地上에 樂園을 이룩하자」는 설립이념 아래

☞ 1972년 대원불교강원(2년제)을 개설하여 원전강독을 시작하였다.
☞ 1974년 대원불교교양대학으로 개칭하여 법사과와 통신과를 신설하다.
☞ 1982년 대원불교대학으로 개명하고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여 출가, 재가 사회 각급 지도층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교대중화운동의 기수로서 활약하고 있다.
☞ 1997년 미국지역에 대원불교대학 분교(워싱턴, LA)를 설치하여 국제포교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지식만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의식수련 등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존경받는 불교지도자를 양성하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전당이다.
☞ 2000년 대원도서실 개관.

2001년 대원불교대학 신편입생 모집 안내

강의시간 3월 1일 개강, 주 3일(화, 수, 목) 출석, 야간 수업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6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2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진 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지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7일까지(본 대학 교무과)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증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教大學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목어

혹한의 교훈



인간은 본래 환경이 주는 식량과 에너지를 최대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좋은 날씨와 풍부한 자연의 혜택이 있는 곳에서는 환경 조건에 관한 이용밀도가 낮다. 또한 겨울밤이 긴 북구라파, 그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는 어떤 조건이라도 적극 이용해야 한다. 가공기술이 정밀해지고 자원을 효율화시키는 과정에서 기계공업이 발달한다.

최근에는 혹한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조건으로 겨울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생활에 길들어진 어린이는 마치 온실속의 식물처럼 전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 외출이라도 할 때는 따뜻한 옷으로 몇 겹씩 감싼다. 그러나 두터운 옷보다 추위를 즐기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유치원생은 일부러 반바지 차림으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요즘 추위와 함께 경기 한파가 우리의 체감온도를 더 낮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첫 겨울이 따뜻해서인지 소한 이후 연속으로 이어지는 혹한이 유별나게 심하게 느껴진다.

IMF 관리 체제이후 잠깐 반짝이던 경제도 금년 초겨울 기후와 같은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경제 한파를 더욱더 피부에 느끼게 하고 있다. "춥다 춥다 하기에 더 춥게 느낀다." 경기의 추위 또한 마찬가지로 불경기이니 경기침체니 아우성이 추위의 고통을 가중한다. 일부러 내한 훈련도 하는데 이 경기한파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한 일인 것이다.

산토끼 중 북녘에서 눈에 묻혀 지내는 것은 살아남아도 눈 녹은 남녘에 있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있다. 지금은 눈에 묻혀 있어도 건너편 산의 남녘에 싹이 트기 시작한 풀을 보고 지내는 자는 며칠만 있으면 맛있는 풀이 금방 자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주변의 눈이 녹아 싹이 트기 시작한 무렵인데도 변변히 먹을 것이 없는 북 건너편의 눈을 보는 산토끼는 봄이 멀다하여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

김 용 운(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98 조계종 사태' 법정다툼 매듭

조계종 종회 자격상실 항소심 '기각'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소송에도 영향
정화회의 상고땐 종헌개정 걸림돌

서울고법 민사 14부(재판장 전봉진, 주심판사 이상인, 판사 변현철)는 16일 정화개혁회의측이 낸 조계종 중앙종회 자격상실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정화개혁회의와 총무원 · 중앙종회 사이의 2년여 동안의 법정 다툼은 정화개혁회의의 패배로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판결은 2월 2일 1심 선고 예정인 총무원장 부존재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화회의에서 제기한 이 소송도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과 같은 이유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사면문제 다시 거론

조계종 총무원은 서울고법 민사 14부의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종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올해에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기반으로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과 불교문화회관 신축 불사 등 종단의 발전을 위해 가행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정화회의측이 패소함으로써 사면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1일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2월이면 정화회의가 제기한 모든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종단 화합을 위한 조치도 본격화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에서 상고를 하는 등 소송을 계속한다면 종회에서의 종헌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종단을 계속 흔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면을 하겠느냐"는 것이 많은 종회의원들의 반응이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화합' 의지가 워낙 강해 3월 열릴 예정인 종회에서 종헌을 개정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화회의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사면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파일 이전 사면 실시는 정화회의측의 상고 여부에 달려 있다.

소송 당사자인 정영스님은 선고공판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항소를 기각한 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상고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이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고법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하고 있어 실제 상고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정영스님 등은 99년 1월 '98년 11월 14일 열린 (구룡사) 원로회의에서 종회 해산을 결의했다"며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소송을 법원에 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구룡사 원로회의의) 중앙종회 해산 결의는 정족수 미달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종정의 중앙종회에 대한 해산 명령 역시 효이번 서울고법 민사14부도 구룡사 원로회의의 중앙종회 해산 결의에 대해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정화개혁회의쪽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화 개혁회의에서 제기한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사면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헌특위에서 종헌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고여부 불확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원로회의의장(당시 의장 혜암 현 종정)이 소집을 거부한 가운데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의의 성립 여부 △정족수 미달 여부 등 두 가지.

당시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은 회의 소집과 진행을 거부했다는 것이 총무원측의 주장이며, 구룡사 원로회의가 열린 직후 혜암스님은 대각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룡사 원로회의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정족수와 관련, 종회 해산 결의 정족수인 14인데 구룡사 원로회의에는 재적 원로의원 21명 가운데 8명 참석, 5명 위임으로 13명이었다. 정화개혁회의는 위임장을 제출한 5명 외에 2명의 원로의원이 위임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의뢰해 실시한 두 스님의 필적감정 결과 위임장의 필적과 "서로 다름"이라는 소견이 제출돼 정족수에 미달한 것으로 결론났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전통사찰 경내지 편의시설 신축가능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불교시설물 건립이 자유로와졌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에서 종교용지가 아닌 경내지(임야)에서도 종교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지목상 종교용지가 아닌 토지에서는 건축이 불허됐다. 그러나 전통사찰의 대부분의 경내지가 임야로 돼 있어 신도들을 위한 시설을 지으려 해도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었다. 사찰의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지어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되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사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사찰 소유의 경내지임에도 전각이나 편의시설도 짓지 못함에 따라 불교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작용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에서는 150㎡(45평) 내에서 시설물을 신축할 수 있다. 신도들을 위한 시설이나 전통찻집, 불교용품점 등 편의시설은 물론 산신각 명부전 등의 전각 신축도 가능하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지난 99년 1월 문화관광부와 99년 9월 건설교통부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목상 대지나 종교용지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국토이용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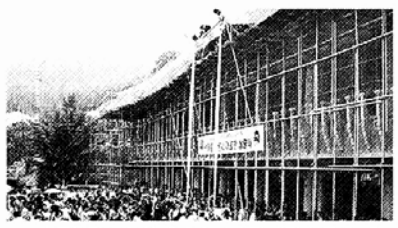
정성운 기자

천태종 금강대학 기공 '교육불사'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올 한해 교육불사에 집중한다. 지난해 논산군 부지를 확정한 4년제 정규대학인 '금강대학'의 기공식을 3월경 갖고 건립에 본격 착수한다. 금강대학은 2003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불교학과 천태학과 등 2개 학과를 설치한다. 또 외국어 교육 등 승려재교육과 신도교육에도 역점을 두어 종단의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신도들의 수행과 공부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대구 울산 등 대도시에 있는 사찰에 6개월 정도의 단기 교양대 코스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대조사전 낙성에 이어 제2성역화 작업으로 구인사에 성보박물관을 건립한다. 이 성보박물관에는 삼국시대부터 최근세에 이르는 불교관련 유물이 다수 전시될 예정이다.

대전 삼문사, 춘천 삼운사, 창원 운흥사와 같이, 현재 짓고 있는 도심에 위치한 매머드급 사찰들의 낙성회향식도 갖는다. 도심포교사찰의 요충지가 될 이 사찰들은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수행과 문화공간으로 개방된다.



◇중부권 포교의 새 요충지가 될 대전 삼문사. 매머드급 사찰로 올해 완공, 시민들의 수행 · 문화공간으로 개방된다. 지난해 6월 상량식 모습.

특히 21세기 복지사회 건설에 발맞춰 종단의 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관 운영과 시설투자에 힘을 기울이고 종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이외에도 본산과 각 말사간에 인터넷망을 구축, 말사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이버신행상담, 각 단체별 사이버법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천태종을 창종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출가 · 열반지인 개성 영통사지 복원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한다. 이경숙 기자

올 어떤사업 펼치나

종조탄생 100주년사업 '매진' 진각종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의 올해 사업은 종조인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이 되는 2002년과 연계해 회당대종사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이를 종단 재도약의 계기로 삼는다. 특히 종단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설립, 이를 중심으로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새 불교문화를 창달하는 '문화종단'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한층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것.

진각종은 '참여 화합 회향'을 큰 주제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47개 사업을 벌인다.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문화재단 설립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는데 우선 회당대종사를 내년도 문화인물로 추진해 올해부터 그 생애와 사상을 보편화하는 작업을 강화한다. 내년 5월 10일 10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 이때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한다. 회당대종사 탄생지 울릉도 금강원을 성역화하고 이곳에 선대스승 추모전을 건립하며, 위덕대에 100주년 기념관을 설립해 각종 사진 및 유품 자료를 전시한다. 회당학원 50년사를 발간하고 종조의 사상과 밀교학 세미나도 개최한다. 〈진각교전〉도 새롭게 보완해 재발간하고 〈대일경〉 〈금강정경〉 등 밀교 관련 주요경전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도 추진한다.

진각종도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를 파악해 '가칭' 진각리더스클럽'을 만들어 신행활동의 선도 및 자문역할을 맡긴다. 진각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고, 북한의 장안사, 경주의 사천왕사 등 밀교유적지 복원에 착수하며 내년 5월에는 밀교의식 시현법회도 가져 밀교의 대중화를 유도한다.

대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통일대비 포교기금 3년차 2억원을 적립하고 종단협 방북과 함께 올 7월에는 종단 대표단의 세번째 방북을 성사시킨다. 진각복지재단의 북한지부가 설립되도록 NGO차원에서 추진한다. 지난해 조불련과 합의한 컴퓨터 직업훈련소 개소 및 컴퓨터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며 남북불교교류 관련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와함께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金河堂 光德 大禪師 涅槃 2주기 追慕法會 및 特別講演會 奉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새로운 문명의 세기,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혼돈과 불안으로 잔뜩 왜소해진 인류에게 스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설파하셨습니다. 선교(禪敎)에 대한 깊고 넓은 지견과 실천적 수행을 겸비하시고, 뜨거운 신앙심과 서원으로 다진 수행공동체인 '불광회'를 창립하여 대중포교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순수불교운동지 월간 불광을 발행하시어 문서포교의 새 장을 여신 선각자로, 대중불교의 횃불로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으며, 그 빛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 큰 빛을 나투시고 세간의 밝은 등불로 헌신해오신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어느덧 2주기가 되어옵니다.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전법으로 깨달음을 이루라는 간곡한 부촉을 잊지 않으셨던 스님의 부촉을 받자와 저희 대중들은 더욱 일로매진해갈 것을 거듭 서원드리오며, 스님의 뜻과 행적을 기리는 추모법회와 추모강연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광사 · 불광법회 회주 지 정 회장 현선 김상규 합장

제 1부/ 추모법회 법어/보성 큰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일 시: 2001년 2월 4일 (음력 1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

제 2부/ 특별 강연회 불광운동의 사상과 실천 -김영래 교수 (동국대 명예교수)
일 시: 2001년 2월 4일 (음력 1월 12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 불광사 보광당
문의전화 : 02-413-6060~2 | http://www.bulkwang.org | E-mail:webmaster@bulkwang.org 불광사 · 불광법회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 대선사 연표

1927년 경기 화성 출생 | 1950년 무산 범어사 입산 | 1951년 무산 범어사 청풍담 정진
1955년 무산 범어사 동산 선사를 은사로 득도
1956년 비구계 수계, 대각회 창립, 초대회장 | 1958년 조계종 중앙감찰위원 | 1962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1963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 지도법사 | 1965년~1967년 봉은사 주지, 학교법인 대동학원 이사
1966년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 1969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재단법인 대각회 감사
1971년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무의장 청담 스님 열반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당시 조계종 총무부장)
1973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 1974년~1999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순수불교 운동지 월간 『불광』 발행인
1975년~1999년 불광법회 창립, 법주 | 1977년~1995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역임
1979년~1999년 불광출판부 개설, 발행인 | 1990년~1996년 선참 대본산 범어사 관감계단 보살계 전계대화상
1992년~1999년 도서출판 한강수 개설, 발행인 | 1993년~1999년 재단법인 보덕학회 이사 1999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열반

역지서 -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삶의 빛을 찾아 빛의 목소리,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품 강의, 행복의 법칙, 에이레 없는 공짜기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신관새진, 육조단경, 부모은중경 관음경, 지장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천수관음경, 법화요전 등 다수

찬불가 - 칭직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 부모은중송, 이하반야의 노래, 연꽃 피는 날, 친란한 이 아침, 초파일 송가, 빛으로 돌아오소서 님의 숨결, 임은 태양 위 태양, 혼자 있을 때, 보디스바하, 우리는 불국토의 주인이로다, 번영하는 사람의 기도 등 다수 작시

일주문



1월 다보법회 설법

법장수덕사 주지는 31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02)703-0108



익산 부사관학교서 수계

도영 김제 금산사 주지는 10일 익산 부사관학교 법당에서 열린 장병 수계법회에서 장병 180명에게 수계했다.



안면암서 방생법회

지명 법주사 주지는 2월 2일 충남 안면도 안면암에서 신사년 정초 방생 법회를 봉행한다. (043)543-3615



좋은벗 풍경소리 총재취임

지현 '좋은벗 풍경소리' 총재는 2월 1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신년회와 함께 총재 취임식을 갖는다.



제9교구 신년하례

성덕 동화사 주지는 15일 본말사 주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홍콩 전자지도회의 참석

종림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홍콩에서 열리는 '전자문화지도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했다.



킹 목사 자유인권상 받아

권노갑 동국대 총 동창회장은 16일 미국 국가문화재단(NCF)이 수여하는 마틴 루터 킹 자유인권상을 받았다.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재임

김유혁 前 단국대 교수는 17일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에 재임명돼, 운덕 총무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구인사로 도용종정 친견

김묘주 여성불교연합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친견을 위해 2월 5일 단양 구인사를 참배한다.



지리산살리기 공동사무처장

임효정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은 18일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사무처장에 선임됐다.

"생활속 작은 환경운동 펼래요"

신사년을 뛰는 **우 바 이** ③

이웃을 돕는 사람들

위 정 희 사무국장



"올해는 여성 불교환경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300명의 자원봉사자와 3천여 명의 후원자, 15명의 운영위원과 한 마음이 되어 내실을 다지는 해로 삼겠습니다."

9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지 꼭 10년이 되는 경불련 이웃을돕는사람들(이사장 김동흔)의 위정희 사무국장. 7살 바기 아들과 18개월 된 딸을 둔 엄마이자 아내, 대학원생(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으로 1인4역을 하고 있는 위 국장은 "10년 간의 크고 작은 성과를 되돌아 보면서, 경전읽기모임 등으로 신행을 추스리는 동시에 재정 · 조직 면에서 더욱 건실한 불교NGO가 되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성 빠알리성전협회장과 함께 진행한 '초기 경전읽기 모임'을 통해 생활 주변의 사소한 일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었다는 위 국장은 주부들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환경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생각이다.

내달 1일 주부 환경모임인 '어머니 환경위원회' (위원장 정법련화)를 발족, 사찰에 꽃 · 나무 심기,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분기별로 환경교실을 열어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단체 회원들도 점차 늘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캠페인도 벌인다.

경불련의 환경모임 발족은 지난해 7월 재활용 알뜰가게인 '내 친구 초록이' 오픈에 이은 두 번째 환경관련 활동이다. 특히 여성불교환경운동은 처음이어서 위 국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95년 경불련에 몸담으면서 위 국장이 펼쳐온 복지사업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실직자의 구호와 자활을 위한 '아침을 여는 집', 실직가정 어린이들을 돌보는 '희망만들기 열린 학교', 무의탁노인과 소녀소녀가장 및 장애우를 위한 '자비의 집', 제3세계의 빈곤과 아동구제를 위한 공동체 네팔 '아침을 여는 마을'을 개설 · 운영함에 있어, '엄마' 같은 역할을 해왔다.

이런 저런 일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다 보니 '시민운동의 코디네이터'란 별명을 얻은 위정희 국장은 정부와 불교계, 후원자들로부터 예산을 무리 없이 확보해 추운 겨울 여러운 이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입기를 언제나 기원한다.

새로운 일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식으로 시민운동을 보살행으로 승화시켜 온 그녀는 돕고 싶은 마음만 있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불자들을 위해 이렇게 말한다.

"참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그 찰나, 뒤돌아보지 말고 실천에 옮겨보세요. 작은 깨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금강경 법향 가득 담긴 메주

Focus

'금강경 메주'를 아시나요?

옛부터 음력 정월은 장 담그는 달. 금강경독송회는 매년 포항 금강정사에서 영주산 우리 콩으로 일체의 인공 조미료를 넣지 않는 재래식 방법으로 메주를 제조한다.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수지독송하며 지극 정성으로 만들었기에 이름도 '금강경 메주'. 금강경독송회는 정성껏 만든 메주를 전국에 보급하고 그 수익금으로 북한 동포 및 결식 아동을 도울 계획이다.

(02)742-0172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홍파 · 성운 · 자용 스님 대통령 표창



지난 17일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김대중 대통령 · 이하 민주평통)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왼쪽), 삼천사 주지 성운(중앙), 수국사 회주 자용(오른쪽) 스님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홍파 스님과 자용 스님은 종로구와 은평구 민주평통협의회 회원으로, 성운스님은 민주평통 종교분과 상임위원으로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장애아동, 부처님 손길 기다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 동국대서 석사학위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이 장애아동복지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다룬 논문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논문 '불교 장애아동복지에 관한 연구'는 불교사회복지의 취약부분인 장애인복지분야 중에서도 특히 장애아동복지에 대한 발전방향을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평소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스님은 "장애인복지사업은 종교, 특히 불교사회복지의 이념에 비춰 그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다"며 불교장애아동복지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소쩍새마을, 치자마을, 상락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교계 11개 시설을 중심으로 사례연구자료를 제시한 정련스님은 "불자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과 장애아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각 복지시설에서 시행하고, 이를 위한 불교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대불청 회장 이 · 취임 법회

대한불교청년회는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중앙회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 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김규범 새 회장은 "불청인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만해백일장 및 불청대회를 통해 실천과 수행이 겸비된 청년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초구사암련 신년 대법회

서초구사암연합회(회장 춘광)가 주최하는 '신년대법회 및 효도잔치'가 16일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월운(동국역경원장)스님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회장 이 · 취임식, 사암련 발전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 불자(곽금환, 송혜성)에 대한 공로패 전달, 구내 18개동 노인정에 대한 후원금 전달 등이 있었다.



부산 · 경남포교사단 신년하례

부산경남포교사단(단장 황소성)은 15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 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지종 스님을 비롯 1백여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성오 스님은 "불교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포교사들이 앞장서서 불자들에게 일깨우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직자 쉼터 '선혜마을' 김장 담그기

사회복지법인 범어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실직자 쉼터 선혜마을(관장 정여)은 9일 김장 담그기를 실시했다. 양정 현대아파트 2차 부녀회(회장 공옥화) 회원 10여명이 배추 4백 포기와 양념을 준비해온 이날 김치 담그기는 불교단체에는 불자들만 봉사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봉사로 의미를 더했다. 또한 부녀회는 이불 2백 여채를 보시하며 훈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200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 모집 내용
   가.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나. 범 패 과 : 00명
   다. 불교미술과 : 00명

2. 응시 자격 :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신입생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2학년 편입생(불교학과만 해당됨)
      1) 정규대학 졸업자
      2)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3. 전형 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4.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1년 1월 15일(月) - 2월 17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5. 전형일 : 2001년 2월 18일(日) 10:00 -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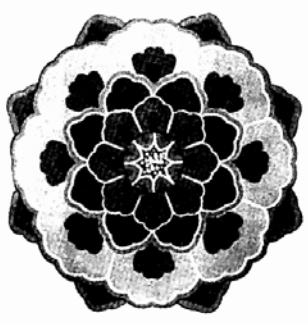
6.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라.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사. 반명함판 사진 6매

7.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8.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 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나.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 문의 바람)

9. 기 타
   가. 제출 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여 됨.
   나.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다.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0.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8536) 나. 태고종 총무원(☎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733-3346)



동 방 불 교 대 학

(우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02)763-0229, 763-8536

공무원 불자회 "불심모아 도약"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불자들이 '불자회 중흥'을 외치고 나섰다. 지금까지 산발적인 활동에 그쳐온 공무원 불자들은 신년사업계획 발표, 사찰순례, 신년하례법회, 오찬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며 올해를 '공무원 불자회의 해'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인 반야회는 13~14일 수덕사로 사찰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순례법회에서는 관세청, 행자부, 특허청 등 5개 기관 불자회 회원 및 가족 50여명이 동참해 신심을 키웠다. 지난해 9월 창립한 반야회는 이날 법회에서 매주 수요일 정기법회 봉행, 불교기초 고리 · 다도 · 불교미술 강좌 개설, 타 신행단체와의 교류, 동 · 하계 수련회 개최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회장공석으로 운영된 체제를 정비하고 회장에 문화재청 김창균씨를, 총무에 통계청 김선녀씨와 행자부 이해숙씨를 각각 선출했다.

김창균 신임회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각 청 불자회 및 반야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야회 진흥 원년의 해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과천정부청사 내의 농림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불자회 30명은 지난 12일 청사인근 식당에서 신년하례오찬을 가졌다. 이날 오찬에서 참석자들은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고리강좌를 개설하고 각 청별로 큰스님 초청법회를 월 1회 돌아가면서 개최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한 노동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불자회 창립을 유도하고 나아가 과천정부청사 연합불자회를 창립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내 행자부 불자회(회장 하재춘)도 2월 초순경 교육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불자들과 함께 법련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며 이들 부처에 불자회 창립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중앙부처 공무원 불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불자회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모습.

대전청사 회장뽑고 교리 · 다도 강좌 개설

과천청사 불자회 창립…매월 큰스님 초청

공무원 불자련 연대강화…의료봉사 · 농어촌 포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노옥섭 이하 연합회)는 사무국 조직 및 지도법사 위촉 등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다른 직장 직능연합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간사업계획을 13~14일 공주 갑사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원 신년하례법회에서 발표했다. 이에따라 연합회는 홈페이지 제작, 연합회보 발간과 함께 광주 · 전남지역과 정부종합청사를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고 이곳 기관에 불자회 창립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 6월 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함께 의료봉사 및 농어촌지역 포교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회 안홍부 사무총장은 "올 한해는 조직정비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행사를 펼쳐 회원들의 친목과 신심을 키우겠다"며 "공무원 불자회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공무원불자회 지원을 올해 직장직능분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포교원은 올 3월 대전정부청사 인근에 포교 거점도량을 설립하고 대전지역 직장불자회에 법회장소 및 지도법사를 위촉해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미결성기관 공무원불자회를 집중 지원하고 직장직능 연합회보인 〈직장불교〉의 발행부수를 늘려 직장불자들에게 신행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올 한해 공무원 불자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MBC불교硏 신년법회

MBC불교연구회(회장 장영효)는 증권거래소 불자회와 합동으로 18일 여의도포교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2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여의도 포교원 원장 현진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직장불자로서 바른 신행을 서원했다.

약사회 지도법사 위촉

대한불교약사회(회장 김종열)는 서울 정릉 청학사에서 봉행한 신년하례법회에서 청암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했다. 청학사 주지 청암스님은 "약사보살의 정신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법사 공석과 의약분업으로 그동안 활동이 부진했던 약사회는 앞으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사찰순례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불자회 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경남은 법우회 창립법회



경남은행 불자회인 경은법우회는 지난 9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2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법회에서 바른 신행을 실천하는 불자회가 될 것을 서원했다. 이찬형 회장은 "구조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른 신행을 펼쳐 법우회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월성원자력 반야회 신년하례

월성원자력본부 반야회(회장 이용수)는 1월30일 사택내 법당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지리산 살리기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가 17일 원불교 종로교당에서 열렸다.

'지리산 보전' 국민운동으로

'국민행동' 정기총회 토론회

100일 기도 · 백두대간 종주

도보순례 · 심포지엄 개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1월 17일 원불교 종로교당 3층에서 2001년 정기총회 및 '지리산 살리기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 김명자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190개 회원단체들은 지리산댐 반대운동에서 보전운동으로, 단체운동에서 국민운동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지리산과 낙동강 · 새만금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연대구조를 형성키로 하는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내달 16일부터 종교계 지도자들의 합동 100일 기도(5월26일까지), 통일 및 동 · 서 · 좌 · 우 종교간 화합 기원 백두대간 종주(5월5일까지), 지리산 도보순례(5월 6일~25일), 지리산 좌우익 희생자 해원상생 기원제(5월26일) 등을 개최키로 하고 국제 댐 심포지엄 등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규용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방향'이란 발제문을 통해 "낙동강 대책의 실질적 추진을 가능케 하는 낙동강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확보(지리산댐 등) 등의 대책도 친환경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지리산 댐 건설계획과 관련, 18일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의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정책평가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1월말까지 조사단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 상반기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은평구 사암련 국운융창 법회

불우이웃에 장학금 · 쌀 20가마 전달도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은평구 사암연합회(회장 성운)와 공동으로 19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신년맞이 국운융창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삼천사 성운, 수국사 자용 스님을 비롯해 은평구 관내 사찰 스님들과 이배영 은평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법회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 5명과 저소득 40가정에 장학금 및 쌀 20가마가 전달됐고 모범 공직자 5명과 신행활동에 열심인 불자 47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펼쳐졌다. 김두식 기자

게시판

알림

▲예비중학교 개설=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졸업을 앞둔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중학교를 개설한다.

전액 무료인 이번 행사는 2월 2일까지 단국대 '아이사랑' 자원봉사 동아리와 연계해 국어, 영어, 수학의 학습지도와 미리 가보는 중학교, 중학생의 태도, 친구사귀기 등 집단훈련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2)2282-1100

▲아동 · 청소년 심리검사=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방학을 맞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초 · 중 · 고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내용은 진로탐색검사, 특수인성검사, 학습능력진단검사, 학습방법진단검사 등이며 검사를 원하는 학생은 사전 전화예약을 해야한다.(02)852-0525

강좌

▲정각스님 등 초청 무료특강=전북불교대학은 겨울방학을 맞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27일 소설가 한승원씨의 '내 삶과 문학속의 불교', 2월 10일 국민대 명예교수 박희선씨의 '생활속의 참선과 건강', 2월 17일 파계사 주지 성우스님의 '불교 태교이야기', 2월 24일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의 '불교를 어떻게 믿을것인가'를 주제로 오후 3시 큰법당에서 무료 공개특강을 개최한다.(063)226-7878

▲'한국불교사상 원류' 무료 강좌=광주불교교육원은 '한국불교사상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무료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2월 6일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의 '보조사상의 현대적 재조명', 2월 13일 정토사 회주 한탐스님의 '21세기 정토사상의 발전방향', 2월 15일 쌍계사 원호스님의 '진정한 쉼, 깨어나기(선의 이해)' 순으로 오전 10시 대학 강의실에서 열린다.(062)228-9098

모집

▲프로그램 진행 강사=성북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한글, 탁구, 서예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도해 줄 강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2)929-7950

▲간월암 답사자=터사랑은 2월 4일 '백제의 미소와 안면도를 찾아서'란 주제로 서산 마애삼존불과 간월도 간월암을 참배할 답사자를 모집한다. 역사탐방연구회 정인식씨의 안내로 진행되는 이번 답사는 돌아오는 길에 안면도 꽃지 해수욕장도 방문한다.(02)725-1284

▲무불선학대학원 신입생=무불선학대학원은 2001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주 · 야간반, 통신반으로 원서접수는 2월 24일까지이다. 불교 교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로 선학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02)541-0002

화촉

▲본사 오종욱 기자는 2월4일 오후 1시20분 광주 제일스카이 웨딩홀에서 불교TV 서미정 PD와 화촉을 밝힌다. (017)238-8990.

天藥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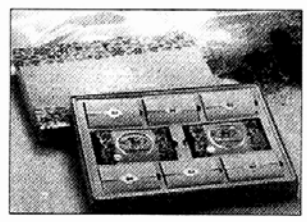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 447-5300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향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딩뇨나 감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7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전국 대리점 모집 중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고요한 적막…정진…죽비소리

신행현장

유니텔 불교동호회 참선수행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집밖을 나오기 싫은 한겨울인 지난 12일 저녁 7시 30분, 고등학교 학생, 직장인, 통역 프리랜서, 자영업자 20여명이 서울 강남포교원 수선실(修禪室)에 모였다.

이들은 바로 유니텔 불교동호회 부처님나라(대표시삽 오기석) 참선방 회원들. 10대 학생에서부터 50대 직장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즐맞추듯 가지런히 놓인 좌복 위에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참선방은 PC통신을 통해 이루어진 사이버 신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참선에 관심있는 5~6명의 사람들이 모여 98년 11월 문을 열었다. 지금은 1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온라인 게시판에서의 문답을 통한 이론공부와 매주 목요일 저녁 실수를 통해 참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99년 한해동안 임제선원장 종성스님으로부터 참선에 대한 이론과 실수를 배워 지금은 스님이 내려준 화두를 들고 자신의 진면목을 관(觀)하는 '예비 수좌들'이다.

또한 서옹, 혜국 스님 등 큰스님 초청법회와 염불, 봉사활동도 펼치며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딱, 딱"

고요한 적막을 깨는 죽비소리와 함께 50분간 참선삼매에 빠져 있던 회원들은 다리를 펴며 몸을 추스린 뒤 원을 그리며 법당을 도는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한다. 다시 울리는 죽비소리에 회원들은 자리에 앉으며 50분간의 정진에 들어간다. 오기석(48 · LVMH코리아 근무) 대표시삽은 오늘 처음 참석한 고교졸업반 원수연(18 · 서울 개봉동)군과 초심자인 문중식(35 · 리에드커뮤니케이션 운영)씨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참선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준다.



◇고교졸업반 원수연과 자영업자 문중식씨에게 참선의 기본자세를 가르쳐 주고있는 오기석 유불동 대표시삽.

강남포교원 수선실

10대~50대 20여명

'참나 찾기' 치열한 싸움

"참선은 나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자신의 호흡은 죽지 않는 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관찰하면 세상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설명을 듣는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인다. 수연군은 "참선에 들면 잡다한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고민을 털어놓았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다만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가면 안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을 관(觀) 하세요"

초심자들을 위한 교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방에서 참선을 마쳤다는 죽비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 2시간여 동안의 실수에 이은 차담시간. 박은영(31 · 통역 프리랜서) 참선방 총무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오늘은 화두가 잘 안잡혀" '끽다거'를 화두로 정진하는 오시환(47 · 광연재 근무)씨가 말을 꺼내자 수식관을 하고 있는 구자운씨(33 · 삼성반도체 근무)도 "숨을 놓칠때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회원들은 수행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지한 대화를 통해 수행 도반으로서 서로를 고무시키고자 하는 따뜻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바삐 돌아가는 일상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알고 마음을 잡기란 쉽지 않은 일. 유니텔 불동 부처님나라 참선방 회원들은 비록 온라인상에서 만났지만 가끔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체온을 나누며 수행정진에의 의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장미'라는 이름엔 향기가 없다

비록 자신의 견해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굴레가 된다. 비록 자신이 믿는 종교가 명징하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보물 같다' '이것만이 참이다' 하여 애지중지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가르침이 뗏목 같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종교를 존숭한 나머지 다른 이의 종교를 서슴지 않고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뗏목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뗏목의 노예가 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수행하려 하기보다 다른 이의 종교를 '우상 숭배다' '미신이다' 하며 비난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가르침의 노예가 된 경우이다.

불교 중흥에 크게 기여했던 인도의 아쇼카 왕은 다음과 같은 칙령을 바위에 새겨놓도록 했다.

"…남의 종교를 존중하면 자기가 믿는 종교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내 종교를 찬양하기 위해 남을 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헌신하려던 제 종교를 더럽히는 사람이다. …."

우리 주변에는 이 아쇼카 왕의 경구를 귀담아 들어야만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찬양과 헌신이 지나쳐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란 무엇인가.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라는 이름이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진리의 가르침'을 그 내용으로 하기에 종교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름으로서의 불교 · 기독교…를 두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며 다투는 것은, 예컨대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과 국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장미가 좋다, 국화가 좋다고 다투는 것과 진배없다.

국화도 꽃이고 장미도 꽃이다. 아름다움과 향기는 꽃에 있는 것이지 국화라는 이름, 장미라는 이름에 있는 게 아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이름을 따르는게 아니다.

이름엔 진리가 없다. 진리엔 이름이 없다. 진리는 오직 진리 그 자체이다. 고로 '불교'라 함도 '기득교'라 함도 다 이름이다.

스스로 참된 종교인이라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름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새해 첫날의 초발심

"날마다 좋은날 만들자"



지형스님
소림정사 주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력설을 중히여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 설을 앞두고 국민들 대부분이 설을 지내기 위해 부모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떠납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고향에서 부모형제와 조우하고 죽마고우를 만나 정다운 덕담도 나누겠지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첫 출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지내는 설날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자들은 집에서 음식 장만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고,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본분을 망각하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설을 지내지 않는 사람들은 연휴로만 생각하고 새해 첫날부터 해외로 나가거나 스키장 등을 찾아가 흥청

낮은 땅 사는 뱀처럼
자신 낮추고 겸허하게

망청 놀고 즐기며 방일하게 보내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설 명절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며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자들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날 봄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고, 조용히 가족과 함께 어른들을 찾아 뵙고 세배를 올리고 나서 가까운 사찰을 찾아가 각자의 1년 서원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출발이라고 마음만 들떠서 원대하고 높은 서원을 세우다보면 그저 계획을 짜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높은 곳만 쳐다보지 말고 자기자리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욕심없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서원을 세워 보십시오. 낮은 땅에 사는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오히려 성숙해 갑니다. 우리도 뱀처럼 현재의 위치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조고각하(照顧脚下)'의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또 수행과 전법에 게으른 불자들이 많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 불자들은 초발심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 가다가 방일하거나 나태해질 때면 대 용맹심을 발하여 참나를 찾고 늘 처음 가졌던 마음, 즉 초발심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 마음을 바로 새해 첫날에 세우길 바라는 겁니다.

육조 혜능 대사는 '부처님의 진리가 세상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세간과 함께 하는 것이고 중생계를 떠나서 진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정진하면 그것이 곧 성불로 가는 지름길이요, 지혜로운 참불자의 길입니다.

밀레니엄 시대의 첫 설날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시라고 덕담 한마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춘유백화(春有百花) 추유월(秋有月) 봄에는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둥근달이로다.
하유양풍(夏有凉風) 동유설(冬有雪)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흰눈이 아름답도다.'

사시사철 온 우주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이 무한한 가피를 내려주고 있으므로 나를 우주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가져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좋은날 되십시오.

신행 캘린더

1월 24일 (수)

■조계사 설날합동차례=조계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웅전에서 설날합동차례를 봉행한다.(02)732-2115

1월 26일 (금)

■동화사 7일 정초기도=대구 동화사는 2월 1일까지 대웅전에서 정초기도를 봉행한다.(053)982-0101

1월 27일 (토)

■삼대보궁 성지순례=조계종 진여회는 무박 2일로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 보궁을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저녁 9시 조계사 앞.(02)821-3242

■합동천도식=영산 법화사는 오전 11시 30분 장흥원당에서 합동천도식을 봉행한다.(02)762-4922

1월 28일 (일)

■금강정사 건립 10주년 기념법회=서울 하안동 금강정사는 건립 10주년을 맞아 오전 10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02)893-2700~1

■전국교사불자연합회 겨울 수련회=전국교사불자연합회는 30일까지 불국사에서 겨울 수련회를 봉행한다.(011)740-9494

1월 30일 (화)

■불교여성개발원 신년하례 =불교여성개발원은 오후 6시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신년하례 및 위촉장 수여식을 봉행한다.(02)722-2101

1월 31일 (수)

■동방불교대 불미과 졸업전시회=태고종립 동방불교대 불교미술학과는 2월 6일까지 인사동 삼정아트스페이스에서 제 7회 졸업작품전을 연다. 오후 6시. (02)732-1206

2월 3일 (토)

■현대불교신문사 제 6회 신행수기 시상식=현대불교신문사는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제 6회 신행수기 시상식을 개최한다.(02)722-4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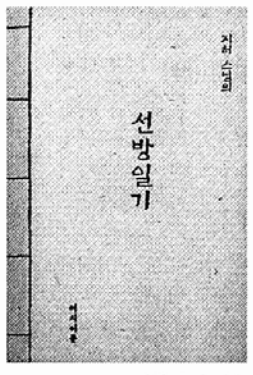
2월 4일 (일)

■광덕스님 열반 2주기 추모법회 및 특별강연회=불광사는 오전 10시 보광당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큰스님을 모시고 광덕대선사 열반 2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오후 1시에는 '불광운동의 사상과 실천'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도 개최한다.
(02)413-6060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걸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질간에는 피안도 열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꺼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 · 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 · 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 · 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 · 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박태원 교수의 22

불교로 보는 인생

콤플렉스로부터의 해방

폭설로 교통 대란이 빚어지던 연초, 서울에 있던 나도 발이 묶였다. 공항은 제 때 출발하지 못하는 승객들의 안타까운 마음들로 뒤숭숭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곳 저곳에서 거친 고함들이 터지고 있었다. 고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 결핍으로 비판받곤 하던 국내 항공사들이었지만, 이 날은 상황이 달랐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출발 지연이었다. 그러나 예약 승객들의 항의는 거칠었다. "왜 비행기 안 띄워? 당신들 때문에 사업 망치게 됐어. 어떻게 할래? 책임져!" - 이런 식이다. 평소의 불만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 거센 항의와 삿대질에 여직원들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른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문득 한국인들의 피해 의식과 그 콤플렉스가 느껴졌다.

5살 때 나는 전신이 마비되며 죽음 직전까지 몰렸었다. 긴장으로 팽팽한 삶의 고비들은 선명한 기억을 남기는 법. 그래서인지 5살 그 해의 일들이 아직도 끊기지 않는 필름으로 뚜렷하게 남아있다. 그 때의 생각, 느낌, 감상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종합병원이 포기한 나를 집안의 한의사 어른이 기사회생시켰다. 한 첩 한 첩 쓸 때마다 기적같이 풀려나가는 마비를 보며, 나는 삼척 죽서루 앞마당에서 다시 뛰어 놀 생각에 들떴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한 채 고향으로 내려 온 후 서울로 이사갈 때까지 겪은 일년 여의 경험들은 고운 동화의 채색으로 내 정서 깊숙이 깔려 있다. 내 삶에 질긴 콤플렉스가 뿌리내린,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아릿하게 고운 빛으로 각인된 그 시절.

다시 걸음마부터 익혀 나가는 나에게 어머님은 친구 하나를 붙여주셨다. 한글을 깨치고 있었으니 아마 나보다 두, 세 살 위인 동네 형이었다. 세 발 자전거 태우고 내가 가고 싶다는 곳이면 어디든지 데려다 주었고, 한 번도 짜증 내지 않고 하루 종일 만화 책 읽어 주었다. 죽서루 딛 뺑대(오십천의 깊은 소인데 그렇게 불렀다)에서 고기 잡는 것 보고 싶다니까, 그 험한 벼랑 길 내려가 낚시꾼 옆에 붙어 고기 낚아 올리기를 기다렸다. 잡는 족족 옆에 있는 물새 초롱에 먹이로 넣는 것을 보고는, 낚시꾼 몰래 새초롱을 물 속에 담갔다가 잡은 고기처럼 집어 올려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나를 기쁘게 해 주었다. 낚시꾼에 목덜미 끌려 올라온 그를 보고, 어린 마음에도 정말 눈물겨운 우애를 느꼈다.

서울로 이사가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그의 발걸음이 끊겼다. 서울 가기 전 한번이라도 보고싶어 하루 종일 대문 소리에 귀를 세웠다. 허사였다. 마지막날 어머니 등에 업혀 신작로 위에 올랐을 때, 집이 안보일 때까지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려 살폈다. 끝내 그리운 얼굴 눈에 못 담은 어린 마음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나한테 병이 옮을까봐 부모가 나를 만나지 못하게 붙들어 두었을 꺼야!" - 눈물이 고여 소년은 급히 엄마 등에 얼굴을 묻고.

그렇게 시작된 콤플렉스는 질기게 따라다녔다. 분발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과잉 반응, 피해 의식, 허세, 경직 등 후유증의 함정은 널려 있었다. 족쇄를 푸는 열쇠를 손에 넣은 건 실로 횡재였다. 콤플렉스의 토대를 해체시키는 공(空)의 이치, 이런 저런 콤플렉스 관념들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지켜(챙겨)보아 굳이 밀쳐내지도 붙들리지도 않게 하는 도리, 그리하여 그 콤플렉스란 놈이 머리를 들고 이리 저리 요동치다가 잦아드는 꼴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잔잔히 미소지을 수 있게 하는 희한한 공부 길 - 이 석씨 집안 가풍을 쏘이면서 비로소 콤플렉스와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공부 놓쳐 경계 속을 헤매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열쇠를 손에 넣으니 길 몰라 답답해 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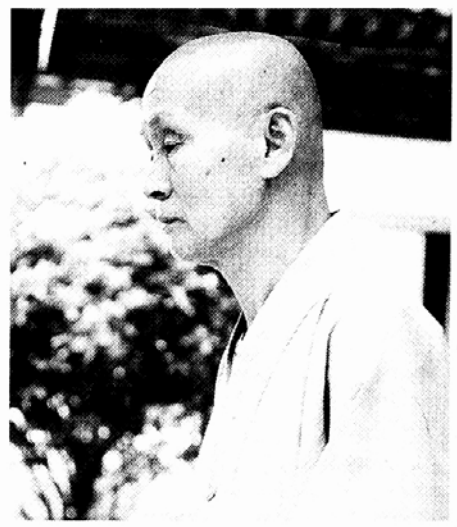
병뿌리 다스리려면 부처님 처방전이라야

가까운 역사 경험만 하더라도 이래저래 한민족은 콤플렉스가 많다. 남이든 북이든, 가슴속은 콤플렉스로 멍이 들었다. 물질 여건이 나아지고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 병증도 호전되겠지만, 병근(病根)까지 다스리려면 부처님 처방전이라야 할 터.

▩ 울산대 철학과 교수

세상사 간절한 의문 '일념으로 참구'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의심을 일으켜서 정진하는 화두선은 최상의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다. 화두를 들고 있는 대정 스님.



참불자의 길 참선③-화두 드는법



◇혜거스님

'화두(話頭)'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

참선 공부를 하는 불자라면 한번쯤 품어봤을 의문이다. 화두는 일념으로 간절히 참구(參究)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요령이 없다고 오랫동안 참선을 해온 스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조언한다.

'화두 수행법'에 대해 혜거 스님(금강선원장)이 설명해 주었다.

의문자체가 분발심

-화두란 무엇인지요.

▲화두란 간단히 말해 '말보다 앞서 가는 것' 즉 '언어 이전의 소식'이란 뜻입니다. 흔히 책의 머리말을 '서두(序頭)'라 하듯 참된 도를 밝힌 말 이전의 소식이 화두며, 언어 이전의 내 마음을 스스로 잡는 방법을 일러 화두법이라고 합니다.

-참선할 때 화두는 왜 드는지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갖고는 있지만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풀어 나가는 방법은 매 한가지이므로 여러 가지 의문 중 한가지를 택해 그것이 완전하게 해결될때까지 참구하면 나머지는 관심만 가져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지요. 이때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바로 분발심입니다. 이러한 분발심을 이루기 위해 화두를 드는 겁니다.

-화두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화두는 세상사에 대한 간절한 의문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세상일에 대한 관심과 의문이 없으면 화두를 들 수 없지요. 따라서 간절함 그 자체가 바로 방법이지 화두를 드는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 주인은 얼마나 간절하게 불을 꺼야 겠다는 일념이 들겠어요. 그처럼 불을 꺼야겠다는 간절한 마음 없이는 불을 끌 수 없듯이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를 들려면 우선 매사에 간절한 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막상 화두를 잡아도 쉽게 집중하지 못합니다.

화두를 들 때 정신집중이 안되면 우선 눈으로 앞에 있는 사물을 응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꽃은 어떻게 필까'를 화두로 삼았다면 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간절하게 눈으로 응시하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응시하다 보면 의식과 순환 작용이 정지되며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몇날 며칠이 지나도 순환기능이 정지돼 대소변을 안봐도 되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 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두 삼매의 경지입니다.

-화두는 어떻게 받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화두 즉 공안이 보통 1800여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찰 수련회를 가보면 보통 '이뭣고'나 '무(無)' 등 널리 알려진 화두를 지도법사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내려주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와같이 집단에게 내려지는 화두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간절하게 참구하고자 하는 의문도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자 자신의 근기에 맞는 화두를 수행상담을 통해 선지식들에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기 맞게 화두받아야

-명상과 참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명상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의문이 이어지고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므로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화두를 드는 참선은 관념에서 벗어나고 전제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명상과 다릅니다. 오직 하나의 의문이 화두가 되어서 일념으로 참구하고 또 참구하여 물아일체의 경지에서 화두가 타파되고 신심이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삼매입니다. 삼매에 들면 의식과 순환기능이 멈춰 감각기관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김주일 기자

禪과 21세기

의미 이전 자성의 움직임을 보라

43 선과 언어 (7)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종문무고(宗門武庫)〉에 보면 간화선의 제창자 대혜종고의 스승인 원오극근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계기를 묘사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 일화를 통하여 선의 깨달음에서 화두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자.

원오극근의 스승인 오조법연은 어느 날 진제형이라는 거사에게 말했다. "제형은 어린 시절에 '소염시(小艶詩)'를 읽어본 적이 있소? 그 시 가운데 다음 두 구절은 제법 우리 불법(佛法)과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소옥아! 소옥아! 자주 부르지만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낭군이 목소리 알아들기를 바랄 따름이다." 진제형은 연신 "네!" "네!" 하였고 법연은 자세히 생각해 보라고 달했다.

때마침 원오가 밖에서 돌아와 물었다. "스님께서 '소염시'를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 진제형 거사가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까?" "그는 소리만 알아들었을 뿐이다." "낭군이 목소리 알아듣기를 바랄 뿐이라면, 그가 이미 그 소리를 알아들었는데 어찌하여 옳지 않습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뜰 앞의 잣나무니라. 악!" 원오는 이 말에 문득 느낀 바가 있었다. 방문을 나서니 닭이 홰에 날아올라 날개를 치며 우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다시 혼자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소리가 아니겠는가!" 하고는, 드디어 법연을 찾아가 인가를 받았다.

'소염시'는 당나라 현종이 총애했던 양귀비를 소재로 한 시다. 낭군의 정이 그립지만 낭군을 바로 불러올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일 없는 몸종 소옥이를 부름으로써 낭군에게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어 자신의 심정을 알아채도록 한다는 것이 시의 내용이다. 여기서 법연이 잘 살펴보라고 하는 부분은, '소옥아! 소옥아!' 하고 부를 때 낭군이 알아듣는 것은 '소옥'이라는 의미관념이 아니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즉 말을 듣고서 그 말의 의미관념을 따라가지 않고, 현상으로서의 그 말이 생겨나는 근원을 파악함이 곧 불법(佛法)이라는 것이 법연의 가르침이다. 법연의 이 말을 듣고 원오는 무언가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래서 '소리를 알아들었으면 된 것이 아니냐'고 물은 것이고, 법연은 원오가 견성하는 길을 찾았다고 보고서 즉각 '뜰앞의 잣나무'라는 공안을 제시하여 이것도 같은 것임을 알려준 것이다. 여기서 원오는 공안을 타파하고 견성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은 실로 위대한 줄탁동시의 한 장면이다. 원오는, '소옥아! 소옥아!' 하는 말이나 '뜰앞의 잣나무' 하는 말이나 '악!' 하는 외침이나 '꼬끼요!' 하는 닭의 울음 등에서 동일한 그 무엇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만법(萬法)에 공통되는 그 무엇, 만법이 귀일하는 그 하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를 선불교에서는 마음[心] 혹은 자성(自性)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체험을 두고 '자성을 본다[見性]'고 말하는 것이다.

언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은 제각기 다르다. '소옥아! 소옥아!'는 부르는 말이고, '뜰 앞의 잣나무'는 특정 대상을 지시하는 말로서, 이 둘은 소리이면서 동시에 의미를 가진 언어이다. 그러나 고함소리인 '악!'과 닭의 울음소리인 '꼬끼요!'는 의미를 가진 언어라기 보다는 단순한 소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소리'임을 알 수가 있다. '소리'란 무엇인가? '소리'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고 담지 않을 수도 있는, 의미 이전의 것이다. 즉 소리는 의미로 형상화되기 이전의 자성의 움직임인 것이다.

이 까닭에 원오가 말을 듣고 말이 아니라 소리를 알아들어야 한다는 뜻을 이해했을 때, 법연은 화두와 할(喝)을 사용하여 원오의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화두는 의미있는 말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되기 이전의 자성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직지(直指)의 방편이다.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초기불교 교단생활
부처님 제세시와 열반 직후의 초기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계 제도, 안거와 포살 및 자자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 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중 하나인 다라니와 탄트라의 의미, 밀교의 교판론 및 핵심 교리,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고 있다.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등 간 격
25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사찰용 전구 3W, 5W.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손잡이대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 전구
▶불제(佛製) 고속전구, 인지전구(순정품)
▶종류 : 3W, 5W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특 필라멘트)로 길어 절등히 밝고 열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청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여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탑돌이, 방생)등 비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합니다. (건전지 사용)
佛 佛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2)582-6235~6 무료전화 (080)5826-236 평생전화 (0502)582-6235~6
401-07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 A/S (032)583-4023 FAX (032)571-9470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 (031)986-0277~8

이렇게 들었다

교육개혁

"교사 자질-대우 향상"

"그물을 잡을 때, 먼저 그 벼리(망, 網)를 거두어야만 그물코가 다 바르게 되는 것이니, 벼리를 거둘 줄 모른 채 그물코만 먼저 바르게 하려다가는, 뒤죽박죽 서로 뒤엉켜버려 풀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러고는 마침내 자기생각이 옳다고 고집하여 노여움을 일으켜, 근본을 잃고 도리를 잊은 채, 바른 것을 헙뜯고 그릇됨을 좇는 바, 여기에 그 제자들까지 각기 뇌동하여 산율림이 소리를 좇듯 가세하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바로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고 만다." 〈오고장구경〉

부처님께서 교육과 방법에 대해 당부한 말씀이다. 이는 어떠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일을 풀어가야지, 조건은 갖춰지지 않는 채 좋은 결과만 바라는 인간의 욕심을 경계한 것이다.

최근 이돈희 교육부장관이 "학교가 학원과 경쟁해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학원교사들은 연구·교수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교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무능력한 교사는 떠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에선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교사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무시한 처사" 라며 "학부모와 교사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교육정책 실패의 짐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장관이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원강사와 교사간 능력 차이를 비교한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교사의 문제점을 비판하기 위해 근본적인 설립취지와 교육의 이념이 다른 학원과 학교를 비교해가면서 교사를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개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처님은 〈대아미타경〉에서 "거친 말을 멀리함으로써,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친 서로가 함께 해 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무능력 교사 퇴출' 이라는 장관의 말에 발끈하기보다는 교직사회 위상제고를 위해 오히려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높다.

교사의 자질문제에 대해 교사들은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교사의 자질과 관련한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의 문제는 그 근본원인이 헌신적인 교사와 물의를 일으킨 교사가 차별 없이 정년을 보장받고,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에도 있다. 그것 때문에 교직사회 전체가 경쟁없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바뀐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교육행정당국이 교육자들과 동반자적 인식 하에 올바른 교육개혁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원단체도 교육당국과 함께 경쟁체제를 제도화하고 교사의 자질향상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방안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때다.

김원우 기자

유전자 조작, 식량대란 초래할수도

물자세상보기

40년전 녹색혁명
오히려 종자 획일화
잦은 기상이변
농산물 생산 악화



박병상
생명·윤리연대
사무국장

196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진은 다수확 품종 개발로 몸을 떨었다. 제초제·살충제·화학비료, 관개와 기계화로 담보되는 녹색혁명, 적은 노동력으로 경작이 가능한 녹색혁명은 애초 예상했던 수확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후 40여 년이 지난 지금, 녹색혁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고 말았다. 크고 작은 댐과 관개수로는 아기자기한 지역 생태계와 경관을, 농약과 화학비료는 땅의 생산력과 농민의 건강을, 콤바인은 노동집약적 농촌공동체를 잃게 만들었지만, 녹색혁명으로 잃은 것 중 중요한 하나는 종자의 다양성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후 풍토에 맞는 다양한 곡식과 채소를 심어 오랜 세월 자급자족했던 농촌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한두 가지 작물로 획일화됐다.

녹색혁명은 사업 초기 많은 증산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 식량생산은 전 같지 않다. 레이첼 카슨이 농약의 위험성을 경고한 지 30년 만에 농약 사용량이 수십만 배 증가했건만 1990년대를 고비로 증산은커녕 감산의 고개를 넘고 있다. 녹색혁명은 실패한 것이다. 시행 초 늘어난 식량은 세계인구를 크게 늘여 녹색혁명 초기의 두 배인 60억 명을 초과하고 있지만 그들 중 8억 명은 만성기아에 허덕이고 해마다 3000만 명이 굶주려 죽는다. 대략 11초에 한 명꼴이다. 인류의 굶주림을 몰아내겠다는 녹색혁명, 그렇게 증산된 곡물은 가난한 이들에게 무상 공급되기보다 돈 많은 이들의 식탁을 세련되게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곡물의 상당량을 가축사료용으로 전용한 것이다.

최근 한 신문은 우리나라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정부에서 100% 안심해도 좋다고 밝혔지만, 몬산토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조작한 유전자가 미국산 수입콩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두부 제조용을 몰래 빼돌려 심었든, 종자회사의 은밀한 거래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든, 우리의 종자 관리 의식이 천박한 수준이라는 점이 큰 문제이지만 지역적 단작을 몰고 왔던 녹색혁명을 크게 압도하여 생명공학이 이제 세계적 단작의 시대를 불러올까 두렵다. 전 세계가 몬산토의 유전자 조작 콩만 심고,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만 먹어야 한다면, 세계인의 식성과 민심까지 몬산토의 눈치를 살피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난다.

엄격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약속된 소득을 보장하는 단작은 재배 환경에 따라 기복이 심하다. 환경이 맞을 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게 해주지만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종자 값도 건지지 못할지 모른다. 따라서 유전자가 조작된 농산물을 심으면 전통 재배방식은 자동 폐기되고 종자회사에서 제공하는 영농기법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없다.

생명공학을 강하게 비판하는 인도의 반다나 쉬바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세계적 단작때문에 뿌리깊던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일거에 단순해지고, 지역 정체성이 폐기될 것을 염려한다. 문제는 정작 감당하기 어려운 식량대란이 아닐까 생각한다. 몇 종류 안되는 유전자 조작 종자에 맞게 획일적으로 바꿔버린 세계 농촌에 기상이변이 몰아친다면? 기상이변과 환경변화는 점점 더 예측을 불허하고 있는데,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세계를 파고든다. 큰 일 치르기 전에 제철 제고장 농산물로 막아야 한다.

열린마당

종교 권력화

종교가 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종교단체의 성장제일주의와 재산 사유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 21'과 '주간동아'는 1월 18일자에서 '가장 무서운 집단, 종교권력' '불타오르는 종교개혁' 등의 제목아래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불교는 과연 부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나친 비난인가. 조계종 스님과 재가단체 인사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종교적 권위와 위계 필요조건"



만초스님 〈조계종 총무원기획국장〉

우리나라 종교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해방이후 자본주의에 물들어 세속화되면서 경제적인 부(富)나 명예(名譽)가 우선이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국민들의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깨달음을 향한 구원의 장이 돈벌이의 수단처럼 치부되는 현실은 종교인 스스로가 대오각성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만 보자면 한이 없을 것이며, 또 그것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도 않는다. 우리 불교는 해방 이후 상당한 진전을 거듭해왔다. 일본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포교와 역경, 교육 등 불교의 현대화를 추진하였고, 부족하지만 사회적으로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 그리고 인권에 이르기까지 만인을 위한 깨달음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조계종만 하더라도 해마다 안거철이면 2, 3천명의 스님들이 치열한 수행정진에 몰입하고, 전국 2500여개의 사찰에서 신도들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봉사와 신행에 정진한다. 문화재와 자연을 한몸처럼 보전하는 일에도 게으름이 없다. 혼자서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디지만 여럿이 가는 것이 종교의 발전이다.

종교마저 썩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희망을 얻을 곳은 없다. 어쩌면 종교인들도 썩었는데 우리가 조금 부정을 한다고 해서 큰일이 있을까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는 않을까하는 것이 염려된다.

종교의 개혁은 철저히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내에 구성된 종교적 권위와 위계에 의해 정화되고 다듬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교단 구성원의 일부나 일각에서의 사고가 마치 교단 전체의 일인양 인식되고 확대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교단 청정-정재 투명운영 필요"



김희욱 〈재가연대 협동집행위원장〉

종교권력의 일그러진 모습이 마침내 언론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부패가 은폐된 권력과, 허위의 성에 갇혀있는 권위주의의 해체과정을 강하게 채찍질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성장이다. 시민사회 참여민주주의의 성장은 모든 부당한 권력과 허위적 권위들을 해체해 가고 있다.

불교교단을 보자. 종단사태나 문중간의 권력다툼은 수행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어디 이뿐인가. 정치지도자는 이유 있는 학력허위기재로 옷을 벗는데 종교지도자는 상습도박으로도 교단 행정 서열 3위를 버젓이 유지하고 있다. 주로 국민의 혈세인 각종 정부보조금과 조상이 물려준 공동의 유산으로 살림살이를 하면서 그 살림살이의 투명성이나 생산성, 절약성은 추호도 안중에 두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관람료나 사찰재정의 불투명한 운영이 그렇다.

또한 어떻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슨 까닭인지 줄 곧 함구하면서 제 지내고 복 비는 일에 동참하라는 말에는 열을 올리는 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교의 자화상은 시민사회일반의 수준에도 미달되는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로써 대부분은 해체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 면에서 '한겨레 21' '주간동아' 등 시사주간지와 일반 언론이 종교권력문제에 손을 댄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앞으로 상당기간 그런 기류가 형성될 것이고, 종교계 내부의 부패와 몰상식, 불의는 시민사회라는 가장 강한 햇빛에 의해 옷이 벗겨질 것이다. 이제 감추어진 것은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고 받을때 기분이 싱그럽다



이우상
(소설가)

원로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최근 〈아주 오래된 농담〉이란 책을 냈다. 작가의 나이 일흔,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경지이다. 그래서 불인 제목인 것 같다. 내용은 분명 농담이 아니다. 작가 특유의 감칠맛과 긴장미를 견고하게 내재하고 있다. 소설이란 약간의 위안을 제공하는 그저 그런 것이 아니겠소라는 겸양의 말로 들린다. 이런 유의 농담이라면 넘쳐도 상관없을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하나씩 들고 나온다. 허공에 뱉은 침은 자신에게 돌아오고, 바람을 거슬러 티끌을 뿌리면 도리어 자기가 뒤집어쓴다. 경전에서 경고하는 구절들이다. 구업(口業)을 경고하는 구절은 경전의 도처에 있다. 그러나 제어하기 힘든 인간의 본성인지 남에 대한 비방과 험담에는 묘한 쾌감마저 느껴진다. 새천년의 진정한 시작인 올 새해 벽두부터 특히 정치권은 아는 것이 악담밖에 없는 듯이 살벌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말에는 정말 어떤 장식도 계산도 없다. 말이란 으레 상징이니 비유니 함축이니 하는 번잡한 장치가 있기 마련인데, 새해맞이 인사말은 엊그제 내린 폭설의 속살처럼 순백의 상태이다. 그런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면 기분이 싱그럽다. 일년 내내 지니고 싶은 평정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 남을 해하는 것보다는 기쁨을 나누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네 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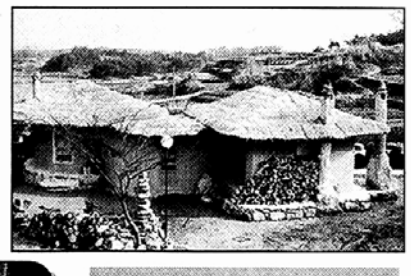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는 바다처럼, 덕담의 바다가 출렁거리는 세상, 새해의 모습은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끔은 겸양과 해학을 갖춘 농담이 주책없이 끼어 들어도 좋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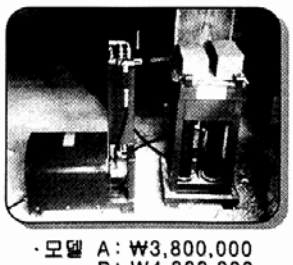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는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부지런히 복을 쌓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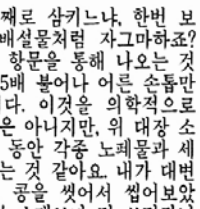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괴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쳐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8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엣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한 약재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약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공급하게 되었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하여 피로를 제거한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016) 222-7701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청강 대 진 합장

사·부·대·중

스님과 자전거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나무가 우거진 한적한 길을 비구니 스님이 따스한 햇살 아래 걸어간다. 그 뒤로 저만치서 수녀님이 자전거를 타고 스님 곁을 지나가다 다시 되돌아온다. 그리고는 둘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다.

어느 인터넷회사의 광고 내용이다. 판문점의 상황을 묘사하였던 이 회사는 이전 광고를 통해 남북의 벽을 없앤다는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종교간의 벽을 허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만약 이 광고 내용의 상황을 바꾸면 어떨까? 산길을 수녀님이 지나가는데 그 곁을 비구니 스님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내용으로 말이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딘가 어색하다고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스님과 자전거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나는 이 광고 한 편에 일반인들이 스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기독교와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 자전거로 대표되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이용하는 기독교와, 21세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보라는 원시적인 수단만을 사용하는 불교가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스님 곁을 지나친 수녀님은 넓은 아량을 발휘하여 뒤처진 스님을 태워줄 수 있었다. 이런 삐딱한 시각으로 보아서 그런지 광고 의도는 종교간의 벽을 허무는 것일지 몰라도 실질적인 메시지는 힘 있는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불교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읽히는 것이다.

신년을 맞아 교계의 한 신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을 조사하였는데 성철스님, 서옹스님, 원효스님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4위가 도법스님이라는 사실이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만 생각한다면 1위인 셈이다. 이런 결과는 도법스님이 광고의 수녀님처럼 '자전거'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되는 광고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목탁소리

'불일회보'와 '봉은'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조계종 제 21교구본사 송광사 사보인 〈불일회보〉가 지난 12월호로 기약 없는 휴간에 들어갔다. 12월호가 통권 240호니 꼬박 20년동안 발행된 셈이다. 사보(寺報)의 '원조(元祖)'라는 말이 새삼 되새겨져 휴간소식이 안타깝기만 하다. 휴간의 큰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불일회보〉는 매달 회비로 들어오는 것은 100만원 미만이라 본사로부터 600만원을 지원 받는데 송광사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말사 주지회의에서 결국 〈불일회보〉의 휴간을 결정했다고 한다.

서울의 3대 사찰중 하나인 강남 봉은사도 지난해 8월부터 사보 〈봉은〉지의 발행을 중단하고 있다.

조계종 본사 24곳과 여타 대형 사찰 가운데 제대로 된 사보를 내는 곳이 얼마나 될까. 사보는 돈은 계속 들어가지만 겉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효과가 없으니 일부 스님들의 경우 "괜히 그런데 '낭비'하지 말고 복지같은 다른데 써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보는 포교자료가 되거나 불교입문서가 될 수 있다. 사찰 관람객들 중 사보에 게재된 법문이나 좋은 칼럼을 보고 불교에 호감을 가질 수 있다. 또 사보는 사찰의 행사·역사를 정리 기록하는 사적기 역할도 한다.

해인사에서 내는 〈해인〉지는 일반인(특히 지식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어떤 신도들은 불교교양대학에 다닌다거나 불서를 사 보는 등 의도적으로 공부하겠지만 대부분 한달에 한 두번 절에 와 법문 듣고 기도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들에게 사보는 훌륭한, 문화전달자 교육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전도 쉽게 풀어주고 불교계 소식도 알려주며, 사찰내 문화재 등에도 눈을 뜨게 해준다. 또 잡지형태의 사보는 한달내내 두고 두고 읽을 수도 있고 남에게 주어 돌려가며 읽을 수도 있다.

사찰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 포교를 서둘러 해야할 판에 기존에 발행하던 사보마저 중단하니 답답하다. 사보가 문서포교와 신도교육의 첨병자라는 인식과 '꼭 해야 한다'는 사명감만 있다면 (계속 발행하는)방법은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불교체험 프로 '多多益善'

우리나라도 구랍 8일자로 외래관광객 500만명 시대가 열렸다. 연간 500만명의 외래관광객 유치는 아시아에서는 중국 홍콩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은 7번째. 이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자유화와 남북한 관광협력 등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적인 육성과 지원의지가 배경이 되었다.

올해는 정부가 지정한 '한국방문의 해'와 '지역문화의 해'. 더구나 2002년은 관광특수가 예상되는 월드컵의 해다.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찰에 어느때보다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 질 전망이다.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절호의 기회인 이 때, 불교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점검해 본다.

'한국 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불교문화 홍보 '절호기회'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서울 관광 30선' 설문조사에서 연등축제는 14위, 강남 봉은사는 26위에 올랐다.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교계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만큼, 불교 전통행사를 개발·보존해 불교 알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범패공연이나 사찰음식 및 다도 시연, 육법공양, 선무도·참선 실수 등 불교만이 가진 독특한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 한다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한국 관광자원의 대부분이 불교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소개책자나 리플렛, 가이드의 배치, 시청각 홍보물 제작 등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각 사찰의 도로 표지판이 누락된 곳이 많고, 문화재 영문 안내판 역시 전문용어가 남발돼 내용 전달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외국인 대상 100대 관광거리'에 불교관련 소재는 경주 불국사 및 석굴암, 양산 통도사, 수원 용주사 및 범종, 여주 목아불교박물관, 대구 갓바위와 동화사, 청도 운문사, 부산 전통사찰음식 및 선체험 등 8건만이 포함됐다.

외국인을 위한 불교관광상품 역시 미비한 상태이지만, 몇 개 사찰을 중심으로 불교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 또는 준비중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88올림픽 때부터 외국인을 위한 영산재 공연을 벌여 온 서울 봉원사는 정부 지원 없이 무상으로 공연을 펼치다보니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다. 봉원사는 18일 국제관광사업부를 설치하고 정부에 관광개발자금 지원을 요청키로 하는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다도실수, 참선, 사찰예절 교육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국제포교사를 배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점차 시티투어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98년 국제포교부를 신설, 외국인 포교에 나선 통도사 부산포교원은 매달 20~30명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지공예, 사찰 문화유적 답사, 참선, 차발기행 등 문화행사를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또 국제선원을 갖춘 서울 화계사는 외국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해인사는 경남도의 협조아래 외국인 대상의 수련회를 올 여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예불·좌선·사경과 큰스님 법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는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5월 수원 올림픽구장 주변에 준공 예정이었던 수원 봉녕사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늦어져, 내달중에나 착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불교관광상품은 개별 사찰별로 개발중이어서 인적, 재정적 한계와 홍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종단차원에서 한국 방문의해 조직위원회, 한국관광공사, 200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불교문화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재 조계종 등 종단차원의 준비상황은 미약한 상황이다. 그나마 조계종 포교원과 봉축위원회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다.

포교원은 외국인 사찰안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6월경 국제포교사 및 관광가이드와 함께 연수회를 준비하고 있다. 포교원은 3년간 지속해 온 관광가이드 연수로는 국내 가이드 3만여명 전원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원봉사자 조직을 구성해 사찰안내에 투입할 방침이다.

봉축위원회는 연등축제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가꿔간다는 계획아래 어느 해보다 알찬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한국방문의 해'를 남발하고 구체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정부도 문제지만, 풍부한 전통 문화유산을 홍보하지 못하는 불교계는 더욱 낭패다. 다양한 홍보전략과 사찰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의 개발, 관광프로그램의 연계 등을 조정해 줄 임시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단협의회는 문화관광부 후원으로 지난해 11월 우리 문화를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로 '외국인 수행자및 선교사 한국전통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조계사 다도·참선 등 시범실시
봉원사 영산재 활성화 노력
해인사 외국인 대상 여름수련회

'주악비천도' 캐릭터 만든 완주 송광사 지원스님

"불교상품 개발도 포교죠"





"문화재는 그 자체로 존귀할 뿐 아니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손쉽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정부는 알맹이 없는 '구호성' 관광진흥책은 자제하고, 문화유산을 전승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북 완주 송광사 주지 지원스님은 지난해 대웅전 천정화인 주악비천도(奏樂飛天圖·사진)를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귀여운 월드컵 캐릭터로 재현해내 화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한 다포, 배지, 부채, 방석, 엽서 등 70종의 깜찍한 팬시용품을 개발해 신도들과 관광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99년 5월 이런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구상하고 작업에 몰두하면서 재정·인력난으로 고행아닌 고행을 했다는 지원스님은 정부와 종단이 무관심에서 벗어나 세심한 문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이 고안한 주악비천도 캐릭터는 2002년 전주에서 열리는 월드컵과 2001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맞춰 개발한 문화상품이다. 아직 대한축구협회로부터는 공식적인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정몽준 회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문화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변의 반응이 좋다 보니, 스님은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전에 전국 5개 도시에서 주악비천도에서 재현된 탱화와 캐릭터, 팬시용품은 물론 복식 재현(패션쇼), 춤사위 재현 등 순회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미술에 대한 깊은 안목을 갖추고 보물 4점과 지방문화재 6점을 발굴, 문화재청에 등록하는 성과를 내기도 한 스님은 사찰문화재 발굴과 성보가꾸기가 후손들을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2001학년도 무불선학대학원 2기 신입생 모집

선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를 지향하는 무불선학대학원에서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 선의 원리를 실용화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불교의 선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2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2월 1일~ 2월 24일

모집 내용
- 주간반 00명, 야간반 00명,
- 통신반 00명(비디오TAPE수강)
- 인터넷 수강가능 (Homepage : http://www.moobool.com)

전형 및 구비서류
- 서류전형(전형료 2만원)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통
-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자 격
- 기존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및 동등한 불교 교리 숙지자
- 선학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희망하는 자

합격자 발표
2001년 2월 26일~ 28일(개별통지)

개강 및 강의시간
- 3월 5일(총 15주) · 매주 월·화요일

등록금(학기당)
- 주·야간반 : 47만원, 통신반: 55만원(분납가능)
- 과목별 수강: 과목당 20만원(통신 23만원)

개설강좌

과목명	강사	요일 및 시간
선어록 강독	홍선스님(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주간/14:40~16:10(화)
		야간/18:50~20:20(화)
선과 서양철학	심재룡(서울대 철학과)	주간/14:40~16:10(월)
		야간/20:30~22:00(화)
한국선사상사	최병헌(서울대 사학과)	주간/13:00~14:30(화)
		야간/18:50~20:20(월)

※ 학과목 및 강사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학식
- 2001년 3월 3일 토요일
- 오후 2시 본원 법당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5 삼윤빌딩 8층(135-010)
전화: 541-0002~3
팩스: 541-0004
Homepage : http://www.moobool.com
E-mail : moobool@netsgo.com

덕숭총림 수덕사 부설
무불선원·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 불 선 학 대 학 원

2001학년도 제10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출강 통신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의 정의와 역할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여 정의와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하연의 정법을 섭수정법하고 수순법지하는 대승보살로서 여법히 불교의례에 따라 법사법위를 품수받은 불교의 진자(眞子)임을 말합니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 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 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대법사과정
2. 교육방법 : ① 출강반 ② 통신반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 (본 대학 양식)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불교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2001년 1월 2일 ~ 2월 26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종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승만경 ⑤

청정한 자성이 곧 여래장

범부도 여래장 개발하면 부처 이룬다

〈승만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그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경전이다. 그 핵심은 여래장이다.

◇법신장(法身章)

여래장(如來藏)이 충분히 개발된 것이 곧 부처님이요, 번뇌장(煩惱障)에 얽힌 여래장이 곧 법신(法身)이라고 이 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공의은복진실장(空義隱覆眞實章)

이 장에서는 여래의 지혜를 밝히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거룩한 본성을 충분히 개발하여 참으로 의의(意義)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려는 대자비심으로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세속의 생활을 떠나 수행하는 것을 불법의 본의(本義)인 양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실한 가르침이 행해지는 것을 도리어 방해하는 것이다.

◇일제장(一諦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그 수가 한량이 없이 많다. 요컨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견(正見)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견이란 부처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모든 범부들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고, 지금은 범부지만 수행을 쌓아나가면 나중에는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 정견을 주는 것이 부처님의 여러 가지의 설법의 귀착점(歸着点)이 되는 것이기에 이것을 일제(一諦)라고 하는 것이다.

◇일의장(一依章)

여기에서는 사성제(四聖諦)를 설하고 있는데 사성제 중에서도 멸(滅)의 일제(一諦)만이 항상하는 것이고, 귀의의 대상이 된다고 설하고 있다. 사성제란 고제(苦諦) · 집제(集諦) · 멸제(滅諦) · 도제(道諦)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멸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멸(滅)이란 모든 차별을 완전히 없앤 평등의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의지할 최고의 가르침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의(一依)라고 하는 것이다.

◇전도진실장(顚倒眞實章)

우리들의 잘못된 견해와 진실한 견해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장으로, 전도(顚倒)란 범부의 소견이고 진실(眞實)이란 불 · 보살의 소견인데, 이것의 다른 점은 여래장(如來藏)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는 것이다.

◇자성청정장(自性淸淨章)

이 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래장(如來藏)에 대해서 피력하는데, 자성청정(自性淸淨)이란 곧 여래장(如來藏)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성품이 청정하다. 그러나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혹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하고 청정한 자성을 남김 없이 발전시키는 사람은 곧 부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여래진자장(如來眞子章)

스스로 밝힌 지혜의 등불에 의지하여 믿는 자가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임을 밝히면서 승만부인은 다시 세 가지 선남자 선여인을 들어,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는 이러한 사람이라 하고, 다시 사법(邪法)을 배우는 자로 하여금 그 삿된 생각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하시어 "그 마땅함을 얻었다"고 하셨다. 이상이 정종분(正宗分)이다.

유통분(流通分)에 들어가서는 먼저 승만부인이 부처님을 하직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남편 우칭왕(友稱王)과 함께 대승의 가르침을 펴기에 힘쓴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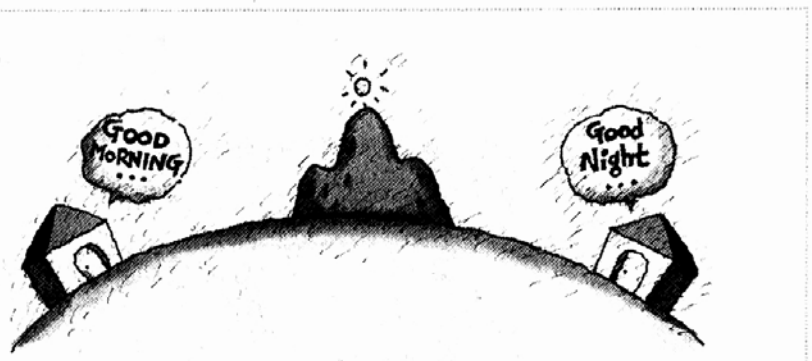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지는해 반대쪽서 보면 솟는해

불교와 과학 〈15〉

밀가루 반죽

집에서 밀가루 음식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갖고 아이들과 같이 반죽놀이를 하곤 한다. 아이들 엄마는 일하는 데 방해만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예 놀이용 반죽을 떼어 주고 만다. 우선 반죽을 잘 하려면 채대기를 잘 해야 하는데, 손으로 대충 반죽 덩어리를 누른 다음에 그 반죽 덩어리를 다시 중간쯤에서 한 번 겹치게(주름지게) 휙 접어 버린다. 그리고 다시 밀기도 하지만 대개는 두세 번을 계속 접어 두툼해진 것을 또 얇게 눌러 펼치다가 또다시 꺾어서(주름잡아) 접어 버린다.

깨반죽을 하기도 하는데, 그 반죽 덩어리에 깨를 넣어 다시 계속 접고 밀어서 펼치고 다시 꺾고(주름잡고) 접는 일을 반복하면 나중에 깨가 온 반죽에 어떤 때는 골고루, 어떤 때는 뒤죽박죽 퍼져 있게 된다. 접혀 꺾여지는(주름지는) 부분도 일정치 않아서 깨가 어디로 분산될 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게 된다. 처음 깨를 쏟았을 때 반죽 밀기를 한 쪽 방향으로 펼치기만 한다면 깨의 분포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반죽을 소위 단순한 반죽 밀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꺾는 작업을 하는 순간에 이 반죽은 깨의 분포를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반죽이 되어 버린다. 복잡한 반죽은 아무리 반죽의 과정을 거꾸로 해도 원래 상태의 깨 분포 상태를 회복시킬 수 없다. 이런 상태의 반죽이 바로 복잡화된(complicated) 반죽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복잡성(complex)의 어원도 원래는 'con plicare'로서 '서로 겹쳐 접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반죽된 밀가루는 우리 자연의 모습을 은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연은 원이나 삼각형과 사각형처럼 일정한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것보다 기하학의 틀 안으로 고정시킬 수 없는 다양성의 모습들 천지이다. 우리의 자연은 접혀지고 다시 접혀져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렇게 복잡하게 접혀진 자연의 속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다시 펼치려고 한다면 원래의 자연의 모습은 간데 없고 틀 속에 가두어진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게 되고 만다. 그나마 펼칠 수 있는 자연의 부분들은 자연의 가장자리일 뿐이다. 자연의 그러한 가장자리를 보고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과학법칙이라고 말한다.

자연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과학법칙은 자연계의 8~10% 정도만을 기호화한 결과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카오스 이론가는 1%도 안 된다고 한다. 인간이 그 주름을 편다 해도 맨 끝부분만을 겨우 펼 수가 있어서, 그 끝부분을 갖고서 인간의 기호를 붙이고 인간의 의미를 갖다댈 뿐이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자연의 저 안 쪽 부분을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자연이 접혀지면서 자연의 운동원리 자체가 구겨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이 접혀지면서 자연의 인과율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자연의 인과율을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접혀 온 자연의 끝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파국론(catastrophe theory)이라는 과학이론이 있다. 인과의 끈에 의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자연의 현상에 대하여 그 과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마지막 현상만을 보고서, 처음과 끝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두고 파국현상이라고 말한다. 자연이 접히면서 자연의 현상은 인간의 알량한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자연의 접혀짐 때문에 우리는 연속적인 자연의 인과현상을 마치 급격하게 혹은 불연속적으로 혹은 우연적인 비인과율로 보기 쉽다.

해가 저무는 황혼의 저녁은 여기서 볼 때 황혼이지만 서쪽으로 가면 아직 타오르는 붉은 태양이 있는 한낮이다. 황혼을 보고 조금 후에는 어두운 밤으로 점입되어 저녁을 끝이라고 하지만 더 먼 저기 서쪽에서는 처음일 수 있다. 저녁은 연속적인 해의 운동과정이지만 여기서 볼 때 저녁은 급변되어진 끝이라고 볼뿐이다. 그러나 저기 서쪽에서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파국은 아니다. 그래서 저녁과 한낮은 서로 다른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한낮과 저녁은 주름잡혀 접혀진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모르는 태양 운동의 두 가지 면일 뿐이다.

굳이 불교의 연기를 말하지 않더라도 겉에 드러난 현상에 매이지 않고, 접힘의 안 쪽을 잘 모르더라도, 그 속의 깊음이 있다는 정도만이라도 인정하는, 그런 인연의 상상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 학 겉에 드러난 자연 8~10%만 파악

불 교 보이지 않지만 인연의 고리 복잡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한국 참선 인기 높은 대·소승불교 공존사찰

지구촌 불교 / 美 명상원

티베트, 일본, 대만, 스리랑카, 캄보디아, 한국불교 등 다양한 전통 속에서 공부한 스님과 법사들이 활동하는 미국. 이 곳에서 남방과 북방의 불교가 공존하는 사찰이 미국인 불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사찰은 지난 91년 스리랑카 다르마 랑카라 스님에 의해 로스앤젤레스의 선랜드(Sunland) 지역에 세워진 '불교 명상원(Buddhist Meditation Center)'이다. 명상원이 개원했을 당시에는 상좌부 불교만이 있었는데, 이 곳에 한국 불교와 인연 있는 스리랑카 스님인 혜월 스님이 오면서 한국 불교의 전통 역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명상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다르마 랑카라 스님은 아시아 지역을 자주 방문하는 관계로, 이 곳의 운영은 자연스럽게 혜월 스님을 비롯해 3명의 남방불교계 스님들이 맡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명상원의 대중방과 법당의 모습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법당에는 개원 당시 봉안했던 상좌부 계통의 불상이 있지만, 불단의 모습이나 그 뒤편에 걸린 불화의 모습은 한국 사찰의 법당을 떠올릴 만큼 변모했다.



◇미국 LA 선랜드 지역에 개원된 '불교 명상원'에서 참선하는 미국인 불자들.

의사 ·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많이 찾아

위빠사나 · 참선 · 서예 · 다도교실 개설

또한 명상원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위빠사나'와 같은 프로그램 외에도 '참선', '붓글씨', '다도' 등을 선보여, 이 곳을 찾는 미국인 불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다양한 종파의 불교가 들어와 있는 미국이지만, 남방과 북방불교의 수행과 교리가 공존하는 명상원의 모습은 한번쯤 찾고 싶은 '이색 사찰'이 된 것이다.

여기에 힘입어 명상원의 법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과 스리랑카 불자들의 수는 평균 30~5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이중 혜월 스님의 참선실수가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와 같은 대중의 관심은 선랜드 지역 TV인 '25CH'에서 명상원을 생활과 수행을 방송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25CH는 방송에서 부처님 시대의 수행법의 원형을 그대로 지키는 한편 선(禪)과 같은 북방불교의 수행에도 관심을 보이는 스님과 불자들을 담아내, 선랜드 지역의 불심을 자극했다.

명상원에서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밀러(Miller) 씨는 "이 곳의 분위기는 우리들에게 아시아 불교 나아가 그곳의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선랜드 지역에서 불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다.

83년 송광사 국제선원을 찾으며, 한국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은 혜월 스님은 현재 '불교 명상원'에서 한국의 전통 승복을 입은 채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1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8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성철(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 최봉수(동국대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 (100명) 주간반 (50명) 통신반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12월 15일~ 2001년 1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2001년 2월 3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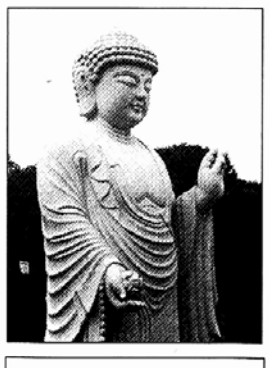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7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http : //www.dongsanbud.org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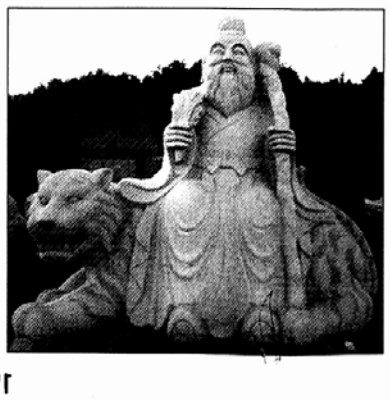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동국대 대각전. 법당으로 오르는 계단은 수미산 입구를 상징하는 일주문으로, 법당에 올라서면 깨달음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한다.

절짓기 溫故知新

담양 정토사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

고양 문사수법회 법당

동국대 대각전

기와 · 목재 기둥 없다

그러나 禪의 공간이다



◇모든 벽이 창과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담양 정토사 법당. 문을 열면 인위와 자연의 구분은 없어지고 법당은 자연과 하나가 된다.

현대사찰 건축의 美學 '자연과 인간 합일'

사찰은 속세에 차려진 정토(淨土)다. 대웅전이나 극락전이 화려하고 장엄한 것도 지상에 베풀어진 극락정토이기 때문이다. 예토에서 만나는 정토. 사찰은 중생의 몸으로 부처를 꿈꾸는 공간이다.

'절은 사람이 짓지만 그 절은 사람의 정신을 만든다'. 절은 단순히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벽을 세우고 지붕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 건축은 아니다. 사찰이나 법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법당은 저 혼자 설법을 하고, 절이 자연 속에 있는 것인지 절 속에 자연이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지극한 공간. 여기에는 오직 선(禪)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연과의 합일, 인간과의 합일을 꿈꾸는 공간.

대학 캠퍼스같은 외양

담양 정토사,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 고양 문사수법회 법당, 동국대 대각전. 이들 사찰과 법당은 불교 전통건축양식의 '반란자(?)'다. 그 흔한 기와도 아름드리 목재 기둥도 없다. 법당인지 선방인지 요사채인지 구분도 없다. 문과 벽을 통한 안팎의 경계 역시 관념일 뿐이다.

현대적 양식의 불교건축 흐름이 몇 해 전부터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파격' 차원이 아니다. 소위 '현대적 사찰건축물'로 분류되기도 하는 이들 사찰과 법당은 불교정신보다 편리함만을 좇는 콘크리트 구조의 사찰건축물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스스로 인간과 화합하고 선법(善法)을 설하며 예경(禮敬)을 받는 건축. 이곳에는 비어있되 일체를 담을 수 있는 선의 경지가 표현돼 있다. 그렇다고 실용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공간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쾌적함과 기능성에서도 말 그대로 가히 현대적이다.

지난해 완공된 담양 정토사는 외양만 본다면 대학캠퍼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사찰임을 눈치채기 힘들다. 1층 법당에 들어서면 방사형태의 문에 뒷산의 실루엣이 액자처럼 걸린다. 문이되 벽이면서 자연을 받아들이는 스크린이다. 문을 열어 젖히면 건축물은 사라지고 자연과 법당은 하나가 된다. 2층 선방은 측면에서 보면 뒷산의 그림자와 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양립할 수 없는 그림자와 빛이 이곳 선방에서는 절대 유(有)의 세계로 펼쳐진다.

복도 끝 막돌면 법당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이일훈 作) 역시 최근 콘크리트 구조에 스플릿블럭으로 외부를 마감한 현대식 양식으로 지어졌다. 더욱 독특한 것은 공양 · 모임 · 종무 · 전시 · 집회 · 참선 등이 모두 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도 각각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과 분리의 개념이 복합돼 설계됐다는 점이다. 문에는 문짝이 없어 열고 닫음의 구별이 없게 해 선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고양 문사수법당에 들어서면 법당은 보이지 않는다. 복도를 따라가다 만나는 선녀 벽화는 보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 선녀들이 사라지기도 한다. 복도 끝을 막 돌면 나타나는 법당은 북도인지 법당인지 경계가 없다. 부처님이 모셔져 있기에 법당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 법당 한쪽 문을 열어 젖히면 그 순간 법당은 사라지고 지극히 평범한 공간만이 남는다. 부처님의 세계와 속세가 한 곳에서 만난다. 50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인 공간배치로 사용자들은 그 몇 배의 여유를 느낀다. 물론 건축 소재도 단청문양의 종이, 나왕, 합판 등 가장 저렴한 것들이다.

동국대 대각전은 전통을 차용하지 않으면서 전통을 느끼게 하고 있다. 법당에 오르는 계단은 마치 꽃비가 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음을 일깨운다.

스스로를 '선 건축가'라고 말하는 김개천씨의 도건축 소장는 "시 · 공을 초월하고 그 초월조차 초월한 침묵이 바로 선의 세계며, 사찰과 법당은 그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건축은 분명 그 시대의 철학과 문화를 담는다. 그리고 그 가치는 독창성에서 나온다. 완벽한 건축이 최적의 구조를 갖춘 합리의 극치인 유위법의 기술이라면, 사찰건축은 더 채우지도, 비우지도 않는 자연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무위법의 디자인이다. 공간이 부처가 되는 예절과 침묵의 공간. 여기에서 불법과 나는 하나가 된다.

효율적 공간배치 '눈길'

무조건 현대식 건축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전통 모방으로 과연 오늘날의 불교정신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느냐는 분명 화두거리다. 현대화는 단순히 외양의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의 불교문화를 표현하고 그것이 미래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 바로 이것이 현대화이자 미래의 전통이 되는 것이다.

불교건축의 진정한 가치는 불교적 가치와 동일할 때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것은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이 이뤄하지 못한 또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대식 사찰(법당)건축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禪건축가 김개천씨

"한국 고건축 본질은 禪"



"부파불교에서 소승, 대승, 선불교 등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듯이 사찰 건축도 변하고 발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담양 정토사, 고양 문사수법당, 동국대 대각전을 설계한 '선 건축가' 김개천씨(44, 법명 석천 · 이도건축 소장)는 사찰 건축의 현대화에 대한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서 선(禪)을 추구한다.

"한국 고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禪)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선이 한국건축의 본질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 건축을 하자고 마음먹었죠.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相)이 없는 세계를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수묵화, 선화, 선시처럼 무(無)마저 초월한 건축이, 김씨가 꿈꾸는 정토다. 선 건축을 시작한 지 벌써 12년째. 그는 선을 모든 여건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라 생각한다. 그래서 시작한 바도, 끝도 없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넘어선 합일(合一)의 건축을 추구한다.

"문화적 힘이 없는 종교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경전이나 설법만이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문화의 창조도 불법을 유지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김씨는 창조 못지않게 전통문화의 유지와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심사찰은 현대화가 필요하지만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찰은 다음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최저한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안성 도피안사 향적당의 선방이 자리잡고 있는 활공루(活功樓 - 건물 오른쪽 끝). 설모를 최대회해 외형적으로는 투박한 느낌마저 주지만 선방 밑으로 다람쥐가 오고가는 누각의 개념을 살리고, 내부적으로는 출입구에서 선방에 이르기까지 좁고 긴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는 효과까지 고려했다.



◇고양 문사수법회 법당. 불상과 꽃 이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아 군더더기가 없다. 법회를 보고 참선을 하기에도 적당하다. 하지만 법당 문을 열면 바로 세상이 그대로 보이게 설계해 지극한 것과 평범한 것이 통한다는 깨우침을 준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 · 식 · 기 · 행



곶감죽

기침 · 설사 멎게…구토에도 효과

금강산에서부터 걷기 시작한 고암 스님(1899~1988)이 울진 후포에 이르러 날이 어두워지자 하루 저녁 재워줄 만한 집을 찾고 있었다. "주인 계시오? 지나가는 객승인데…, 하룻밤만 이슬을 피하겠소."

떨어져나갈 듯한 방문이 열리면서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누구냐고 묻는다. 산발한 여인 옆에는 너댓살 됨직한 아이가 며칠째 씻지 못한 얼굴로 눈만 반짝이고 있었다.

"스님, 누추하지만 주무실 만하면 주무시고 아니면 다른 집으로 가시구려." 젊은 여자는 퉁퉁 부은 얼굴로, 힘없이 말했다. 방은 사람이 사용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엇보다 허기가 극에 달한 데다 발의 염증과 함께 온몸이 열이 나서 땀이 비 오듯 했다. 밤이 얼마나 깊었을까. 옆방으로부터 들려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계속되는 비명소리는 마치 숨이 막혀 죽는 것 같았다. 부인의 고통스런 신음소리를 듣고도 방문을 열 수 없었다. 점점 비명소리가 커지자 더는 안되겠다 싶어 열어보니, 부인은 아이를 분만하다 역산으로 기절해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배를 당기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생각나 등 뒤에서 산모의 배를 당기니, 아이가 빠져나왔다.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끓여 칼을 소독하고 탯줄을 끊었다. 그 후 따뜻한 물로 태아를 목욕시키자 아이가 울음을 터트렸다.

미역 꼬다리를 찾아 부엌을 다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장독대를 열어보니 보리쌀 한 줌과 하얀 분이 겹게 된 지난 겨울의 곶감이 있었다. 산모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고개를 내저었지만 곶감죽이 향기롭게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한 수저 들기 시작했다. 고암 스님이 산모에게 먹인 곶감죽은, 진해나 지혈작용에 도움을 준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곶감 20g, 현미찹쌀 100g

요리법 ① 불린 현미찹쌀을 솥에 넣고 적당량의 물을 부어 센 불에서 팔팔 끓인 다음, 약한 불로 서서히 달인다.

② 죽이 거의 되면 곶감을 알게 넣어 골고루 섞은 다음, 다시 한두 차례 더 끓인다.

효능 ① 마른 기침이나, 설사를 멎게 하고, 객혈, 혈뇨, 치질로 인한 혈변, 구토 증 등에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⑰

且如法集別行錄云 始自發心 / 차여법집별행록운 시자발심 / 乃至成佛 唯寂唯知 不變不斷 / 내지성불 유적유지 불변부단 / 但隨地位 名義稍殊 謂約了悟時 / 단수지위 명의초수 위약료오시 / 名爲理智 約發心修時 名爲止觀 / 명위이지 약발심수시 명위지관 / 約任運成行 名爲定慧 約煩惱都盡 / 약임운성시 명위정혜 약번뇌도진 / 功行圓滿成佛之時 名爲菩提涅槃 / 공행원만성불지시 명위보리열반 / 當知始自發心 乃至畢竟 唯寂唯知 / 당지시자발심 내지필경 유적유지 / 據此錄之旨則雖今時凡夫 / 거차록지지즉수금시범부 / 能廻光返照 善知方便 均調香散 / 능회광반조 선지방편 균조혼산 / 惺惺寂寂之心 該因徹果 不變不斷 / 성성적적지심 해인철과 불변부단 / 역제지위 비지점원 성취중생 / 而始終 不移一時一念一法一行也 / 이시종 불이일시일념일법일행야

또 〈법집별행록〉에는 '처음 발심해서 성불에 이르기까지 오직 고요하고 아는 것[知], 그것은 변하거나 끊어지지 않고 단지 그 지위를 따라 이름이 다소 다르다. 만약 밝게 깨달았을 때는 이(理:고요함)와 지(智:아는 것)라 하고, 발심해서 수행할 때는 지(止:반연을 쉬어 고요함에 합하는 것)와 관(觀:마음을 보아 앎에 합하는 것)이라 하고, 제대로 연마하여 행을 이룰 때에는 정(定:선정, 즉 고요함에 듦)과 혜(慧:선정에 의해 분별없는 앎이 생김)라 하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고 공을 쌓는 수행이 원만하여 성불할 때에는 보리(菩提:깨달음, 즉 안다는 것)와 열반(涅槃:번뇌의 사라짐, 즉 고요함을 말함)이라 한다. 그러므로 발심해서 최후까지 오직 고요하고 안다' 하였다. 이 〈별행록〉의 뜻에 의하면 지금은 비록 범부일지라도 빛을 돌이켜 마음을 비춰보고, 방편을 잘 알아 혼미함과 산란함을 잘 조절하면 깨어있되 고요한 마음이 인과(因果)를 두루 포함하여 변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지만 단지 공부가 익었는가 덜 익었는가, 밝은가 어두운가에 따라 다를 뿐이다.

若圓照自心 眞常性德 動靜雙融 / 약원조자심 진상성덕 동정쌍융 / 證會法界則便知諸地功德 塵數法門 / 증회법계즉편지제지공덕 진수법문 / 九世十世 不離於當念 以心 / 구세십세 불리어당념 이심 / 性量妙自在 含容萬種法 / 성영묘자재 함용만종성 / 萬法未嘗離自性 如轉如不轉 / 만법미상이자성 여전여부전 / 性相體用 隨緣不變 同時無碍 / 성상체용 수연불변 동시무애 / 初無今古凡 / 초무금고범 / 聖善惡取捨之心 而不妨功用漸增 / 성선악취사지심 이불방공용점증 / 歷諸地位 悲智漸圓 成就衆生

변함없는 성품 법계 증득해 알면 삼세가 한생각서 떠나지 않는다

但生熟明昧 隨功異耳 / 단생숙명매 수공이이

또 만일 자기 마음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성품이, 움직임과 고요함이 서로 융화됨을 비추어 법계를 증득해서 알면 모든 지위의 공덕과 한없는 법문과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생각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음의 성품은 신령하고 자재로우며 온갖 법을 포용하고 있다. 그 온갖 법은 각자 자기 성품을 떠난 적이 없어,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 본성(本性)과 현상, 본체와 작용, 인연을 따라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이 동시에 서로 걸림이 없으므로 거기에는 애초부터 옛날과 지금, 범부와 성인, 선과 악,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리하여 공을 차츰 많이 쌓고 보살의 여러 지위를 거치는 동안 자비와 지혜가 점점 뚜렷해져서 중생을 구제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한 때도, 한 생각도, 한 법도, 한 행도 변함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한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가까이서 뵌 큰스님

서암스님

봉화 무위정사 주석

"만족모르면 세상살이 칼날밟기"



◇무위정사에서 모든걸 '놓고' 사시는 서암스님.

스님 머무는 무위정사 조립식 가건물 최소한의 생활용품뿐

아찔한 높이의 무소유 그리고 무위의 삶. 가까이서 뵌 서암 큰스님의 하루하루는 그랬다. 그렇다고 범인은 다가서지도 못할 경지에서 '할' 과 '방' 을 휘두르지도 않으셨다.

소백산과 태백산 사이에 솟은 선달산 자락에 자리잡은 무위정사(無爲精舍). 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곳. 그곳을 오르는 길은 새하얀 눈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저잣거리로 향한 발자국이 없었다. 하지만 결 고운 비질로 열어 놓은 눈길은, 산으로 드는 이의 발걸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이 눈길에 산골은 뭐 하러 오셨어. 늙은 노인네한테 무슨 좋은 말 들을 게 있다고. 번잡한 얘기 할 것 없이 조용한 곳에 왔으니까 그냥 며칠 푹 쉬었다 가."

미처 격을 갖추어 인사도 여쭙기 전에 객을 맞는 큰스님의 첫 말씀이다. 순간,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은 따스함으로 채워진다. 이미 주객의 경계는 흔적조차 없다. 그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수 여든 여덟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꼿꼿하셨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뵙자니 주눅부터 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수록 괜한 오기가 발동한다. 당돌해지기로 작정을 하고 대뜸 이렇게 여쭈었다.

"평생 수행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공부가 가장 잘 되셨던 곳은 어느 도량이었습니까?"

"난 항상 못난 중이었어. 공부가 잘 된 적도 없었고. 그렇게 알면 돼."

처음부터 시치미를 떼신다.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일. 어리광을 부리듯 다시 여쭈어 본다.

"그래도 환희심을 느끼신 적은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거야 여러 번 있었지."

"그 얘기 좀 들려 주십시오."

"그까짓 얘기야 다 쓸데없는 소리지. 앞으로 우리가 무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뼈있는 얘기를 해야지 지나간 발자취 들여다보면 뭘해."

갈수록 아득해진다. 하지만 내친 걸음. 변죽을 울리면 복판이 우는 법. 숫제 떼를 쓰듯이, 미련한 곰처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그래도 후학들에겐 아주 요긴한 말씀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스님께서는 쉽게 일러주지 않으신다.

"나는 자랑할 만한 것, 일러줄 만한 그런 게 없어. 못난 중이거든. 물론 깜냥대로는 공부에 진취가 있고, 불교를 다 안 것 같고 한 때가 있었지. 하지만 돌이켜볼수록 남들한테 큰소리칠 자신이 없어."

말씀이 이쯤 되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여쭤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솔직히, 야속함마저 든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 난감한 상황을 침묵에 맡기는 수밖에는.

제법 긴 침묵의 시간을 흘려 보냈다. 그러다 문득 스님께서 말씀을 이으신다. 마치 남의 얘기하시듯.

"도봉산 망월사에서 한 생각 돌이켰지. 불교의 깊이를 좀 느꼈어. 그리고 또 저 계룡산의 나한 토굴이라는 바위굴에서 애를 좀 썼지.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한 달을 보내기도 하며 삼동을 났어. 그 때도 허송세월하지는 않았지. 이런 얘기도 다 부질없어. 평생 절에 살면서 늙어간 사람이 큰 절 작은 절 안 가본 데가 있었겠어. 지금은 우르르 떼지어 놀러들 다니는 금강산의 마하연, 유점사, 장안사 신계사는 물론이고 백두산 근처까지도 두루 돌았지. 철원의 심원사에서는 1년 이상 강사 노릇도 했고. 참 오래 전의 일이야. 광복 전의 일이니까. 지금 그런 얘기한다는 것도 우스워."

꿈결에서나 이런 얘기를 들을까 싶어, 좀더 스님의 얘깃자락에 매달려 본다.

"광복 후에는 어디서 공부 하셨는지요."

"계룡산에서 내려온 다음이었어. 그때 처음으로 해인사에 총림을 열었는데 효봉 스님을 방장으로 모시고 정진을 했지. 한 100명 이상이 모였었는데, 당시 쟁쟁한 스님들은 다 있었지. 동산, 청담, 경봉, 설봉 스님을 비롯하여 다들 도인이셨지. 그러다 6 · 25가 나서 뿔뿔이 흩어졌고."

이 말씀 끝에 기자의 속물 근성이 슬며시 고개를 든다.

"그때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스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가까이? 이 사람아, 그건 재가에서나 하는 얘기지 스님네들끼리 가깝고 멀고가 어디 있어. 모두들 한솥밥 먹고 지내는 데다 가깝지. 다만 수행하는 힘이 장한 스님들한테는 존경이 갈 뿐이야."

이러한 스님의 면모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이 없다. 잠시 여기서, 무위정사에서 머물며 출가의 결심을 굳힌 한 행자에게서 귀동냥한 얘기를 그대로 옮겨 본다.

"큰스님 곁에서 6개월 동안 머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두시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별 네 개를 단 장군이건 금뱃지를 단 국회의원이건, 지나가던 사람이든 시골 아낙네든, 조금도 차별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아주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찾아오는 사람은 그냥 내치시는 법이 없어요. 잠깐이라도 말씀 나누시고는 잠자리나 먹을 것도 똑같이 나누시지요."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도 스님의 단순 소박한 삶은 몸으로 전해져 왔다. 건물이라야 공사장 같은데서 인부들이 머무는 조립식 건물이었고, 먹고 자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었다. 이런 삶을 일러 '무위(無爲)' 라고 하던가. 그러나 그 경지는 나같은 얼치기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과 같은 주제넘은 질문에 돌아오는 스님의 말씀.

"그야말로 걸림 없는 삶이시네요."

"걸리긴 왜 안 걸려. 주리면 먹어 줘야 하고 졸리면 자야지. 목숨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몸뚱아리 해 달라 것도 들어 줘야지."

얼굴이 화끈해 오는 순간이었다. 온갖 것에 매달리고 이것저것 다 탐하면서 함부로 '무소유' 가 어떻다는 둥 겁없이 떠들며 자신을 속여온 내 자신의 실체가 알몸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四柱命理學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專門家用)神示出刊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전문가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難解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펼쳐 보기만하면 순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해 놓았음은 물론, 四柱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관이나 사찰이나 무속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을 때, 즉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시간만 보아

●무슨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들어다만 보면 알 수 있도록 摘示해 놓아, 미리 그 情況을 지적하므로써 來人의 顔色과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而上學人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들로는

- 약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잉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치료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말해줄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來人의 사정을 採出해 놓아, 만나거나 전화한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居所를 떠나 부재중 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來意 및 事情을 미리 날짜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경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에사로운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靈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등 活人專門人의 개인 주문만 받고 있습니다.

■ 책 값 : ₩250,000원
■ 책 질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
(흑색 가죽덮게표지 · 금박 · 950페이지 · 미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길 나 려
■ 배 달 : 입금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택배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190-49호 일심빌딩 303호

도서출판 卜 問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북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전문인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될 명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책, 휴대용에 대해서는 이 책 9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을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흐,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鼓卜子 曉史선생님과 연결하여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 뵙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여겨 지시면, 방문 또는 출장을 요청하십시오. 본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방문받거나 출장하여 活人요령을 도와드리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윤림

한글판도 나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6시까지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좋은날을 택하셔서 본책을 더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四柱推命學情解書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정산 김성진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 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인간(人間)은 누구나 다 행복을 追求한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신의 운명(運命)을 알고 그 運命에 대하여 대처(對處) 한다면 흉화(兇禍)의 액(厄)을 면(免)하고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바뀌지 않겠는가 .

전국 서점 판매중!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땅기운이 흡수된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대도 김동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새천년 새꿈
「신비의 꿈해몽 그 베일을 벗긴다」
화제의 신간
꿈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꿈해몽 비법과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꿈에 관한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여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이해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 책의 구성 〈꿈이란 무엇인가(길몽 흉몽)〉 〈태몽, 그 출생의 비밀〉 〈꿈풀이 삶풀이〉
■ 부록 〈결혼 부부궁합〉

정현우 박사 지음/신국판 /값 17,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A5신/양장본
값 40,000원

지금 절실이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 김용식 저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전호일 공저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섭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哲學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哲學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양장본 이상욱 지음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원계관
신국판/양장본 진상백 저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김윤중 편저/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양장본 김성진 저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해몽 꿈풀이 삶풀이 대백과
신국판/ 정현우 저 /정가 17,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서암스님은

조계종 9대종정 역임
청빈 일관 무소유 실천



우연히 산에 올랐다가 문득 스님이 되고픈 소년이 있었다. "스님, 저도 절에서 살고 싶어요." "중노릇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다." 그래도 소년은 끊질기게 스님에게 매달렸고 드디어 허락을 받는다. 3년 동안 절에서 머슴살이하는 조건으로. 이리하여 서암 스님은 불가와 인연을 맺는다.

1914년 경북 영주에서 나신 서암 스님은, 1935년 예천 서악사에서 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8·15광복 전에는 금강산 일대의 제방을 두루거쳤고, 철원의 심원사에서는 강사 소임을 맡기도 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봉암사 조실을 거쳐 조계종 제9대 종정을 지냈다.

이미 바닥을 다 드러보인 다음이라 이제는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 저것 여쭈어 본다.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게 조실이나 종정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좋으시겠습니다."

"좋고 나쁠 게 어디 있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달라질 게 없어. 똥지게를 지든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하든 사람의 본바탕은 달라질 게 없어요."

스님은 천상 스님이셨다. 지나온 자취에 미련 두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도 연연해하지 않는 영원한 오늘을 사는 분. 속 깊이 흐르는 장강처럼, 가고 옴에 걸림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다.

그 흔한 글귀 하나 걸어놓지 않은 무위정사의 출입문 안쪽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하루에 예닐곱번 다니는 버스 시간표가 적혀 있다. 가끔씩 나들이를 하실 때 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이다. 이곳저곳에서 청해오는 법문 요청도 대부분 거절하시지만 가끔씩은 법문도 하신다. 특히 군부대에까지 가셔서 손주뻘의 젊은 불자들한테도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신다. 심지어는 미 육군사관학교의 졸업식에 강연 요청을 받으시고는 노구를 이끌고 미국 땅을 밟으시기도 했다. 다음은 그때 행하신 법문의 일부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이 '한 물건'. 무어라 명(名)과 상(相)을 붙일 수 없으되 만유가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현현(顯現)으로 존귀한 인간 생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한 물건'을 가리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하였습니다.

이 존엄한 생명을 가벼이 여김으로써 인류에 많은 불행과 재난을 초래하였고, 세계는 투쟁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중략)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평화와 행복보다는 불행과 투쟁에 의한 재앙으로 영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인류 사회는 천문, 지리, 물리, 화학, 철학, 종교 등 인간 지혜가 쌓아올린 혜택으로 날로 각성을 더하여 인류의 본래면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 본연의 근본 주체를 등지고, 밖으로 어떤 신이나 주재자를 머리 속으로 지어내어 맹목적으로 따르며,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데서 큰 폐단과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동체대비의 생명존중과 인류애를 배워서,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평화를 구축하는 정신계몽과 정화활동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략)"

1997년 5월 미 육사 졸업식에서 장차 미국의 고급 장교가 될 젊은이들에게 들려준 법문이다. 그런데 과연 유일신 사상에 젖어있는 미국인들이 스님께서 전해준 '한 소식'을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천상천하유아독존! 모두가 다 부처라는 이 혁명적 선언을 그들은 알아들었을까? 이런 의문도 사실은 부질없다. 알든 모르든 진리에는 변함이 없고, 스님께서 전한 자비의 메시지 또한 알아 듣고 못 듣고와는 관계없이 인간 삶의 바탕이므로. 다만 그것을 빨리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스님께서는 아직도 정정하셨다.

"무슨 건강 비결 같은 건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어. 비결없음이 비결이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가고 옴이 본래 없는데."

스님께서는 제자들조차 자주 들르지 못하게 하신다. 평생을 절집에 사셨지만 많은 상좌를 두지도 않으셨고, 몇 안 되는 상좌들도 대부분 선방이나 토굴에서 정진을 하므로 아주 가끔씩 얼굴을 마주할 뿐이다. 시봉을 자청한 젊은 제자들도 6개월씩 번갈아 가며 스님과 살다가 선방으로 든다.

번잡을 멀리하는 스님의 성품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언젠가 스님을 따르던 재가 신도들의 일부가 '서암회'라는 걸 조직했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노하시고는 그 핵심 인사를 호되게 꾸짖으시고 모임을 해체시켰다 한다.

이렇듯 스님은 모든 걸 훌훌 털고 사신다. 하지만 조계종의 종정을 지내셨던 분 답게, 오늘의 한국불교에 대한 기대와 염려 또한 크셨다.

"이제 더 이상 종단에 분란이 있어서는 안돼. 이 시대의 중생들이 '안심입명(安心立命)' 할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이 돼야지.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모르면 세상살이가 칼날 밟기와 같아져.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게 불교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구제는커녕 자기 구제도 못해."

스님 말씀처럼 며칠 푹 쉬었다 가고 싶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하룻밤을 지낸 다음날 아침 하직 인사를 여쭈자 스님께서는 화들짝 놀라는 시늉을 하시며 한 말씀을 건네신다.

"아니 벌써 가려고? 서울로? 서울이 그렇게 좋아? 그럼 나도 거기 좀 데려다 줘."

스님의 농담은 달랐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법문이 아닌가.

문밖을 나서는데 스님께서 슬며시 무언가를 건네신다. 붓을 놓은 지 오래되셨다는데 언제 쓰셨을까?

'자비무적(慈悲無敵)!'

독자들과 나눌 선물로 이보다 더 좋을 게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는, 밤새 새로이 내린 눈이 어제의 발자국을 지워버린 산길을 되짚는다. 한참을 내려서서 뒤돌아보니 그때까지도 스님께서는 눈밭에 서 계셨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글·사진 윤제학 부장 (yunjh@buddhapia.com)



◇절집이라는 울타리마저 넘어선 수행자에겐 앉고 선 곳이 곧 청정도량이다.

"생명 가벼이여겨 불행과 재난 초래 인류 갈등으로 신음"

"똥지게를 지든 금 치장을 하든 사람의 본바탕은 달라질게 없어요"



◇서암스님의 설법에 감응한 미국 LA시민들이 전한 LA명예 시민증.



◇현대불교 독자들을 위해 쓰신 휘호. 자비로운 사람에겐 적이 없다는 가르침이다.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정안스님



사찰이든 가정집이든 그 집 안 주인의 안목과 분위기에 따라 가구의 배치, 소품의 배치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텅 빈 방안에 경상(經床)과 가사 한 벌이 걸려 있는 공간도 말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운치지만 오밀 조밀 찾는 사람의 눈길을 순간 순간 포착할 수 있는 운치가 있다면 이 또한 즐거운 일이다. 정안스님이 사는 도량이 그러하다. 고전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그런 도량이다. 만약에 정안스님이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실내 디자이너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한번은 백양사에 있는 조그마한 암자에서 3년 동안 두문불출 지장기도를 하고 있다는 정안 스님을 찾아간 적이 있다. 그때 스님은 사분 정근을 하면서, 기도 틈틈이 붓글씨를 써서 암자를 찾는 신도들에게 나누어주며 포교를 하고 있었다. 일단 그곳을 참배 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돌려 보내지 않는다는 스님의 원력에 따라 빛깔고운 낙엽을 모아 코팅을 하여 책갈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 경전말씀을 코팅하여 누구라도 가져 갈 수 있게끔 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날 무렵 또 찾아갔을 때는 관공서를 찾아 다니면서 문화재 보수비를 얻어내어 전통도량에 어긋나지도 않으면서 정안스님의 성격과 분위기에 걸맞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을 보았다. 신

재주많고 말보다 행동으로
승가대 꽃꽂이동아리 주도

도도 없는 산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나의 말에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부처님이 만들어 주신 일이고 나는 그저 심부름을 한 것뿐인데 뭘... 나는 그래도 전통사찰인 본사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비라도 타서 불사할 엄두를 내지만 정운 스님이야 말로 불모지인 그곳에서 포교하는 일이 대단해요."

스님과 나는 승가대학 동창이지만 정안스님은 운문사 강원의 대 선배이기도 하다.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스님과는 달리 기숙사 한방에서 오래 같이 생활을 했고 또 함께 소임을 살았다. 당시 승가대학 비구니기숙사의 살림은 턱없이 가난했고 학생소임자가 살림을 운영해야만 했다. 정안스님은 기숙사 원주소임, 나는 비구니회장 소임으로 얼마간 함께 살림을 꾸려 나갔는데 어느날 기숙사에 작은 재 하나가 들어왔다. 돈의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둘은 얼마나 기뻤는지모른다. 작은 돈이지만 이 돈으로 스님들에게 오랜만에 별식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재물(齋物)도 마련하고 공양거리도 마련할 겸 함께 시장에 나갔다. 원주소임으로서는 당연히 재물을 먼저 사고 대중공양거리를 사야 하는데 정안스님은 대중들에게 뭘 좀 먹여 볼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는 생각에 재물 살 돈까지 몽땅 공양거리로 장만하여 돌아와 대중들에게 포식을 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재물 마련할 돈이 없어 여기저기 탁발을 하여 재를 지내 준 적이 있다. 그날 대중들은 정안스님의 이런 마음을 아무도 헤아리지 못하고 오래간만에 그냥 포식을 했다.

지금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에게 주어진 꽃꽂이 수업도 정안스님이 만들어 낸 원력의 산물이다. 스님은 운동도 좋아하고 노래도 잘하는 등 다양한 재주와 취미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 문화의 혜택이 주어졌을 때 뭔가 배워서 졸업후 그 뜻을 펴 보겠다는 스님의 원력에 따라 틈틈이 꽃꽂이를 배우다 보니 꽃꽂이가 불교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일본에서는 최고의 꽃꽂이 사범이 스님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꽃꽂이 동아리를 만들어 스님들에게 보급해 각 사찰에 돌아가서 정성어린 손길로 창작을 해 부처님전에 꽃을 올린다면 사찰을 찾는 신도들에게도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는 길이 아니냐는 정안스님의 제안이 좋아 학교에 건의하여 그때부터 '향원'이라는 꽃꽂이동아리가 결성되었다. 학교축제 때는 작품전까지 열었다. 정안스님은 꽃꽂이



사범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스님은 재주가 많지만 거기에 빠져 안주하지 않는 것이 정안스님만이 가지는 장점인지도 모른다. 학교 졸업후 은사스님이 계시는 본사로 돌아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연고도 없는 전라도 땅으로 내려가 허물어져 가는 암자를 몇년동안 힘겹게 복원했다. 이제 좀 편하게 지내는가 했더니 어느 날 주지자리를 상좌에게 물려주었다는 소식이 들리고는 끝이었다. 대구 어느 토굴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다. 3년기도를 마치고 지금은 오대산 지장암에 들어가 대중을 외호하는 소임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최근 접했다.

스님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북적인다. 그 많은 사람들 모두에게 변함없이 대하며 말 보다는 행동으로 포근히 감싸는 스님, 다양한 재주를 가졌지만 그 재주를 내보이지 않고 안으로 영글어 가는 정안스님이 갑자기 보고싶다.

이 겨울, 서해에서 나는 맛있는 김 사들고 오대산에 다녀오고 싶다. 그리고 힘있어 보이는 정안스님의 눈빛을 만나고 싶다.

▩ 세원사 주지

설산스님 에세이
알몸
덧없는 인생을 가치있게 살아가는 백련사 설산스님의 구도에세이
청어와삐삐 02-586-0477
가격 7800원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한해 개발적인 영기천도 능력 전수가 가능함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원장 윤정주 저서
진여(眞如) 氣 수련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르는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같은 책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쳐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후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자녀와 함께 문화나들이

박물관서 만나는 불교

몇십 년만의 한파 속에 겨울방학도 거의 끝나간다. 부모나 자녀 모두 이번 방학에 무얼 했던가 생각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추위에 떠는 번거로움을 피하면서 현장학습도 할 수 있는 박물관 구경은 어떨까.

특히 불교문화재 중에는 팔만대장경이나 석굴암 등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문화재들이 많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 불교문화에 대한 안목도 키울 수 있는 특색있는 박물관과 기획전을 찾아보자.

불교유물 6천여점 전시

▲목아불교박물관

독조각장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관장이 오랫동안 수집해 온 소장품과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다. 여러 형태의 불상에서부터 스님들의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관련된 6천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 〈묘법연화경〉 등 보물로 지정된 3권의 경전, 현대적 감각을 살린 야외 조각 공원의 불상 등이 눈길을 끈다. 전시관 한 쪽에서는 불상 제작과정을 담은 비디오도 볼어 준다. (031)885-9952~4

고인쇄 · 전적자료 집합

▲경북대 박물관 고인쇄유물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과 같은 활자로 찍은 자비도량참법집해를 비롯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고인쇄 및 전적자료 150여 점을 한 자리에 모았다. 특히 대장경 관련 유물이 많다. 고려시대에 간행된 '합부금광명경'은 본문 옆에 구결이 달려 있어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을 더듬어 볼 수 있고,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펴낸 '반야바라밀다경소'도 인수대비의 발문이 적혀 있어 관람객의 발길을 붙든다. 경북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월 20일까지 열린다. (053)950-6536

인쇄물 발달과정 재현

▲청주 고인쇄박물관

충북 청주시 옛 흥덕사 터에 자리잡았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고려 1377)을 찍어낸 사찰. 절터 발굴시 나온 고려시대 유물과 고서화, 고서적 등 6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작년 6월 증축하면서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상실도 갖췄다. 인쇄술의 발달 과정을 인형으로 재현해서 보여 주는데, 관객이 다가서면 밀랍인형들이 움직이며 말하는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다. (043)269-0556

석탑 · 석등 등 1만여점

▲용인 옛돌 박물관

경기도 용인에 문을 연 세중 돌박물관은 국내 최초의 돌 박물관이다. 윤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5천여 평의 공간에 한국불교와 돌, 생활 속의 돌, 민속신앙의 돌 등 10개 주제로 나눠 1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예배와 기원의 대상이 된 석탑 석불과 중생의 마음에 한줄기 빛을 비치고자 밝혀두었던 석등, 고승의 사리를 안장한 부도, 악귀를 제압하고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 등 불교유물과 옛 생활도구였던 구유, 연자방아, 맷돌, 다음이돌, 돌화덕 등도 볼 수 있다. (031)321-7001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인쇄술 발달 과정을 인형으로 재현해 보여준다

대방광불 화엄경주본

▲한솔 종이 박물관

종이로 만든 각종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종이 우산이나 종이 신, 바느질 그릇, 과자 담는 그릇에서 밀핫빛 장판, 병풍, 조족등, 배개 등 각종 세간살이에 종이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보 277호 대방광불 화엄경 주본과 겸재 정선이 그린 부채도 있다. 3월까지 열리는 '아시아의 종이 인형전'도 볼만하다. (063)210-8101~3 권형진 기자 (jnny@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앞산이 눈에 하얗게 멮여 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코끝이 찡하다. 한강도 꽁꽁 얼어붙었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추위라고 한다. 찬바람을 맞다 보니 문득 지난 가을 생각이 난다. 시내 서점에 들렀더니 드라마 '가을동화'가 소설이 되어 나와 있다. 책의 겉장에 쓰여있는 카피—너를 사랑하노라,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지라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세상 모든 사랑의 이름으로—를 읽으니,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났지만 언제나 밝고 명랑한 성격의 여주인공 '은서'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 순간 '은서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먼저, 작가가 처음 작품을 구상했을 때 머리 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촬영이 진행되면서 배우가 연기한 극중 인물이 생긴다. 한편 드라마가 끝난 후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또 다른 여주인공의 이미지가 있다. 셋은 한 인물을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르다. 작가가 구상한 인물은 개념만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배우의 연기를 통해 현실화되면, 시청자들은 그 배우와 작중 인물을 동일시하여 받아들인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더라도, 비련의 여주인공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시청자들 각자의 마음속에 상당 기간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드라마 속의 한 인물이 사실은 '표현하고 싶은, 표현된, 잔영으로 남은' 세 인물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부처님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떠올리게 한다.

소설 '가을동화'

은서는 누구인가 부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나라에는 삼신불(三身佛) 사상에 따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원만보신 노사나불의 삼존불을 모신 법당이 많다. 부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진리를 인격화한 법신(法身), 중생의 모습으로 출현한 화신(化身), 수행의 과보로써 이루어지는 보신(報身)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은서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은 '부처님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과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진리 자체인 법신은, 말하자면, 작가의 머리 속에 이상으로 존재하는 인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석가모니불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화신은 배우의 연기로 표현되는 극중 인물에 해당된다. 또한 지극한 바라밀의 수행과 서원이 완성되어 그 과보로써 이루어진 아미타불 같은 보신은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잡은 여주인공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드라마 속 인물과 부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최종적으로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나는 누구인가? 나 또한 법신, 화신, 보신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가? 부모미생전의 '나'가 법신이고, 지금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나'는 화신이며, 금생의 업의 결과로 내생에 다시 태어날 '나'가 보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를 객체화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하다보면, '송장에 끌려 다니는 신세'에서 벗어나 참나를 찾을 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문학평론가

5백회 맞는 BBS '거룩한 만남'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다

불교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이 2월 9일로 5백 회를 맞는다.

신체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눈물어린 사연들을 소개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거룩한 만남'(PD 한지윤)은 10년 동안 총 5백 세대에 25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보시행을 펼쳐왔다. 이런 선행이 인정돼 한국방송대상을 2회나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알콜 중독자인 남편 뒷바라지에 힘겨운 삶을 살다 그 충격으로 실명된 김현순씨(392회)는 이 프로그램의 후원으로 수술을 받아 광명을 되찾았다. 또 노점상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진영화씨(373회)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어 주기도 했다.

청취자들의 후원 열정도 대단했다. 5천 원, 1만 원 등 돈을 보내 주는 청취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갔다며 직접 방송국으로 쌀과 김장 김치를 들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었다.

2월 9일 오전 9시 5분부터 85분간 방송되는 5백 회 특집 공개방송은 김수환 추기경, 고건 서울시장 등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 축하메시지를 비롯해 그 동안 수혜자들의 사연 소개 등으로 꾸며진다.

한편 불교방송은 3일 오후 3시부터 정동이벤트홀에서 '거룩한 만남 5백 회 특집 행사 및 공개방송'을 마련한다. 김병조씨(방송인)와 도현 스님(거룩한 만남 진행자)이 사회를 맡은 이번 행사는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의 격려사, 사랑의 메시지 낭송, 영상 다큐멘터리 '거룩한 만남 어제와 오늘' 방영, 가수 김종환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중국에 김교각 스님 시비 건립

신라 왕자 출신으로 구화산을 중국불교 4대 성지 중 하나인 지장도량으로 일군 김교각 스님을 기리는 시비가 건립된다.

한국차문화협회(회장 이귀례)는 17일 "중국사람들 사이에 지금도 지장보살의 응현으로 추앙받고 있는 스님의 차(茶)를 통한 수행의 모습을 기리기 위한 다시비(茶詩碑)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비는 스님의 육신이 등신불로 모셔져 있는 중국 안후이(安徽)성 구화산 육신보전 앞에 세워지게 된다.

차문화협회 김해만 사무처장은 "구화산의 특산물인 금지차는 스님이 신라에서 차씨앗을 가져와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할 정도로 차를 사랑했던 분"이라 다시비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에 모셔진 김교각 스님의 형상.

새아침 그림 덕담

28일까지 가나아트센터 '세화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역 중견작가들이 새해를 맞아 각자의 바람을 그림에 담았다. '2001 희망찬 출발-세화전'이다.

28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세화를 주제로 한 전시다. 세화는 조선조 궁중에서 시작돼 민간에 널리 퍼진 생활미술의 한 형태로 다복, 평안, 장수 등의 의미를 담은 그림이다. 새해에 그림으로 덕담을 나누는 일종의 '덕담화'인 셈이다.

전통 고미술 분야에서 세화의 의미를 지닌 작품들과 함께 현역 중견 작가들이 새해를 맞아 각자의 바람과 덕담을 담은 현대미술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세화-고미술'에는 십장생도 병풍, 책거리 병풍, 까치호랑이 그림, 부적 등이 출품됐다. '세화-희망'은 이만익, 임옥상, 고명훈, 김호석, 박창돈 박항률 등 25명의 작가들이 현대적 시각으로 재조명한 세화를 내놨다. 작가마다 독자적인 작품세계와 양식에 새롭게 담아낸 세화의 의미를 느껴볼 수 있다. (02)3217-0233 권형진 기자



◇이왈종 作 '제주생활속에서 중도'(장지 위에 아크릴, 56.5×50.5cm)

삼표등록

미 수 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안전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주문시 전구간격
기존은 2주전 주문(33cm, 30cm, 25cm)
특수 규격은 3주전 주문하여 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011-9996-8872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 현재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저희 TG반도체 문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여 주십시오.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경북2, 서울 경기 2
◈ 본 미수타 반도체 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을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 외에 총 10건)

TG 반도체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청동불상 제작 전문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청동 불상, 천불, 삼천불, 만불, 개금, 탱화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주 · 야 상담합니다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1층)
성화불교전시관 · 성화불교미술원
전시관 : 02)2209-0080, 0081
공장 : 031)591-1022 핸드폰 : 011)302-1022



투철한 수행과 깨달음으로 꺼져 가는 선(禪)의 등불을 밝히고, 비승비속의 모습으로 북방고원에서 행각하다 입적한 경허(1846~1912) 스님의 존재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근대 한국불교사의 큰 화두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경허 스님의 발자취와 선의 세계를 조명한 경허 평전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민족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경허의 신화와 진실에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

선의 등불 살린 경허생애 바로보기

'삼수갑산으로 떠난 부처' 일지 스님 지음

〈임제록〉 등 여러 선서를 내놓으면서 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탄탄한 언어를 구축한 글쓴이 일지 스님은, '경허 선'을 큰 축으로 경허 스님이 걸었던 학문과 구도의 삶 그리고 깨침의 세계를 탐구한다. 글쓴이는 들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야심찬 집필의 변을 밝힌다. "경허 스님은 근대 한국불교사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 프로메테우스다. 이제 우리는 왜 그가 스스로 이단자라는 운명을 감수하고 저 북방고원의 방랑자로서 쓸쓸히 사라져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변호하고자 한다."

구한말 조선의 피폐된 한국불교의 선 수행과 정신을 되살려내고 선불교의 근대적 기원을 이룩한 경허 스님을 우리의 기억 속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보는 평전류들과는 달리 기존의 자료를 나열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밀도있는 분석을 가하며 경허 스님의 선 세계를 오늘에 되살려내고 있다.

이 책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경허 읽기'는 소문으로 전해져 오던 경허 스님의 생애와 깨달음을 사실적으로 복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주는 감동은 소설이 주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20대에 이미 뛰어난 학승으로 이름을 떨친 경허 스님이 환속한 스승 계허 스님을 만나러 가던 중, 천안 근처에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을 보고 문자 속에 진리가 있지 않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 필

머문 사찰·교유 인물 만나

학문·구도·깨침의 삶 탐구

사적인 수행을 통해 선승으로 거듭나는 과정, 선 불교를 중흥시켜 많은 제자를 길러낸 후 홀연히 저잣거리로 들어가 중생 교화에 전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적고 있는 부분이 특히 그렇다.

이 책은 경허 스님의 여러 출생설에 대해 논한 '고해의 연대기'를 비롯 경허 스님의 일대기를 연대순으로 따라간다. 경허 스님에 관한 자료와 사진 그리고 스님이 머물렀던 사찰과



선원을 답사하고 쓴 취재 수첩인 셈이다. 경허 시대의 대표적 재가수행자 박태평 거사, 경허의 선을 사숙하고 그의 유품을 보관하던 일본인 중촌건태랑이 쓴 편지, 월초화상의 깊은 교류에 얽힌 일화 등 자잘한 기록들도 풍성하다. 이 책은 경허의 선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경허의 마음이다. 글쓴이가 이 평전을 쓰기 위해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로 나눠 '경허, 그는 누구인가'를 깊이있게 탐구한 것도 그 이유다.

표면적인 사실이나 소문 등에 대한 시비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진실을 읽어내지 못하고 명분론으로 만족하는 경허 연구자들에게 있어 이 책은, 반성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대승기신론(각성 스님 번역, 현음사)= 마명보살이 대승불법을 선양하기 위해 지은 〈대승요의경〉 1백여 부를 망라해 저술한 〈대승기신론〉 해설서. '대승기신론이란 무엇인가'를 비롯 대승의 개념부터 인연분·입의분·수행신심분 등 모두 5분으로 나뉘어 있다. 해인사, 통도사 등의 불교전문강원 강주로 여러 경론과 어록을 가르쳐 온 각성 스님이 번역한 이 책은, 명징한 해설이 덧붙여져 〈대승기신론〉의 참뜻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해준다. 값 4만5천원.



▲선(禪) 삶의 요리법(버나드 글라스먼·릭 필즈 공저, 박문희 옮김, 불일)= 이 책은 삶을 최고의 음식에 비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 이 책은, 글쓴이의 공양주 소임 경험, 즉 '공양주 원칙'을 토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인생의 여러 면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한다.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선(禪)이라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이다. 값 7천5백원.



▲중국 조선족의 아리랑(진용선 지음, 수문)= 정선아리랑 학교를 여는 등 국내 및 해외의 아리랑을 찾아다니는 진용선(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씨가 쓴 중국 아리랑 완결판. 중국 조선족의 이주 역사에서부터 아리랑의 시대구분, 아리랑의 갈래, 아리랑 고개, 아리랑의 창법과 장단, 여러 예술 장르로 나타난 아리랑 등을 통해 조선족에게 아리랑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값 9천원.



▲아름다운 세상(글 조평규, 그림 권대웅, 하나두나)=어린이 불자들의 슬기를 일깨워주는 불교 동시집. '늙지 않는 부처님' 등 이 책에 수록된 108편의 동시들은 사찰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시의 소재를 삼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새싹불자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다. 이것이 바로 어린이들이 동시를 통하여 부처님 곁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다. 비매품.



▲지나간 세월(진관 스님 지음, 장승)=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진관 스님의 시집.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 불교 통일운동가로현장에서 겪은 현실의 모순에 대한 절규가 녹아 있다. 국가보완법으로 사형당한 사형수들을 위하여 쓴 '3월을 머리에 이고' 등 118편을 통해 스님은 민족의식의 상실, 자연의 황폐화, 무질서, 이기주의, 허위의식 등을 신랄하게 꼬집는다. 값 6천원.

노인복지포교 나침반

'원력있는 곳에 가피…'



"종교에서 말하는 어짊과 사랑 그리고 자비는 인류보편적 생명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의 본질도 사랑과 존경의 생명존중이 시발점이며 종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의 사회화 운동'과 '노인 모시는 사회구현'을 주장하며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각현 스님이 노인복지 현장 경험을 담은 수상집 〈원력이 있는 곳에 가피가 따른다〉(연꽃마을)를 내놓았다.

'천 원의 위력', '복 짓는 사람들', '사람답게 사는 길' 등 모두 3부로 나뉘어 있는 이 책은,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노인 모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꽃마을의 노력,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등이 실려 있어 노인복지포교의 지침서로도 삼을 만하다.

한편 각현 스님은 불교 노인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 책 2천권을 노인복지를 원하는 스님 등에게 무상으로 보시하고 있다. (02-2203-3677).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1500년전 낙양선 무슨일들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불교가 번성했던 중국 북위의 수도 낙양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

신간 〈낙양가람기〉(양현지 지음, 서윤희 옮김, 눌와)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낙양의 사찰들을 둘러보고 쓴 기행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낙양의 사찰에 관한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사찰을 통해서 북위 역사 저변에 깔린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사서라 할 수 있다.



불교적 시각에서 볼 때 당시 낙양은 불교교류와 경전연구의 중심지였다. 북위는 육로를 통해 서역 스님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었다. 선무제는 외국 스님들을 위해 영명사를 건립했는데, 3천 여명이 찾아왔다고 한다.

또한 보리사, 법운사 등이 서역의 스님들에 의해 세워지는 등 당시 낙양에는 1,367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보리류지가 20여 년 동안 39부 127권의 경전을 번역할 정도로 많은 경론들이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과 경전연구는 중국불교가 인도 불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열어가기 시작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사찰을 중심으로 낙양에서 40년 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이 책은, 모두 5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기행은 낙양성 안쪽에서 시작해 성동, 성남, 성서, 성북으로 이어진다. 각 부문은 지역의 대표적인 절의 명칭, 세운 사람, 위치, 부근의 건물과 풍경, 절에 대한 설명, 그 절과 관련된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 설화 등의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특히 성북편 '문의리'에는 송운과 혜생의 〈서역기〉가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당시의 서역 가는 길과 서역의 풍습, 부처님이 남긴 유적과 그에 얽힌 사연들도 알 수 있게 해준다.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에 이르는 북위 불교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낙양가람기〉는 〈제민요술〉, 〈수경주〉와 함께 북위시대 3대 명저로 꼽히고 있는 책으로 우리말로 처음 번역됐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문자 초월한 혜능선 조명



조사선

김진무 옮김

조사선(祖師禪)은 여래선(如來禪)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선종의 가장 높은 경지로 여겨지던 선학사상체계다. 넓은 의미에서 여래선은 여래(부처님)가 전한 선과 경전에서 전한 선을 가리키고, 조사선은 선종의 모든 조사들이 전한 선을 가리킨다. 즉 인도불교의 선적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을 여래선, 중국화된 선을 조사선이라 한다.

그렇다면 여래선과 조사선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 도서출판 운주사가 선학총서 다섯 번째 권으로 출간된 〈조사선〉(김진무 옮김)은 그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분석한다. 그 첫째가 여래선이 점수적인데 비해 조사선은 돈오적이라는 것이다. 여래선은 언설과 학리, 사변을 중요시하지만, 조사선은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직지인심(直指人心)을 강조한다. 이 밖에도 이 책은 심성론, 수행의 측면, 생활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설명한다.

조사선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책은 혜능의 선법을 바탕으로 조사선의 개념부터 발전과정, 여래선과의 차이, 조사선의 형성과 수행론 등에 대하여 깊이있게 조명한다. 또 글쓴이 동휘(중국 동남대학) 교수는 달마·혜가·승찬·도신·홍인 등 혜능 이전 조사들 선법의 핵심내용, 홍인으로부터 신수를 통해 분화된 신수의 여래선법의 특징, 혜능 조사선의 성립과정 등도 고찰한다. 값 1만6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절을 가차게 잘하는 법	청 견	붓다의 마을
2	산사에서 부치는 편지	명 정	좋 은 날
3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변 상 섭	컬처라인
4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5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6	마음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7	천수경 천수신앙	혜 국	효 림
8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9	무심-나는 진아다	대 성	탐 구 사
10	참회 참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새해,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

신간

월간 『법공양』에 절찬리 연재되었던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기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6판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는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살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학술진흥재단 98년부터 학술지 발간 지원 사업

교계 학술단체 '등재후보' 신청 안하나 못하나



◇불교계 주요 학술지. 이중에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학술지 등재 후보'로 지정된 학술지는 없다.

국내 최대의 학술 지원단체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 98년부터 '학술지 등재 후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교 관련 학회는 늑장 대응을 하고 있어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교계 학술지는 〈불교학보〉, 〈한국불교학〉, 〈가산불교〉, 〈인도철학〉, 〈백련불교논집〉 등 26종인데 반해, '학술지 등재 후보'로 지정된 교계 학술지는 전무하다. 지난 3년간 진흥재단은 360여 종의 학술지를 '등재 후보'로 지정했다.

'학술지 등재 후보' 사업은 학술지에 대한 질 평가와 연구자의 학술연구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진흥재단의 판단에 따라 시행됐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학맥과 친분에 따라 논문을 싣거나 검증되지 않는 초청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지 발간의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적잖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사업에 대해 학계는 "투명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학술지의 질을 높이고 학자의 연구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반응이다. 학계는 지난 3년 간 700여 종의 학술지를 '등재 후보'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등재 여부에 따라, 진흥재단으로부터 300만~400만 원의 발간비를 지원 받고, 학술지에 우수 논문을 싣는 길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계 26종의 학술지 가운데 진흥재단의 '학술지 등재 후보'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단순히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이 3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불교학회가 지난해 〈한국불교학〉을 진흥재단의 등재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일은 우려를 넘어 충격으로 다가서기에 충분하다.

현재 보조사상연구원, 성철사상연구원 등 수 곳에서 '등재 후보'에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진흥재단의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 등재 여부를 낙관할 수도 없다.

'학술지 등록 후보'를 지정하는 평가는 '논문 게재율', '논문 D/B 운영', '가독권역의 국제성' 등 12개 항목의 개관적 평가와 '논문의 질 및 독창성', '학술지의 전문성' 등 9개 항목의 주관적 평가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불교학계 관련자들은 "등재 후보에서 제외되면, 동국대 관련 학자 이외에 우수한 학자의 글이 교계 학술지에 실리기 힘들 것"에서부터 "불교 관련 학회의 미래가 달렸다는 인식"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관련 학회나 연구 단체에서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등재 후보'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결국 진흥재단에 학술지를 등재하는 문제는, 학회나 연구 단체는 물론 학자의 연구업적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학회의 운영 및 관리 · 회원 모집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불교학계에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학술기행 中 산동반도의 한국불교

고려상인 유숙지 기념비 세워

판교진의 고려정관

해주스님 〈동국대 교수〉



산동성 일대의 불교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하여 조영록 교수를 단장으로 한 우리 중국불적답사단 일행은 12월 23일, 서울에서 비행기로 약 한시간 반만에 청도 공항에 도착하여 이튿날 교주(膠州)로 갔다. 그 다음 날(12월 25일) '교주시 중한 경제문화교류 세미나'와 중한 경제문화 유적지 기념비인 '고려정관(高麗亭館)' 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비 제막 김준엽 교수 발의

교주는 판교진이라 불렸는데 북송시기부터 대외통상무역항으로서 해상운수와 대외무역이 발달한 곳이었다. 최치원이 거쳐가기도 했다는 이곳 판교진에 고려정관이 설립되어 있어서 고려사신들이 묵었으며, 대각국사 의천(義天)도 개성(지금의 풍덕)에서 송나라 상선을 타고 이곳 판교진(밀주의 관할 지역)으로 들어와 머물렀다. 교주시에서는 교주시와 한국간의 우의와 교류를 더욱 더 깊게 하고자 바로 그 고려정관의 유적지에 기념비를 세우기로 하고 우리 일행의 답사일에 맞추어 비 제막식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고려정관기념비' 제막식 후 촬영한 기념사진.

고려정관 비 제막식은 교주시 이호시장과 한국영사관 금병묵 총영사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처음 발의한 것은 전 고대 총장 김준엽 박사에 의해서이다. 김 박사가 교주의 불교학자 정문광 선생과 함께 지난 5월에 공동으로 현지실사를 마치고 고려정관의 유적지가 지금 교주시의 운서하북측 성의교동측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후 교주시 국제상회가 청도대학 한중문화연구중심 주임 박영희 박사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시정부에 보고를 드려 지금의 유적지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고려정관이 세워진 판교진은 〈교주시지 대사기〉에 의하면 "620년(당 무덕3년)에 고밀현을 설립하고 623년 (무덕 6년)에 교서현을 없애 고밀현에 병입시켜 판교진을 설립하였다.(지금의 교주 승리교 서북쪽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 자리에 세워진 고려정관 비는 앞면에는 한중경제문화교류 유적지에 교주시 연합정부가 고려정관을 세운다는 내용의 비명이 있고, 뒷면에는 다음과 같이 한글로 새겨져 있다.

"북송시기 중국으로 항해하여 와서 교주(구 밀주 관교진)에 상륙한 외국상인들 중에는 고려 (서기 918~1392)의 상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들이 장사를 하면서 유숙하고 모였던 장소를 고려정관이라고 한다. 당시 교주와 고려간 경제 문화교류는 아주 빈번하였다. 판교진은 통상항구로서 중국 조정은 이곳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대외무역 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원풍 8년(1085년)에는 고려왕조 문종(왕휘)의 4남 의천대사(대각국사, 1055~1101)가 불법을 구하고자 고려의 개성에서 바다를 건너 중국에 와서 판교진 부두로 상륙하여 잠시 머문 후 변경(지금의 개봉)으로 갔다. 그 후 의천대사는 1086년 6월까지 14개월 동안 송나라 조정의 보호 하에 각지의 고승을 방문하여 양국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한 · 중 교류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2000년 12월 비를 세움."

의천대사 불법 구해 입송

대각국사 의천이 밀주 판교진에 도착한 것은 1085년 5월 갑오일이었다. 고려의 정주(지금의 풍덕)에서 4월 초파일날 송나라 상선을 타고 떠난 지 약 한달 후였다. 의천은 밀주에 도착하자 입송한 뜻을 담은 서신을 밀주지사와 송나라 조정에 올려 도움을 청했다. 송 황제는 고려왕의 아들이 유학은 데 대해 크게 기뻐하고 안내인을 보내고 양걸을 곁에 두어 의천의 구법행을 돕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원법사를 비롯하여 승려 도속 50여 인을 만나 법담을 나누었다. 의천은 많은 장소를 구하여 일찍부터 뜻해왔던 속장경 간행을 도모할 수 있었고, 천태종을 개창하여 한국에 천태 교학이 꽃피게 하였다. 그 내용이 고려정관의 비에 담겨있는 것이다.

"문화재 관리행정 형식적"

최성락 교수 "시 · 군 문화재 담당요원 태부족"



문화 유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확충 등 행정기관과 학계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성락(목포대 고고인류학 · 사진) 교수는 최근 펴낸 〈고대 유적 보존 및 활용 방안〉(무돌 출판사)을 통해 일반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 ·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특히 일선 시 · 군의 문화관광계에 문화재 담당요원이 배치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며, 읍 · 면 · 동 하부조직에서는 총무계에서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도 형편은 비슷하다. 시 · 도의 경우 2, 3명의 문화재 담당요원이 기념물을 포함한 유 · 무형 문화재의 조사에서부터 지정 · 관리 · 복원 · 방제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최 교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관리 업무 특성상 문화재 전문가를 전문위원이나 학예연구사 등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의 행정보조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문화재 정비와 보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문화재 복원과 정비는 문화재청 보수과에서 설계지침을 작성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문위원에 의해 간단한 조사가 진행된 뒤 외형과 규모 등이 조절되고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문화재 보수업체에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실제로는 정비, 복원을 위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일반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실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학계나 지역공동체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서산 마애삼존불 보호각 철거 '논란'



◇서산 마애삼존불.

충청남도가 최근 서산 마애삼존불 보호각에 대한 철거 의사를 밝혀 학계와 문화재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충청남도는 '백제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국보 제48호 서산 마애삼존불에 설치된 보호각이 자연광을 차단해 햇빛이 비추는 방향에 따라 달리 보이는 삼존불의 미소를 볼 수 없어 철거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청에 이를 묻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호각은 지난 62년 마애삼존불이 국보로 지정된 뒤 풍화작용 등에 의한 불상 훼손을 막기 위해 3평 크기로 지어졌다.

충청남도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위덕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박홍국 교수는 "서산 마애삼존불은 애초 채색 석불이었다"며 "채색이 벗겨진 지금, 자연광이건 인공조명이건 석불의 미소를 자세히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당시 채색 기법으로 원형을 복원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각이 철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백련불교논집' 10호 발간

성철선사상연구원은 〈백련불교논집〉 제1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중편조동오위〉 소고', '당송 선종어록의 언어 연구 현황과 과제' 등 연구비 지원 논문 7편과 '선종과 주자학의 계보학에 나타난 공부론의 경계', '수행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 등 백련아카데미 발표 논문 3편을 수록됐다. (02)744-1541

보조사상硏 월례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은 27일 2시 30분 법련사 불일문화회관에서 35차 월례발표회를 가진다. 이번 발표회는 '지눌의 돈오(頓悟)축과 이사(理事)축의 긴장과 탄력'을 주제로 한 고영섭(동국대 강사)의 논문 발표로 진행된다. 고 박사는 논문에서 선과 화엄의 관점에서 지눌 스님의 주요 전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02)733-5315

法華三部經講院

▶ 男 · 女 통신반 募集 ◀

1. 募集期間 ■ 전기 : 1월 5일 ~ 2월 15일 (기간엄수)
2. 募集課程 ■ 佛經漢字 한문 교육과
3. 入學資格 ■ 불교 최고의 경전을 연구 하고자 하는 자 ■ 불교 교육자로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4. 教育科目 ■ 무량의경 (漢文本) ■ 묘법연화경 (漢文本) ■ 관. 보현보살 행법경 (漢文本) ■ 특강을 통해 모든 경전 비교연구
5. 教育期間 ■ 3년(6학기) 통신반.출강반 동일
6.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 ■ 월1회 대구 강의실에서 특강
7. 卒業惠擇 ■ 수학증서 수여 ■ 교직자 자격증 수여(심사후) ■ 법화수행교육원 개원시 적극 지원(심사후) ■ 평생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심사후)



崔 光 永 책임교수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엽서로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우편번호:701-600)

法華三部經講院

053-952-8711 / 017-501-8711

제 1기 禪友募集

마음 길들이는 집,
마음 다스리는 곳.
위빠싸나 (如來禪) 전문 수행처.

근본불교 진흥원 여래선원
Buddhapia Meditation Center
서울 · 강남구 신사동 511-5 02)512-4422 Fax : 02)512-4406
대구 · 수성구 범어동 292-15 053)744-9009
미얀마 · Seikantha New-Dagon Yangon Myanmar

▷ 참고 저서 -
위빠싸나 33일 (우리출판사)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민족사)
빈손도 내려 놔라 (출판예정)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위를 맞춰야 할 제 3자는 없느니라
법과 자신만을 의지하여 쉼 없이 정진하라!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

■ 수행일정표

서울	예비기초반	매주 火, 木 - 오전 11:00~12:30
	일반수행반	매주 月, 水, 金 - 오전 10:30~12:30, 저녁 7:30~9:30
	토요정진반	매주 土 - 오후 5:00~9:00(경전 강설 1시간)
대구	일반수행반	매주 火, 木 - 저녁 7:00~9:30
	철야정진반	매월 셋째 토요일 - 저녁 8:00~익일 03:30

토요정진반에는 阿含經(원시경전의 계송집)과 金剛經을 강설 1시간에 이어 정진

■ 선원 오는 길
서울 센터 : 신사역 6번 출구 전방 120M에서 우측 40M 근
대구 센터 : 수성구청에서 남부 정류장 쪽으로 80M에서 우측 250M 근
미얀마 센터 : 양곤의 신도시의 뉴-다곤에 위치 (직접 문의)

오직 마음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선우들만을 위한 시민선방입니다.
우선 성내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보십시오!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어 마음을 길들이는 노력은 거룩한 작업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려는 선우들만 1월 말까지 모집합니다.
≪ 교재, 회비무료, 단, 천도제, 일반제사 사절 ≫

法山 붓다피야 合掌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男女	130,000
누비 (上,下)	男女	180,000
누비방한복 (上)	男女	130,000
누비조끼	男女	60,000
누비동방 (두루막)	男女	180,000
바랑		30,000

■ 유사품이니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행운의 벽조목
(인공이 아닌 천재로 벼락 맞은 대추나무)



옛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벼락맞은 대추나무는 가장 신기한 나무라고 전해내려 오고 있는 진품 벽조목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天下의 행운을 주는 보물 입니다.

사진에 소개된 진품 벽조목은 수百年 묵은 大木으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950年 7月 하순경 벼락 맞은 것을 지금까지 보관하던 귀중한 것입니다.

진품 벽조목은 평생 갖는 목거리, 열쇠고리, 도장, 낙관, 단주, 염주 등을 수제작하여 각종 질병, 사업, 경제난, 입시, 승진, 가정화합, 자녀갈등, 호신부 패물, 부적, 재앙, 액운, 성불, 소원성취를 염원하는 분에게 잡귀를 막고 행운을 준다고 국어사전, 백과사전에서도 행운의 벽조목이라 합니다.

오직 진품만이 인생을 바꾸는 그 효능을 발휘하는 행운의 벽조목은 항상 생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연 따라 주어집니다. ※ 구입하신 분은 점안을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홍 련 암 공덕하 법사
☎ 02)909-1360 · 011-9778-2803

동쪽 땅 해돋는 곳이 눈앞에 있지 않은가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⑰

(16) 드디어 동토(東土)에 도착하다

의식을 잃은 달마의 귓가에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렸다. 어느덧 달마의 숨결은 파도의 리듬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바다의 물결은 달의 인력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파도친다. 이것을 일컬어 우주의 리듬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우주의 리듬과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면 생명력이 샘솟는 법이다. 사람을 소우주(小宇宙)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달마는 몸을 움직여 보았다. 자신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도 발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으로 이곳저곳을 더듬어 보았다. 비로소 자기 몸이 나무판에 밧줄로 묶여 있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나무판이 바위 틈에 끼여 있어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순간 달마는 그가 살아날 수 있게 된 연유를 알 수 있었다. 만약 나무판이 바위에 단단히 끼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바다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천축을 떠나온 지 3년

달마의 얼굴은 그 순간 기쁨의 눈물로 얼룩졌다. 그의 가슴은 희망으로 고동쳤다. 밤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달마는 냉정을 되찾았다. 천축을 떠나온 지 3년이 되었는데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쯤일까? 만약 바다 깊은 곳이라면 암초가 있을 리 없을 텐데 나무판이 암초에 걸렸다면 뭍에서 멀지는 않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달마는 꿈에도 그리던 동녘 땅이 금시라도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달마는 우선 새우잠을 청했다. 날이 밝으면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동쪽 하늘이 밝아 왔다. 바위 위에 반사된 햇살이 달마의 얼굴을 비췄다. 고요한 파도 소리가 평화로움을 한껏 느끼게 했다.

"어제까지 그렇게 포악하던 바다가 이처럼 조용하고 온순할 수도 있다니."

달마는 입 속으로 뇌까렸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기지개를 폈다. 맑고 신선한 공기를 아랫배 깊숙이 들이마셨다. 바다의 찬 바람에 뼛속까지 시렸던 몸이 호흡과 함께 차츰 온기를 되찾았다.

달마는 벌떡 일어났다. 멀리 육지가 보였다. 동녘 땅 진단이 틀림없을 것 같았다.

"동토! 진단!"

달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위 위에서 껑충껑충 뛰었다. 그는 눈대중으로 육지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았다. 이삼십 리는 족히 될 것 같았다. 비록 비전(秘傳)의 경공(輕功)을 익힌 달마였지만 그런 거리를 날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육지까지 갈 일을 생각하니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궁하면 통한다고 했던가. 달마의 머리 속에 문득 몸을 묶었던 나무판과 밧줄이 떠올랐다. 그는 밧줄을 수습하고 바위 틈에서 나무판을 빼냈다. 그리고 나무판 위에 비스듬히 누워 보았다. 아쉬운 대로 배 대신 쓸 심산이었다.

달마는 몸을 나무판에 묶고 두 손을 노 삼아 해안까지 저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조수(潮水)가 육지를 향해 밀물로 바뀌기 시작했다. 달마는 서둘러 몸을 바다에 맡겼다. 파도가 쏜살같이 해안으로 굴러가고 달마의 배도 덩달아 밀려갔다.

"성공이다!"

서늘한 바람이 피부에 와 닿는 걸 느끼면서 달마는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뿌연 하늘엔 몇 조각 구름이 걸려 있었다. 찬란한 아침 해가 지평선 너머에서 떠올랐다. 바위에 서서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달마는 감개가 무량했다. 동쪽 땅 해 돋는 곳이 바로 눈앞에 있지 않은가. 해안가에 펼쳐진 광경은 모두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바닷

바다 가운데로 밀렸다

가 모래는 햇빛을 받아 금싸라기처럼 반짝였다. 한 무리의 기러기 떼가 일(一)자 형태로 날아오더니 그의 머리 위에서 인(人)자 대열로 바꾸며 자태를 뽐냈다. 멀리 푸른 들판이 보이고 그 뒤의 산들은 위용을 자랑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에 달마는 모든 것을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윽

몸을 움직이며 기지개 폈다
맑고 신선한 공기를
아랫배 깊숙이 들이마셨다

달마는 기쁜 나머지 허공을 향해 크게 고함을 질렀다. 조수는 점점 볼어나고 나무판에 실린 달마의 눈에도 육지가 점점 가까이 들어왔다. 해질 무렵이 되자 육지는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불과 1리(里) 정도의 거리였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풍향(風向)이 바뀌면서 조류가 썰물이 되기 시작했다. 달마를 실은 나무판은 걷잡을 수 없이 다시 바다 가운데로 밀렸다. 두 손을 노 삼아 힘껏 저어 봤으나 소용이 없었다. 달마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죽을 힘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가 어찌 달마를 그대로 방치하겠는가. 달마의 나무판은 '꽝' 소리와 함께 썰물로 물이 빠지면서 수면 밖으로 드러난 암초 위에 실렸다.

달마는 머리가 아찔했으나 순간 살았다는 안도감에 사로잡혔다. 겹겹이 쌓인 피로 때문인지 달마는 눈을 뜨지 못하고 그대로 뻗어 버렸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잠속에 빠졌는지 모른다.

고 정신을 가다듬고 해안가의 구석구석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흰 구름이 깔려 있는 듯싶은 한쪽 구석에서 '음메~'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것은 틀림없는 양의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달마는 깜짝 놀랐다. 문득 스승 반야다라가 읊은 게송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 보면 물을 건너고 또다시 양을 만난다(路行跨水復逢羊)"는 게송대로 지금 물을 건너 양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곳이 바로 스승이 말한 볼연(佛緣)의 땅, 동쪽의 진단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달마의 판단은 적중했다. 이 곳이 바로 동토였다. 광동 해안의 '하구로(下九路)'라는 곳이다. 훗날 '서래초지(西來初地)' 즉 달마가 서쪽에서 와서 최초로 도착한 땅이라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역사의 기록에는 이 날이 양무제(梁武帝) 보통(普通) 7년 즉 단기 2859년, 서기로는 526년 음력 9월 27일이라고 쓰여 있다.

태양은 점점 솟아올랐다. 남쪽의 작렬



◇심사정 作 달마도(종이에 담채, 28×18cm)

하는 햇빛은 물에 젖은 달마의 가사를 말려 주었다. 달마의 마음과 몸은 드디어 햇빛과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렀다. 달마의 내면 세계에선 무한한 힘이 샘솟았다. 달마는 불과 1리 안팎의 거리를 돌파하기 위해 바다 속에 뛰어들었다. 달마에게 이 정도 거리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3년 동안이나 바닷길에서 천신만고를 거듭한 달마는 마침내 뭍을 밟는데 성공했다. 그의 굳은 믿음과 불굴의 정신 그리고 스승에 대한 의리와 강한 의지가 꿈에도 그리던 동쪽 땅에 다다르게 한 것이다. 두 다리로 밟고 선 땅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싶어 달마는 힘주어 발을 굴렀다. 그는 새삼스럽게 자세를 가다듬고 바로 섰다. 갑자기 보다 성숙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았다. 성공의 희열 속에 모든 것이 공(空)하다는 진제(眞諦)를 새삼스럽게 곱씹었다.

달마는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잠시 고개를 돌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만경창파는 아스라이 바다의 교향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지난날의 바다의 어두움과 두려움은 그 소리에 실려 달마의 귓가에서 희망으로 승화되었다.

태양은 더욱 높이 솟아올랐다. 달마는 양 떼를 방목하는 풀밭에 도착했다. 풀밭 한가운데엔 큰 바위가 있었다. 바위 위엔 채찍을 든 노인이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달마는 황급히 앞으로 다가갔다. 합장을 하면서 공손히 예를 표했다.

"노인장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요?"

노인은 똑바로 달마를 쳐다보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달마는 눈에 웃음을 머금고 노인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노인의 얼굴엔 잔주름이 깊이 패어 있었다. 입은 옷은 남루했지만 스님의 행색이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 맨발을 하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엔 놀라움과 의심하는 기색이 확연했다.

달마는 노인의 그런 태도가 당연하다고 여겼다. 게다가 자기가 한 말조차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달마는 손을 들어 가슴에 얹은 다음 손가락으로 '하늘(天)'을 가리키고 '바다'(海)를 가리켰다. 이어서 땅(地)을 가리키고 양(羊)을 가리켰다. '노행과수복봉양(路行跨水復逢羊)'이라는 게송을 떠올린 달마는 이 곳이 그 인연의 곳이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승려이며 천축에서 바다를 건너 이 곳에 왔고 양을 키우는 노인장을 만나 반갑다는 뜻을 열심히 몸놀림으로 전달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그의 손짓 발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같지 않았다. 다만 손바닥을 가슴에 대고 손으로 양 떼를 가리키는 것에서 노인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았다. 노인은 그가 탁발을 하기 위해 양성(羊城)이라고 불리는 광주(廣州)로 가고 있는 것으로 짐작한 듯싶었다.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달마를 자기가 앉아 있는 바위 위로 올라오라고 손짓했다. 달마가 옆에 앉자 종려나무 잎사귀로 싼 것을 건네 주었다. 달마는 의아하게 여기며 종려나무 잎사귀를 벗겨 보았다. 그 순간 맑은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다. 그 속엔 참깨까지 뿌려져 있는 주먹밥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음식을 가리키면서 연신 그를 향해 웃음을 날렸다. '어서 드시오. 비록 맛은 없는 것이지만 어서 드시오'하는 뜻인 것 같았다. 달마는 곡기를 입에 대 본지 오래였다. 사양하지 않고 주먹밥을 먹기 시작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 속에 가득 찼다.

주먹밥을 먹기 시작했다

달마가 주먹밥을 다 먹기를 기다린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다. 채찍으로 땅을 가리키고 양 떼를 가리키고는 남쪽 방향을 가리키면서 그 곳으로 가라는 시늉을 했다. 달마는 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새 알아차렸다. 심지어는 노인의 몸놀림에서 해가 서쪽으로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까지도 읽어 냈다.

달마는 노인에게 정중한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주먹밥을 준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는 노인이 가리켜 준 방향으로 발걸음을 서둘렀다. 과연 석양이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질 무렵 달마는 광주에 도착했다.

광주는 '수(穗)'라고 불리기도 하고 '양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옛 전설에 따르면 다섯 명의 신선이 벼 이삭을 들고 오색빛의 양을 타고 이 곳에 나타나 풍요로운 고장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고사(故事)에 따르면 전국시대 초(楚)나라에 속했던 이 곳은 당시의 재상 고고(高固)의 고향으로 다섯 마리 양이 벼 이삭을 물고 고고의 집 정원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것을 길조(吉兆)로 여긴 고고는 임금에게 아뢰어 이 곳 지명을 양성으로 명명(命名)했다고 한다. 그 뒤 이런 전설과 고사를 기리기 위해 광주의 주 청사 안엔 다섯 명의 신선과 다섯 마리의 양 그림이 벽화로 그려졌다. 이로 말미암아 이 곳의 이름은 '수' 또는 '양성'으로 널리 퍼지게 됐다는 이야기다.

인터넷 불교용품 전문백화점 마하몰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마하몰에 방문하십시오. 불교문화상품을 통한 쇼핑의 즐거움과 다양한 정보를 불자님들께 드립니다. 항상 마하몰을 찾아주시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더욱 성심 껏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획정보, 생활불교길잡이, 베스트불교서적, 금주의 사찰등 새로운 콘텐츠로 불자님들을 맞이합니다.
· 기획정보는 선식에 얽힌 이야기와 선식의 효능등을 소개하고 직접 만들어 보실수 있는 정보를 드리며,
· 생활불교길잡이는 각박한 생활속에서 혼탁해진 마음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마음의 휴식공간을 마련했으며
· 베스트불교서적은 베스트불서, 화제의책, 법보시서적등의 메뉴로 구성하여 불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금주의 사찰 코너에서는 매주 한번씩 국내의 유명사찰을 소개해 드립니다.
· 사찰안내와 불교인물정보를 좀더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쇼핑에 도움을 드리고자 신상품과 추천상품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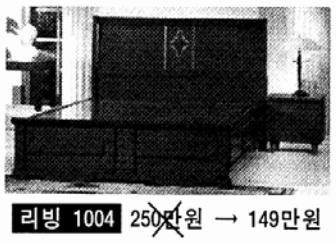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전화 : 02-732-1522

깊은수면중에 기(氣)를 얻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잠! 건강한 잠! 개운한 잠! 이제 돌침대 를쓰셔야 합니다.

폭탄세일

일반 옥매트가 전기장판을 대신 할 수는 있으나 전통온돌방을 대신 할 수있는것은 전통 원적외선 온열요법의 리빙스톤 돌침대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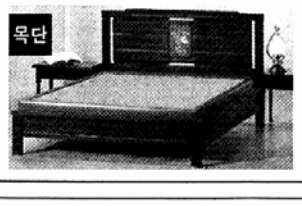
침대(잠자리) - 이제 건강 (척추, 혈액순환), 위생(세균,진드기)을 생각할때 !



리빙 1004 250만원 → 149만원



사군자 330만원 → 19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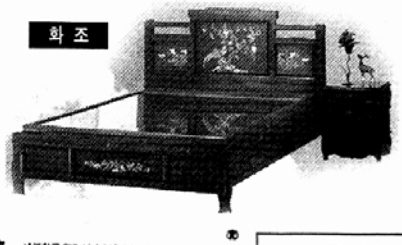
목단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리빙스톤 원적외선 돌침대의 효능…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확 조





101 싱글보료

리빙스톤 ☎ 02)424-9427/2203-7821

평상(平床) 제작 전문
(휴식, 작업다이),
사무용 가구 주문 제작 납품

제6회 신행수기 당선작 (관음종 총무원장상)

길을 찾아 나서다

심 성 일 —부산시 북구 화명동—

나는 흔히 얘기하는 '386세대'다. 내또래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나도 대학시절 나라와 사회에 대한 고민들중 하나를 화두로 간직하고 살았다. 그 시절 내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극명하게 나뉘어진 채 부조리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열정이었다. 그래서 분별력 있는 이성의 힘으로 세상의 불합리함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의롭고 참된 일이라 믿었다. 또 불합리한 현실사회에 무관심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다. 특히 여러 종교 가운데서도 불교를 비근대적이고, 미신적이며 주관적 유심론의 허무주의로 생각했다. 적과 동지가 분명한 시대에 '분별없는 마음'이니 '불이(不二)법문'이니, '인욕바라밀'과 무조건적인 '자비'의 사상은 나에게 현실도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90년 이후 소비에트와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들이 80년대에 가졌던 절대적 이상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반성하게 되었다.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 물질적 탐욕과 부도덕한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차츰 인간의 마음, 내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스물 아홉이 되던 해 여름이었다. 직장 동료로 절친하게 지내던 분이 대전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예식 시간보다 조금 일찍 대전역에 도착한 나는 시간을 보낼 곳을 찾다 우연히 불교용품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기념으로 책이나 한 권 사려고 주인아저씨께 자문을 구했더니, 〈천수경 이야기〉라는 얄팍한 책 한 권을 골라 주었다. 예식을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난생 처음으로 절에서 본 천 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미신적 숭배대상이 아니라,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살의 이타심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보살들이 구현하려는 정토(淨土)나 불국토(佛國土)야말로 모든 중생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참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 그대로 '위없이 깊고 오묘한 진리는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데 이제서야 내가 듣고 보고 지니게(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遇 我今聞見得受持)' 된 것이다.

〈천수경〉에서 비롯된 불교의 관심은 그 후에도 계속돼 주로 책을 통해 불교철학의 전반으로 넓혀졌다.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 법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다. 2년 동안 혼자서 〈아함경〉과 반야경전을 거쳐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대승기신론〉을 비롯해 여러 유식론소와 관련된 철학서를 섭렵하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이제 불교를 웬만큼 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도 내 나름대로 저울질하는 아만심(我慢心)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불교는 단지 철학이지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불단에 정성껏 공양물을 바치고 쉼없이 절하는 불자들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임제록〉과 〈육조단경〉을 공부하며 선(禪)을 접하게 되었다. 하지만 선을 참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 조사어록과 법어집, 수행담을 읽으면서 선에 관련된 지식을 쌓았다. 언제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유만이 진리로 가는 첩경이라고 믿었는 나는 비록 문자를 통한 것이었지만 선은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었다. 어록에서 본 선문답들은 너무나 어이없는 비약과 생략, 비논리성을 띄고 있어 아무리 머리 속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조사어록을 뒤지며 나름대로 화두를 풀이하고, 선객들의 문답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던 서른 한 살 되던 해 봄, 우연히 집 근처에 있는 석불사란 암자를 찾게 되었다. 이때는 이미 선과 불교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하고는 인도 명상가들의 책들을 뒤적이던 무렵이었다. 자아성찰법을 내세운 라마나 마하리쉬라의 〈있는 그대로〉란 책을 옆구리에 끼고 석불사 마애관세음보살상을 구경하며 있을 때였다. 한참 멍하니 불상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주위를 살피니, 옆에 이상한 중년의 남자가 줄곧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검은 얼굴에 눈은 황달끼가 있는지 누렇고 목에는 아주머니들이나 두를 것 같은 화려한 색깔의 스카프를 맨, 첫눈에도 제 정신이 아닐 것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애써 무시하고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데 그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여보시오, 처사! 그게 무슨 책이오?"

내가 들고 있던 책이 눈에 띄었던 모양이다. 나는 속으로 귀찮았지만 당신같은 사람은 봐도 모를 책이라는 듯 대답 없이 슬쩍 책제목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그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중년 남자가 물었다 "처사는 지금 어디 있소"

순간 소름이 돋고 머리속이 휑하니 비는 듯한…

"'있는 그대로'라 참 제목이 좋구려. 그래 책은 읽어서 알 테지만, '있는 그대로'의 처사 자신을 알고는 있으시오?" 순간, 소름이 돋고 머리 속이 휑하니 비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예전에 읽었던 조사어록과 선 관련 철학서들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헤아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중년 남자는 "처사, 처사는 지금 어디 있소?"라고 다시 물었다. 여전히 내가 아무 말도 못하자 그 남자는 혀를 끌끌 차며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쯧쯧, 업장이 두터워서 안되겠군…"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는 그 남자가 유유히 사라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절에서 내려왔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다리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수년을 걸려 수많은 경전과 어록, 논서, 철학서를 읽고도 '네 자신이 누구냐?'라는 단순한 물음 앞에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자문하니 그동안 쓸모 없는 지식을 가지고 우쭐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스러웠다. 마치 똥덩이를 금덩이로 착각하고 주무르고 있던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 사람 덕분에 사삼 깨치게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분이야말로 나의 어리석음과 아만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좌우지간 나는 처음으로 인간의 이성적 사유와 논리성에 기초한 사고가 진리를 파악하는데 도움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실제 수행이 없는 지식의 확장과 심화는 깨달음은 커녕 오히려 아만심과 어리석음만을 길러 줄뿐이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꼈다.

석불사에서 내 공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는 이런 저런 수행법을 시도해 보기로 마음 먹었다. 기공(氣功) 서적을 읽을 때는 기공을 해 보고, 인도 명상서적을 읽을 때는 만트라나 차크라에 의식을 집중하는 수행을, 위빠사나 관련 서적을 읽을 때는 수식관이나 부정관법을 흉내내고, 간화선 서적을 읽으면서는 화두를 잡아보았다.

하지만 무엇이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한 다음에야 행동에 옮기는 나의 몸쓸 버릇때문인지 화두에 대한 의심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적인 수행법인 듯 생각되는 신선도나 일반 명상 수행의 호흡 수련과 같은 의식을 집중하는 수련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날 홀연히 육체적 감각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의식만 또렷한 경계가 나타남을 느끼게 되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허공에 '나'라는 의식만 둥둥 떠 있는 듯한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편안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런 경계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왜 그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하는 초조감에 시달리면서 수행법을 바꾸기까지 했다. 어떤 경계에 집착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오히려 수행에 대한 회의와 자신감만 잃어갈 뿐이었다.

1년 동안을 그렇게 허송세월 한 뒤 지난해 여름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백련암 여름 수련회 공지를 발견했다. '네 마음을 부수고 오너라'란 글귀가 맘에 들어 즉시 전화를 걸어 신청했다. 더 이상 누구의 지도나 조언 없이 혼자 수행을 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의 수행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수련회를 기다렸다.

드디어 수련회 날 백련암에 도착하자 백련암 수련회의 전통이라면서 삼천 배를 하라는 것이었다. 평소 불교에 대해 이해가 낮은 사람들의 기복적 신앙형태라고 폄하했던 절을 삼천 번이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수련회 참가에 대한 성급한 후회가 들었다.

점심공양이 끝난 뒤 삼천 배가 시작되었다. 처음 5백 배가 끝나고 20분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이런 행위가 과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몰려왔다.



그림 · 이준석

절을 하면 할수록 점점 몸가짐이 흐트러지고, 온몸의 진액이 모두 땀으로 나와 좌복이 온통 땀으로 젖고 몸뚱아리가 천근만근이나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 2천 배를 넘을 무렵에는 좌복에 몸을 던지다시피 겨우 절을 하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내가 혼자 우쭐해하던 지식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이 나약한 몸뚱아리를 '나' 자신이라 여기며 아끼고 다듬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가 하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이 터져나왔다. 이런 착각으로 우쭐거리는 그 아상(我相)을 깨뜨려 주려고 성철 스님은 이렇게 어려운 고행을 시키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보잘것없는 알량한 지식으로 분별심을 일으킨 내 자신의 모습이 흡사 소주잔으로 태평양을 가늠하려 한 꼴이었구나 라는 자괴심이 드는 사이 삼천 배를 마쳤다.

삼천 배를 마치고 다음날, 원택 스님으로부터 오계를 받았다. 수계식이 끝나자 지도법사님과 참가자들이 담소를 나누면서 화두 참구하는 방법에 대해 들려 주었다.

"'마삼근' 화두가 수련회 참가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어느 스님이 동산 스님에게 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동산 스님이 '삼 서 근'이라고 답한 데에서 이 화두가 비롯되었습니다. 화두를 들 때, 그냥 '마삼근', '마삼근' 하고 염불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물었는데, '어째서' 삼 서 근이라고 대답했는고' 하는 의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마삼근'이란 언구에 끄달리지 말고 '마삼근'이란 말이 나온 자리, 동산 스님의 마음 자리를 의심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도 법사님의 설명을 듣자 그 동안 내가 한 수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나를 다시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화두'를 무슨 퀴즈 풀듯 그 언구에 알맞은 대답을 구하는 것이거나, 주력이나 염불처럼 잡념을 떨치는 방편쯤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백련암 수련회를 계기로 나는 수행에 있어서 지도자와 도반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눈뜨게 되었다. 혼자서 책을 통해, 또는 어디서 얻어들은 짧은 소견으로 수행 하다보면 자칫 같은 자리를 맴도는 우를 범하거나, 정법과는 전혀 동떨어진 삿된 경계에 끄달릴 위험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선을 배우고 수행한다는 것은 세속의 학문을 하듯 머리 속을 알음알이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래모습을 뒤덮고 있는 분별과 망상을 차츰차츰 덜어나가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수련회를 갔다오고 부터 매일 108배를 올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회하기 시작했다. 또 절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 맹목적인 기복과 타력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요즘은 하루에 30분씩이라도 화두를 들고 좌복 위에 앉아 탐, 진, 치의 사나운 야생마들을 길들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들끓는 마음 속에도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번뇌가 들어 있어 이제는 더이상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고 깨우쳐야 이 세상을 참다운 정토(淨土)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젊은 날 나는 너무나 물질적, 경제적, 정치적 세계의 변혁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나 성급하게 이상세계를 꿈꾸지는 않았는가 돌이켜 본다. 내면의 침잠이 결코 현실도피나 망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삼라만상에 대한 본질을 깨닫기 위한 것이며 그러한 깨달음이 사회화될 때 진실로 참다운 세상,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화두 일념으로 꾸준히 정진해 나갈 것을 스스로 서원한다.

인터넷 불교쇼핑 마하몰 신년 특선 상품전 www.mahamall.co.kr 02)732-1522

● 108 나한단주



산부송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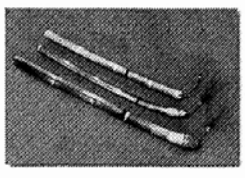
인체공학적 설계로 착추보호
· 일 반 30,000원 · 숯기반 35,000원
· 황토반 35,000원 실용신안 19998-025009 의장등록 제 14387 호

● 아로마 도자기 램프



단순히 장식품이 아닌, 방향제 와 램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방법 : 적당량의 물을 램프 윗부분의 홈에 담고 아로마 오일을 3~4방울 넣은 후 빛의 강도를 터치버튼을 이용하여 조절하시면 됩니다.
· 가 격 : 65,000원 (※ 아로마오일 10ml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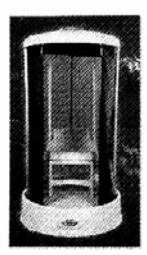
● 죽 비



뿌리죽비(대) 25,000원
뿌리죽비(소) 20,000원
일반형(2개 1세트) 18,000원
보급형(2개 1세트) 12,000원
죽비세트 53,000원
(뿌리 大, 뿌리 小, 일반형)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마디 이상 들어가며 (일반형 이상)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 그루당 죽비 1개 제품만 생산

● 아로마 스팀 사우나



· 특징
설치, 작동이 간편
증기 고루 분포
· 규격
100cm × 90cm × 172cm
· 중량 : 본체 - 32kg
의자 - 5.5kg
· 가격 1,500,000원
· 효과 : 원활한 신진대사, 긴장과피로, 체중 조절, 스트레스 완화, 칼로리 소모 촉진.

● 연꽃 불자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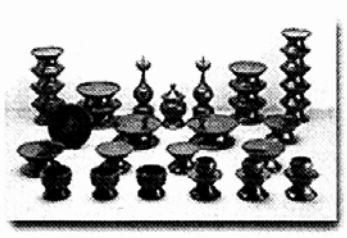


특별사은품 (달마시계 + 수암옥108염주)

· 남성용, 여성용 각각 11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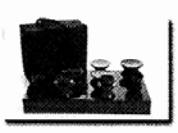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

● 남원 동천목(孝)제기



· 재 질 : 지리산오리목 · 가 격 : 203,000원
· 구 성 : 촛대2, 탕기3, 술잔3, 술잔받침대3, 나물그릇3, 편기2, 적기2, 큰접시4, 중간접시5, 작은접시6, 지방틀, 어틀, 편틀, 향로 + 제례서식1권

● 성묘용이동식(휴대용)제기



· 구성 : 중간접시3, 작은접시3, 탕기2, 술잔2, 술잔받침대2 + 성묘용제기함 + 휴대용가방
· 재질 : 지리산 오리목
· 가격 : 8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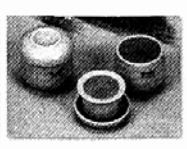
● 제기함



· 규격 : 58Cm × 42Cm × 48Cm
· 가격 : 75,000원

● 옥산가 ® 춘천옥 ® 다기 상품





· 옥(玉) 개인다기
구성 : 찻잔(2p) 거름기(2p) 찻잔받침(2p)
가격 : 70,000원

· 옥(玉) 다기세트
구성 : 다관(1p) 숙우(1p) 찻잔(6p) 찻잔받침(6p)
가격 : 330,000원

● 왕사성의 비극



비디오 (1시간35분)
책 포함 가격 : 20,000원

부처의 자비는 고통받는 자에게 전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물가에서는 노는 아이보다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제하는 것이다.

거짓 나 붙들고 늘어지니 번뇌 생겨

바르게 관하는 법

문 저는 지금부터 약 10년 전 우연히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의 책을 읽고 찾아가 뵌 적이 있습니다. 스님의 법어록인 '한마음 요전' 을 읽어보면 관법 부분에서 '지켜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상 생활 속에서는 행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기 전 홀로 조용히 시간을 내어 수행할 경우에 염불하듯이, 주인공! 주인공! 하면서 주인공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찰자 입장에서 떠오르는 마음을 무심히 관찰하는 것이 올바른 방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데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전에 선지식들께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푸를 땐 어떻게 다스리며, 붉을 땐 어떻게 다스리며, 붉지도 푸르지도 않은, 들 아닐 땐 어떻게 다스리느냐고 하셨는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도리를 일깨워주기 위한 자비로운 방편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바깥에서 알 양으로 하지말고, 안으로 지극하게 알려고 한다면 자연히 밝아지게 됩니다. 문은 자꾸 두드려야 열리죠? 두드리지 않는데 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는데 어떻게 열리느냐는 거죠. 일하면서도 한번 꽝 치고 또 일하고, 어떻게 어떻게 가다 한번 꽝 치고 일을 하고 이래야 나중에는 부서지든지 그냥 열리든지 하지 않겠어요? 그냥은 하나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문은 열기 쉬워도 문 없는 문은 열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저녁에 조용하게, 삼십 분 동안이라도, 단 이십 분 동안이라도 간절하게 하는 것이, 억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주인공을 부르는 것은 더욱 아니고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주인공에 놓는다면 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번 둥굴러 보세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둥굴려서 내면에 놓으면, 잡념이고 뭐고 다 없어요. 자식이고, 조상이고, 부처고, 중생이고, 벌레고, 지수화풍이고 뭐고 다 몰락 들어가는 자리죠.

그렇게 무겁고 간절하게, '수없이 진화돼서 온 과정을 당신밖에 모르는데, 앞으로 갈 길도 당신만이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선 그냥 몸부림치듯이 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몸부림 없이 어떻게 백지장 하나를 넘어서겠습니까? 여러분은 백지장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백지장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면으로 그렇게 다지면서 믿음을 가지면은 길을 가면서 발을 떼어 놔도 항상 묵직하게 떼어집니다. 말을 해도 묵직하게 하게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으면 한발한발 죽어 가는 건데, 좀 먼저 죽고 좀 나중에 죽고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생사가 둘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본래 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우칠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생각했는데 저녁에 생각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생각은 아예 놓으세요. 그때 생각했으면 그때 생각한 대로, 생각을 못했으면 못한 대로 생각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고 싶으면 자는 것도 참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걸리지 마세요.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그 놈이 하는 거지 딴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요. 일을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서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앉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만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체 어떤 것에도 걸리지 말고 오직 진실하게만 믿고 들어가기 바랍니다.

집착과 간절함의 차이

문 번뇌와 집착이 없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라서 느끼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집착과 간절함의 차이도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버선목처럼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으니 어떻게 말을 해야할까요? 그것을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다면 나도 편하고 좋겠는데 말입니다. 마음공부는 지식이나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 맛을 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근본에 믿고 맡겨서 직접 하나하나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고가 생기는 것이지, 나의 근본에서만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진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번뇌와 집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겁낼 것도 없이 모든 것이 공부의 재료임을 스스로 알게 되어 도리어 감사해 할겁니다.

그래서 번뇌도 집착도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쉴 사이 없이 돌아가듯이 나의 근본과 한 찰나도 떨어짐이 없이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 나를 사사건건이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번뇌가 되고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착과 간절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집착은 거짓 나가 모든 것을 한다고 붙들고 있으니까 집착이 되는 것이고, 근본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진실하게 믿고 일임해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놓아 푹 쉬고, 어린 아이들이 오로지 엄마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에너지 주장자를 쥐고 편하게 살아가기를 바래요.

즐겁다가도 우울해져 답답

문 모순되지만, 제가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땐 아무 이유없이 마음이 즐겁고, 또 어떨 땐 아무 이유없이 그냥 기분이 우울하고 가라앉습니다. 하루 하루의 마음상태가 틀려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 불교에서는 평상심을 지키라고 하던데, 기뻐도 기뻐하지 말고, 슬퍼도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이유가 무엇인지요. 어리석은 놈이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답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한 번 자세히 지켜본다면 찰나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자동적으로 말도 마음도 행동도 아들이 되고, 동생이 와서 '형' 하고 부르면 자동적으로 형의 마음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돌아갑니다.

그렇듯이 모든 게 찰나생활을 하는 거예요. 순간 순간만 바뀌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 남자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면 남자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한 순간 이 몸을 벗고 다시 여자로 태어난다면 자동으로 여자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바뀌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순간순간 화(化)해서 사는 것이 바로 시공을 초월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찰나찰나 바뀌어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하고 저렇게 해야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나게 하는 그 장본인을 발견하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팔자운명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생을 거쳐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살면서 익혀온 모든 습을 녹이는 방법은, 바로 일체를 나온 그 자리에 되놓아야 앞서의 입력된 것이 지워진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무슨 생각은 안 들겠습니까? 별의별 마음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현상에도 끄달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릴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든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든 모두 그 자리에 믿고 맡겨야 자유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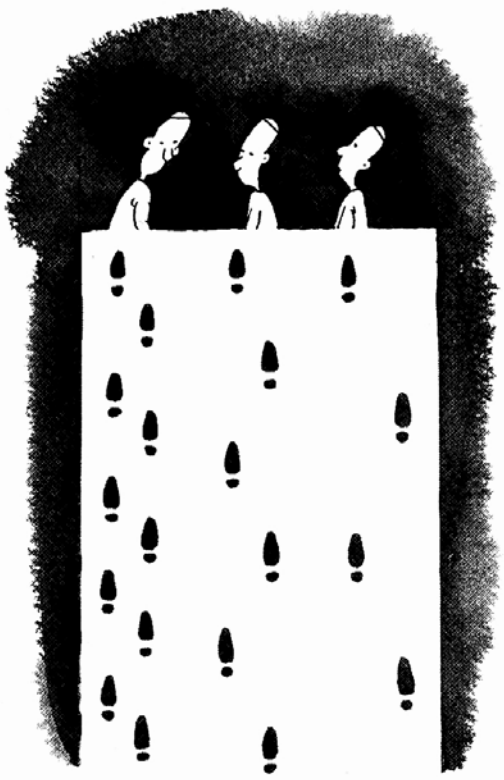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공부는 지식 · 이론이 아니라 스스로 맛을 봐야 하는 것이므로 근본에 믿고 맡겨 실천해야 돼요

불 보살 모습 어떤 것인지요

문 우매한 질문 같습니다만 불법을 공부하는 재가불자로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불보살님의 존재모습은 어떤 것 인지요. 우리와 함께 늘 같이 있으시면서 살펴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등 가피를 주신다는데 그 불보살님의 존재 모습이 궁금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어떤 형태로 계신지, 또, 많은 중생들의 부름에는 어떻게 응신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그 가피란 것이 주인공인 우리 마음의 작용에 불과한 것 인지요. 그렇다면 가피는 어떤 원리로 우리 중생들에게 작용하게 되는지요?

답 한가지 예를 들자면, 관세음이란 말은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관하면서 살고 있는 것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음은 이 세상의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도리를 안다면 그대로 이름없는 관세음보살이 될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도 인간 되기가 어려워 수 십억 년을 거쳐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렵게 진화하여 인간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을 만나서 마음 도리를 알고서야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불법을 만났는데도 올바른 수행을 하지 않고 기복으로만 빌고 바깥으로만 찾아서야 부처님의 참뜻을 어찌 간파하며 어떻게 부처님과 둘이 아닌 도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렇고 도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 들었다고 강도가 들었다고 온통 야단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침착하게 맡겨 놓고 흔들림 없이 지켜보면 스스로 모든 게 보살로 화해서 오고 감이 없이 그쪽에 가서 작용을 하게되니, 도둑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해서 도둑질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순간, 한 찰나에 마음에 봄이 오게 할 수 있는, 이름하여 보살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그거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오신통을 본래 갖추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이라고 생각으로 묶어놓고 부처님은 높은 데 계시니 "부처님, 나를 살려 주세요.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 주세요." 하면서 조금만 언짢은 일이 생겨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하고 입으로만 부르고 있다면, 현대를 사는 불자답게 기복에서 벗어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천리만리 먼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가 많다 해도 그것은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백억화신으로 나투시면서, 이런 모습의 보살을 원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투시고 저런 모습의 보살을 원하면 또 그대로 나투시는 것이지,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고 지장보살이 따로 있고, 용왕, 산신, 조왕, 신장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근본과 직결된 한마음에서 일체가 화해서 들고나는 것임을 알고, 오직 내면으로 진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수행을 생활 속에서 항상 해 나가시기를 당부합니다.

진실해지고 깨어나고 싶어요

문 지난번 저의 질문에 답해 주신 이후 혼자서 열심히 그 길을 가고 있는 수행자입니다. 때로는 사물들이 저에게 '이건 진실이 아니야' 하고 말해줘서 너무 감사해서 울고, 사람들이 아둥바둥 사는 걸 보고 있으면 또 눈물이 나서 울고, 이것은 진실이 아닐 텐데, 하고 혼자 생각에도 잠겨보면서 진실이란 무엇인지 너무 알고 싶어, 혼자서 끙끙앓기도 합니다. 요즘은 제 주변에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스님, 저 깨어나고 싶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싶어요. 간절하게 가르침 원합니다.

답 우리가 본래 놓고 돌아가는 것이고, 나를 세울 게 없으면서도 아주 엽렵하게, 아들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면서 자동적으로 찰나생활을 여여하게 행하고 있으니 본래 오신통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데를 본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 일심으로 돌려놓아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 일심으로 돌려놓아라, 동시에 구르는 것이다. 또 남의 속을 아는 것, 즉 말하자면 남의 속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 또 놓아라, 일심으로 돌려놓아라. 지나온 걸 알고 앞으로 다가올 걸 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일심으로 돌려놓아라. 남의 속을 빤히 아는 그 다섯 가지의 문제를 일심으로 돌리면 바로 그게 '원통의 무심' 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통을 벗어나는 무심의 도리' 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고 못 깨닫고 간에 모든 걸 일심으로 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빨리 하겠다, 느리다, 조금 되더니 아주 캄캄해졌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캄캄한 것마저 놓으세요. 왜? 캄캄하고 밝은 것, 꺼지고 켜지는 양면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밤에 방에 들어가면서 불을 켜죠? 그리고 그 방을 쓰지 않을 때는 불을 다 끄고 나옵니다. 이런 작용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듯 자유스럽게 우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끄고 켜고, 환하고 어둡고 하는 양면을 모두 다 놓고 용도대로 행하는 작용이, 한 군데서 나오는 것을 그 한 군데로 다 들게 하는 작용입니다. 한 군데로 들어서 만 가지가 발산이 되고, 만 가지가 또 한 군데로 들고, 또 만 가지가 씀씀이로 돌아가는 묘용이 바로 마음의 법이면서 생활의 법이니, 따로 찾을 것도 없이 내 진실한 한마음에 모든 것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근본을 쥐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직 진실하게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고 생활 속에서 항상 일념으로 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희심 며칠 안가 사라져

문 스님 법문을 들을 때면 환희심이 넘치고 그 충만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며칠이 지나면 아무 것도 잡히지 않고, 다시 망상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 법회 때 법문을 들었을 때도 다른 불자님들의 질문이 모두 저의 질문인 것처럼 절실하게 느껴졌지만, 해답을 알고

☞ 20면으로 계속

가려운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모든 경계 근본자리 놓을때 苦 사라져

☞ 19면에서 계속

도 그때뿐이고 답답함은 여전하니 어떻게 하여야 제대로 관하는 것인지 그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걸까요?

답 인간에게는 이미 마음을 마음대로 쓰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허락이 돼 있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자유자재권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이것은 한다, 저것은 못한다, 또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미리 지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이 그렇게 붙어 돌아가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데 말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에너지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를 담아 가지고 있는 통과 같습니다. 그 통은 마음을 내게 하되 마음을 어떻게 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마음은 자기 몸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몸을 다스리는 데는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 속에 있는 팔만사천의 자생중생들이 내 마음의 신하가 돼서 움죽거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대로 나오는 것에 속아서 자꾸 떠밀려서 되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보는 거와 듣는 거와 냄새 맡는 거와 감각, 지각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잘된 건가, 안 되는 건가 안팎을 다 보고서는 '잘못된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밖에 없어.' 하고 다시 맡긴다면 그것이 정신계로 직접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명도 업보도 다 제거하는 직결의 문입니다. 그리고, 마음 편안한 살림살이를 가져오는 문입니다. 생명의 수명을 좀 길게 한다거나 짧게 한다거나,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역시 거기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직결문을 두고도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뭐가 어떻고, 안되고, 이런 거는 되고….' 이러는데 그건 여러분의 살아온 관습 때문입니다.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에도 한 찰나에 갔다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마음이 이 지구 바깥을 못 벗어납니까. 우리가 연못 속에서, 우물 속에서 여기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바다로 못 나가는 것뿐입니다.

모습이 있는 거는 움죽거리는 대로 한계가 있지만 마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에너지 주머니, 마음내는 거, 마음내게 하는 거,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낼 때에 잘못된 거라면 '현재의식의 나는 모르지만 당신만이 올바르고 잘되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또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아서 새 물로 바꿔 쓰란 말입니다. 안 되는 거는 구정물과 같지만 체가 없는 거고, 되는 것도 체가 없어서 그것이 홀떡 돌아서 현실에 새 물로 바꿔 쓰게끔 나온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왜 자기 주인공을 믿지 못합니까? 근본을 믿어야 마음을 내주고 마음은 육체를 움직이면서 지혜를 넓히고 다스리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당신만이 지혜를 넓혀가고 이 심부름꾼을 밝게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은가.' 하고 관하신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환겹쳐 살아가기 힘들어요

문 스님, 저는 요사이 삶의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왜 이리 사는 게 힘들까요? 저희는 6년 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주택조합아파트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IMF가 터지고 남편 회사는 망해서 그만두어야했고 아파트 시공회사도 망하여 지금까지도 입주는 커녕 비싼 대출금 이자 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새로 들어간 회사도 해외 매각이 된다해서 그만두어야 하고 지금 살고있는 집도 너무 전세금이 올라 많은 돈을 손해보고 이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왜 저희에게는 이런 일들만 생기는 것일까요? 정말로 전생에 죄가 많아서 지금 그 죄의 댓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답 우리가 한 찰나에 뛰어넘지 못하고 닥쳐오는 대로 그냥 당하기만 하면서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주 바깥을 뛰어넘을 수 있거늘, 어찌 대치를 못하고 그냥 살아가야 합니까? 정말이지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 사는 것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말입니다. 내가 대신 밥을 먹어서 여러분의 배가 부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내가 대신 밥을 먹어줘도 여러분은 배고픔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 밥을 제가 퍼먹어야 배가 부르지, 남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똥눠 줄 수도 없고 밥을 먹어 줄 수도 없고 잠자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깨우쳐 줄 수는 더욱 없는 것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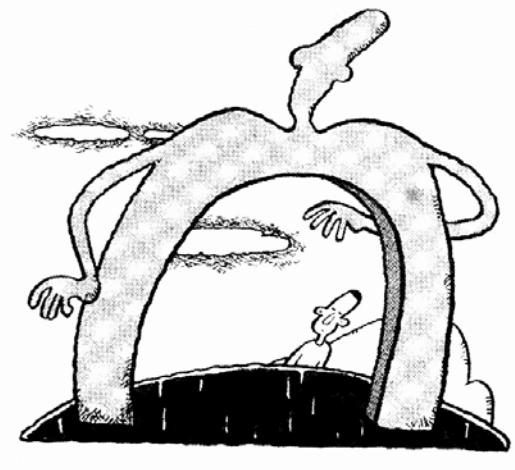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이뤄 완전한 삶 사는게 인생목표
내안의 보배 의지할땐 겁나는 일 없어

기도란 돌로 보고 낮은 자의 입장에서 지금 다가온 팔자와 운명을 면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고 또 밖으로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한다는 것은 평등한 마음으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좋고 참으로 좋지 않은지 중생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모든 걸 한다고 굳게 믿고 있을 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일체를 근본에 모두 맡기고 나는 묵연히 지켜볼 수 있는 큰 믿음이 생긴다면 마음은 자연히 놓아지게 마련이지요.

그렇기에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없이 그냥 놓는 겁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꼬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길 수 있다면 거기에 지저분한 무엇이 하나라도 붙을 수가 없지요. 본래 나고 죽음도 없이, 근본에서 영원히 이끌어 갈 터인데 무엇이 거기에 붙을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주인공 자리를 확연히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더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주 급해서 안 될 때에는 '그대가 한 일이니 그대가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 하고 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사량(思量)으로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근본에 믿고 맡길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리의 근본 원천으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서 일이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하면 된다더라 해서는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하나 실험하고 체험하는 그 속에 내안의 보배가 분명히 있어서, 그 보배를 믿고 의지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간다면 어떤 일이든 겁이 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서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닥쳐진 문제가 물질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하고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는 일들뿐이지만 내가 마음으로 '그래, 정말 이 모든 것을 대처해서 해결해 나가게 하는 것은 당신뿐이잖아.' 하고 진실로 맡겼을 때,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그 길이 안팎으로 밝아지게 되고, 그렇게 내 안의 에너지 주장자를 진실히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저절로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게 부질없어 보여

문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으며 무엇 하나 가질 것도 없습니다. 설령 나를 본들 무엇 할 것이며 부처가 된들 뭣하겠습니까? 단지 생명체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업장 아닌 업장에 끄달려서 살다가 이 몸 벗으면 또 다른 연으로 계속 이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는 것은 부자유하고 그나마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아무도 원치 않는 완전한 무(無)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인생이란 길어야 백 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때의 영화도 인생이 끝나는 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서 자신에게 닥쳐오는 막막한 허무감에 대해서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누구나 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 처자, 친지, 지인(知人)들도 자기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오직 자기 혼자서 감당해야만 할 짐입니다. 그런데 죽음만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대표되는, 삶에 있어서의 온갖 고통과 번뇌도 깊이 생각해 보면 누구든 자기 혼자서 그것을 견디거나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의 이웃이나 벗들, 가족들이 나의 고통과 번뇌를 덜어 주기도 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짐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산다는 것을 고(苦)라고 하셨습니다. '고' 란 사실 우리가 가장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역사상 수많은 선지식들이 뼈저리게 느껴온 인생의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그런 실제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깨달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삶은 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이지만 인생의 목표는 그 고로부터 벗어나 부처를 이루어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경계를 자기의 중심 자리에 놓아 나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세상을 사노라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수행자는 그것을 놓아 버립니다. 바로 그 점이 수행자와 수행자 아닌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닥쳐오는 경계에 매여서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거듭 괴로움을 받습니다. 즉, 경계가 닥치니 괴롭고, 그 경계를 들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닦아 나가는 수행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계란 지난날 어느 땐가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요, 모든 행위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법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경계를 무심하게 놓아 버립니다. 이미 닥쳐온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놓아 버린다면 곧바로 녹는 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맛 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놓아 나가는 사람은 점점 무심의 경지에 가게 되어 마침내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를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근본에다 일임하고 나는 편안하게 근본만을 의지해서 자유스럽게 살아가라고 하는데도, 어떻게나 이유가 많은지 모두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안의 근본은 잡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여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체를 근본에서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맨날 나는 허망하다고 하고, 허무하다고 하면서 근심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 세상에 걸망 하나 짊어지고 캠핑 나와서 한철 놀다가 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고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는 것인데도 그냥 매사 것을 허무하다고 한다면 안되지요.

내 한생각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두들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허망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자신의 근본에 모든 것을 되맡겨서 어떤 일이든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극하게 관하시면서 자유스럽게 좀 살아보세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현대불교신문 합본 6집』 發刊!

현대불교신문에는 큰스님 법문 ·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 생활의 지혜 · 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내 용 : 2000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252호~300호)
- 판 형 : 신문대판 원형 (40cm×55cm)
- 방 법 : 전화 신청 / 입금 확인 후 택배 발송
- 가 격 : 60,000원 (발송비 : 지역별 3천원~7천원)
- 입금구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023-25-0007-617, 농 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1255243

※ 2001년 2월 10일까지 신청시 발송료 면제

■ 문 의 :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 2001년 1·2월호

불교와 문화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buddhistpromotion.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신년호 특별 설문조사 - 2001 오늘의 한국불교
스님, 불교학자, 종무원, 불교언론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지금 우리 불교계를 주도하는 인물과 단체를 알아본다.

특집 - 한국 불교에 禪은 살아 있는가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불교, 특히 간화선 수행법에 대한 발전적인 모색을 담았다. 간화선 수행이 현대인들에게 맞게 재해석되고 수행법에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었으며,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 선불교에 대한 역사적 조명, 그리고 토굴에서 정진 중인 수행자를 만나 선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과정을 들어 보았다.

우리 절의 편액 바로보기 ⑥
정허 성우 스님이 쓴 합천 해인사 '퇴설당(堆雪堂)'의 역사적 의미와 서체의 가치를 살펴본다

컬러화보 ① . (사진으로 보는)세계 주요 불교국가의 법구(法具)
티베트의 불교 의식구

컬러화보 ② . 절에 피는 꽃 - 동백화

컬러화보 ③ . 문화탐험 / 문화 속에 담긴 불교의 향기를 만난다 - 인간의 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화가 알렉스 그레이(Alex Gray)의 불교적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불교에서 보는 제3의 수행법, 왜 문제인가
- 동양사상 열풍의 역수입과 함께 들어와 국내에서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아바타, 초월 명상(TM)과 여러 가지 힌두식 명상법 그리고 기공을 선두로 하는 도교 수행법 등 갖가지 수행법에 대한 정면적인 비판 불교 정체성의 혼란과 불교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으로 불교 종단과 불자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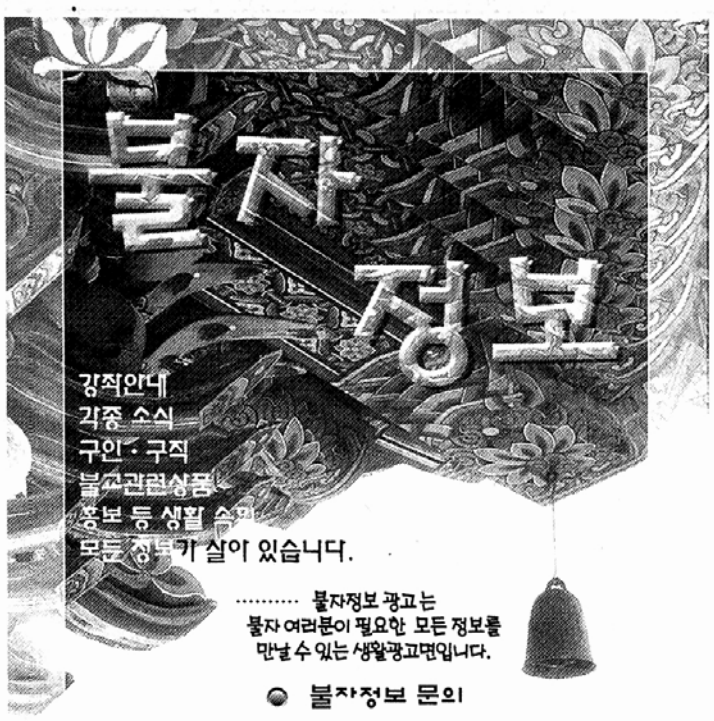
서평 / 서양인이 본 산신(山神)
벽안의 저자 데이빗 매이슨이 쓴 『산신령』에 나타난 한국의 산신신앙과 불교와의 관계 및 보살로서의 산신을 알아본다.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buddha do?)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경전에서 해당 구절을 인용하고 그에 대해 짧은 해설을 덧붙여 곤란에 빠진 불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감각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① 낙태문제

인물포커스 근 · 현대 한국 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문학편)
① 공초 오상순 - 영원한 불교인이었던 공초 선생의 무소유의 삶
② 백화 양건식 - 잊혀져있던 불교인 백화 선생의 거사불교운동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E-mail: kbpf@chollian.net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5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18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최대의 관계 개선장 · 최상의 참나 깨침길 · 최고의 결혼 이행지
하나한
마음을 마음대로
삶을 온전히 누리기
www.nowheretruth.com
홈페이지만 정독해도 뚜껑이 열립니다
敎×學△(016-206-1001)道△生○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男 60세
- 사무직 · 종무직을 구하는 불자입니다.

원하시는 사찰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017)655-8590

謹賀新年
대한불교 조계종
서 암 사
주 지 영 선
신도회장 구덕성화
총 무 이 경 자
신 도 일 동
경북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429번지
전화 : 054)761-3770 / 팩스 : 054)762-3770

구갑염주, 합장주 구갑은 장수와 행운을 뜻합니다.
· 108 염주 150,000원 고급기공 케이스 포함
· 매듭합장주 30,000(10mm)
서울판매처 길상원 (02)722-4435 (조계사 앞)
지방 - 전화를 주시면 물건을 보내드리고 대금은 후불로 받습니다. (구갑사)
02)444-2822
017)208-2822, 018)293-2823

삼재 소멸 기도 (三災 = 토끼, 돼지, 양띠)
신병, 손재, 파산을 일으키는 삼재를 미리 예방하면 전화위복이 되어 소원성취를 이루는 특수 비법
19, 23, 27, 31세 (낙상주의) 35, 39, 43, 47 (교통사고 주의)
51, 59, 63 (신병, 손재수 주의)
053) 982-4976 · 011) 813-3679
소원성취 기도도량 **지 장 선 원**

탈 종 공 고
경북 영주시 영주 1동 118-1 **약 수 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2001. 1. 24

판매 합니다. (직접가공함)
≪ 흑단염주, 108주 : 6천원
≪ 합장주 (매듭) : 천 오백원
≪ 일천주 (케이스 포함) : 6만원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552번지
덕림산방 : 박 정후
연락처 : 061-337-4879
011-610-4879

앞은 깜깜하고 옷가미는 단단하며 벗어나 갈 길이 아득하네
生死는 무상하여 바람앞에 촛불이니 이몸 금생에 제도 못하면 다시 기약할 수 없음이라
이제 해탈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뼈골이 바수어지고 나의 모든것 다버린들 두렵고 아쉬울 것이 무엇인가 승속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뜻이 투철하며 간절하고 절실한 사람은
031) 584-2818
011) 272-6478
혜 연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80)752-9013

청운역리 학원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괘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사리함 (벽조목)
- 부처님 복장 사리 봉안함
- 8cm×21cm 정교한 조각
- 진귀한 명품 예술적 가치 높음
- 소중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053)982-4976
011)813-3679

佛舍廊 (불사랑)
(각종 불교용품 전국 도매)
직원모집
모집인원 : 男 약간명
나 이 : 25세~33세
※ 전국 출장 가능한 자
문의 011)9355-1328
031)858-8661

동반자 원함
신체 건강하고 마음이 넉넉한 자비여성으로 56세 술생 개띠생 여성을 원하며 중생에 길을 포교로써 남은 생애를 함께 할 동반자 원함. 현 55세 해생의 남자로써 신체 건강하고 포교원 운영중입니다.
054)751-8225

공양주 모집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1212번지
함께 기도할 분, 함께 식구처럼 생활하실 분
052)224-4945
청 송 사

배우자 구함
신체 건강하고 마음이 넉넉한 42세 독신남 임. 약간의 재력 유하고 절을 가지고 있음.
- 여성상 : 약간의 외모와 사찰(절)에 주인역할을 할 수있는 경상도 여성 원함 (비구니스님도 해당)

011)665-7037

신심있고 성실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원주 치악산 구룡사
033)732-4800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 해남사
052)212-3340

공양주 모십니다.
- 60세 미만 -
▷신림동 약수사◁
02) 877-7514

부전스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조용한 암자, 사법 고시생 한분 무료!
011)9764-819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41)566-6301
011)9803-6301

사찰 토굴(급)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30분 거리
- 종교부지 : 1000평, 전 : 800평
- 물 좋고 경치 좋은 관광지 부근, 기도처, 선방, 고시원, 전원주택 적합, 목조건물, 지붕-강판
- 20평 1개, 15평 2개, 8평 1개, 5평 1개 심야보일러
- 가액 : 2억8천만원 (전세도 가능)

061)852-5357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2,700만원

019)545-2962

사찰 (급) 안내
- 신축 사찰을 조성 원가 20억 일부 보시하고 양도 합니다. 뜻있으신 스님 연락 주십시오.
- 부지 2천평, 건물 180평, 포집양식, 정남향 기와, 황토집(건물 7동)
- 경부 고속도로 용인, 기흥 IC 인근

011) 410-1387 (창건주 직접)
일반 부동산과 일부 교환 가능

사찰 (급) 안내
- 소재 : 대구 시내 중심가 (2층 3층 각 49평)
- 2층 : 법당1, 큰방 2, 부엌, 화장실, 사워장
- 2층 : 보증금 6백 (월 40만원)
- 시설비 : 1천 9백만원

3층은 별도 협의 - 큰방2, 회장실, 사워장 넓은마당있음
※ 특 : 2층 보증금 없이 (1년선세 840) 가능

053)255-662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보문산 옆
- 가액 : 전세 3천 시설비와 물품은 답사 후 절충
- 시설완비
  1층 - 공양간 20평 방 1칸
  2층 - 법당, 산신각, 방 2칸, 37평

011)430-3344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1200평
- 임법당 : 40평 • 가액 : 2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 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산 19-17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 기와, 요사채, 미륵 3존불 58년된 사찰
- 특징 : 월명공원 부지 내에 위치
- 가액 : 5천만원 (가격 절충)

전북 군산 미륵사
011)9646-3220

포교원 안내
- 각종시설완비, 방2, 주방, 총 50평
- 부천시 소사구 소사분 3동 대로 변
- 보증금 : 1,500 월 80만원 합 3,500만원 협의가

031)977-6117
011)405-326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동
- 부지 : 대지 73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 후 결정
- 특징 : 법당 뒷 산 실평 120평 지하철 역에서 5분거리

011)877-90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요지)
- 평수 : 55평 3층 법당, 스님방, 공양실, 거실, 주방 (모든시설 완비)
- 가액 : 월 1,000 50만 월 2,000 30만
- 시설비 : 1,700만원

051)581-8652
011)9790-17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
- 법당 : 28평
- 요사 : 50평
- 부지 : 8400평
- 가액 : 5억 5천

- 위치 : 경기 이천
- 법당 : 26평
- 산신각 : 12평
- 요사 : 35평
- 부지 : 250평
- 가액 : 2억8천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포교당)
- 요사 : 18평
- 가액 : 1500/30

017-2310-5527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개인 사찰 및 부지 매매 알선 (암자, 토굴, 포교당)
※ 사찰 신축 및 증축 - 토목공사, 도로개설, 조경
※ 납골당 조성, 인허가 업무
※ 부전 공양주 건강보조식품

○ 전국 지원 모집 ○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청, 대전, 전남, 전북, 광주, 전주, 제주, 전국, 각, 시, 도, 단위
○ 부산지원 011-554-9359
○ 인천지원 011-702-3202
○ 초보자 가능 철저한 영업지도



전국 사, 암, 토굴, 부지, 포교당, 양도하실분/인수할 분 대기중이오니 연락바랍니다.
사찰, 창건 지도 분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포천군 이동 근교
- 부 지 : 25,000평
- 법 당 : 30평 (목조, 단청)
- 요 사 : 30평 (목조, 2동)
- 주지실 : 20평 (목조)

※ 시사시설 계곡 및 산세 좋은 관광 시설 및 신도 단련 수련장으로 사용할 스님들 최적임
- 양도가 : 10억

- 위 · 치 : 서울시내 (강북지역) 지하철 10분 거리
- 대 지 : 120평 • 법 당 (2층) : 40평
- 요 사 (1층) : 40평

※ 산밑에 위치, 마을끝집, 도심 포교당, 건물로 건축
- 양도가 : 3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35-440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소재
- 부지 : 약 4,000평 • 법당 : 40평(목조+단층)
- 요사 : 60평 • 토굴 : 40평(황토+목조)
- 가액 : 6억원 • 기타 : 칠성각, 산신각
- 특징 : 산세와 계곡이 수려한 대작불사된 사찰로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좋음

※ 전국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53)964-0455

좋은 인연됩시다. 서울 02)326-1060
동진불사 대구 053)655-1062 · 1063 휴대폰 018-334-9021

사찰부지(급)안내
- 충남 금산 진산 (대전에서 20분거리)
- 준농림 9000평 (대지, 전, 답, 임야)
- 가액 : 3억 5천만원
- 상업적, 투기목적 매수 사양

011)826-6888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불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용자 포함 매 5억 2천

사정상 급매
031)454-1133
011)386-6467

사찰(터) · 납골당안내
- 장소 : 원주시 문막면 비두리
- 평수 : 63,000평
- 가액 : 평당 4천원

좌청룡 우백호 큰 사찰터나 납골당 유력지. 산세좋고 물이 많이 흐르는 천연의 대지입니다.
011)286-2680

사찰 부지(급)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사량면(사장섬)
- 평수 : 약 3,800평 중 (종교시설 용지로 400평이 허가필)
- 특징 : 뒷산이 좋고 물이 좋고 앞 바다가 접해 있음. 선착장에서 도보로 5분거리 (관광지로 유명, 일주로도 접해 있음)
- 가액 : 6천 5백만원 (급한 사정으로 싸게 파는 것임)

017)557-9448

(최저가로 알려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내
- 대지 : 330여평 법당 1동 요사 2동 주지실 1동 종각 1동 부속건물 3동 기름보일러 욕실완비 사답 몇 마지기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7)552-7350
055)746-7350

사찰 안내
- 위치 : 화천군 강동면 소재 (춘천에서 30분거리) 파로호 국민 관광지 옆
- 대지 + 전 = 761평
- 가액 : 5천만원

016)285-3275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소외이웃에 자비의 빛 되겠다"

마산·창원불교련 지태스님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은 사회환원입니다. 환경운동, 인권운동, 종교간 화합 등에 앞장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160여 회원 사찰들의 종파간 갈등을 허물고 대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마산창원불교연합회 회장 지태스님(마산 정법사 주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할 일은 많은데 아직 사회참여에 대한 스님들의 자세가 소극적이라 역부족"이라는 지태스님은 그러나 연내 이웃 종교와의 화합과 불교적 사회운동 전개에 원을 세웠다.

환경·인권운동, 복지 등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서는 근원을 해결할 수 없는 현안 문제들이 부지기수라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특히 스님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실직자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2월경 별도의 조직을 구성,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의 불교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이웃 종교단체와의 과감한 연대사업도 구상 중에 있다.

스님은 각종 사회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으로 공생의 이념을 널리 펴는 영축불교교양대학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1년 과정의 교양 과정과 2년 과정의 전문과정을 두고 불교사, 불교개론, 복지 등 교과과정으로 인재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마산창원불교회관을 대신하는 공간으로 마련된 영축불교교양대의 임대료, 교수비 등 일체 비용을 과감히 투자한 끝에 올 2월초 배출된 첫 졸업생들이 스님이 구상하고 있는 각종 사회운동의 활동원으로 배움을 사회에 회향한다.

"불교가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사찰의 재정뿐 아니라 연합회 재정도 일체 공개 관리한다. 연 1억을 넘는 연합회 재정은 고스란히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고 있다.

실직자·인권문제 해결 앞장
11년째 저소득가정 돌봐
교도소불자회 등 후원도

마산창원불교연합회가 10일 경남여성회관에서 제11회 이웃 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을 개최한 것이 한 예다. 청소년 가장 및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 가정 50세대를 초청, 백미 대금과 부식품비 2천만원을 전달한 이런 법회는 11년째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계속돼 현재까지 2억여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스님은 매년 벌이고 있는 시민연등축제와 불우이웃돕기, 시민문화상 시상식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불교를 표방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 처음으로 시도한 탁발의식은 스님과 시민들이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되새긴 행사로 올해 더욱 규모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다 체계적인 불교 활동을 위한 각 신행회 결성에도 힘을 보탤 생각이다. 이미 활동중인 교사불자회, 교도소불자회, 한일합섬불자회와 9일 창립된 경남은행불자회에 대한 후원은 물론 법조인불자회, 운전기사불자회 등의 창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하루도 몸과 마음이 편치 않다는 지태스님은 그러나 "어떠한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승가의 수행풍토 진작과 의식변화"라며 "진정한 부처님 제자가 되는 길이면 어떠한 일에든 적극 나서 사회 어두운 곳에 빛을 주는 연합회가 될 것"이라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마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한라 케이블카 반대 결의

교구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수덕사 주지)는 11일 부산 해운대 메트리어트 호텔에서 연합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본사 주지들은 결의문에서 "케이블카 설치는 국토의 남녘에 국토 비운의 부조화를 초래하여 제주지역과 나라의 운세에 좋지않은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태고종

대륜스님 열반 22주기

대륜문도회는 12일 서울 법륜사 대웅전에서 대륜대종사 열반 22주기 다례식을 봉행했다. 이날 다례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종연스님, 법륜사 주지 혜초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종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륜문도회와 태고종도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대륜스님의 유지를 계승, 태고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종무원 부원장 징담스님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은 10일 제48회 정기 지방종회를 열고 부원장에 최징담스님(제2굴암사·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총무국장에는 최혜담스님(보은사), 교무국장에는 주동현스님(무량사), 재무국장에는 정종덕스님(반야사)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대구 경북 교구는 이날 △사회복지 및 구호사업 전개 △분담금 및 의무금 납부 독려 △선암사 장경정대불사 적극 동참 등 200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승려 및 교임의 연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종무원 새 해 예산 4천8백30만원을 확정했다.

강원종무원 현판식 봉행

강원종무원(원장 혜성)은 10일 춘천시 옥천동 114-8에 25평 규모의 종무원 사무실을 내고 종무원 현판식을 봉행했다. 종무원 시무식을 겸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종연스님 등 종단 간부스님들과 종무원 소속 각 사암 주지 및 교임 100여명이 동참했다.

진각종

"세계평화" 새해 불공

8일부터 14일까지 총인원 탑주심인당을 비롯 종조탄생지 울릉도 금강원 총지심인당과 미국 로스엔젤레스 볼광심인당 등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 새해 대서원 불공을 일제히 봉행했다. 이 불공기간 중 진각종도들은 4분정진(하루에 4번 심인당에서 정진)을 통해 인류화합과 생명사랑으로 세계평화를 이룩하고, 경제안정과 남북교류 활성화로 평화통일 성취를 서원했다.

한편 진각종은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7주간 동안 각 심인당에서 새해 49일 불공을 봉행한다.

원효종

총무원장 덕산스님 취임



대한불교원효종(종정 법홍) 제12대 총무원장 덕산스님 취임법회가 16일 코모도호텔에서 원효종 종정 법홍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성오스님등 3백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사진>

문화재 안내판

쉽고 재미있게 바뀐다

3월부터 전국 5천6백32개 새 단장
특징 중심 이해 쉽게…영문표기 통일

올 3월부터는 문화재 안내판이 중·고등 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문화재청은 '한국 방문의 해'와 '지역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총 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 문화재(국가지정 1천767건, 시도지정 3천588건, 기타 178건) 총 5천632개의 안내판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내문안은 난해한 설명 위주에서 벗어나 문화재 조성연대와 이에 얽힌 신화·전설·야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문화재의 특징·가치·상징적 의미가 중심이 된다. 그간 한문투의 고미술 전문용어는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었으며, 영문표기 역시 지역별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 외국인들이 거의 해독할 수 없었다.

안내판은 지난 98~99년에 시범적으로 정비했던 경주·공주·부여·제주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된다. 특히 경주지역은 타 시도 안내판의 모델로 제시되어 가장 먼저 설치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외 지역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경상북도의 문화재는 국가지정 521건, 시도지정 533건 등 총 1천458건으로 지난 2000년 8월부터 문안 실사작업에 들어갔다. 도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신라문화연구소(소장 최효식)에 용역을 의뢰해 현재 문화재청의 문안감수를 받고 있는 상태다. 감수가 끝나면 3월부터는 설치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효식 소장은 "그 동안 새롭게 발굴조사 연구된 문화재가 정립되고 외국어 표기도 쉽게 돼 보다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범 경주지사장

영남불교대 졸업생 5만명 '신행메카'

포교사 합격률도 78%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이 개교 8년만에 졸업생 5만여명을 배출해 신도교육의 이정표를 세웠다.

최근 강좌 개설과 함께 3천여명의 수강생이 몰린 영남불교대학은 대구에서는 최초로 1992년 개교한 이후 대학원 과정 개설에 이어, 통신반과 인터넷반까지 마련함으로써 수강생들이 크게 늘어났다.

우학스님을 비롯해 자광스님(문경 김용사 주지) 등 여러 스님이 강사로 나서 천수경·원각경·지장경·법화경 등을 강의, 포교사 합격률도 78%에 이른다. 또 최근에는 명심보감 강좌를 개설한 데 이어 오는 3월부터는 스님들이 강원에서 배우는 치문 강좌도 개설할 예정이다.

영남불교대학은 앞으로 현재의 6개월·2년·4년 과정에 이어 10년 과정도 신설, 재가 수행의 수준을 크게 높인다는 계획이다.

영남불교대의 성공비결은 최근 학력수준이 높아지면서 '불교 철학의 깊은 맛을 알아보자'는 30~40대 불자들의 인식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김재경 기자

예술인 100명 지역문화 토론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중한)는 18~19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각 지역 예술인과 학계 및 문화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출발, 지역문화로부터'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모두 100명이 발제자로 참여한 이 토론회는 ▲지역문화의 이념과 정책개발 ▲지역문화예술 창작 활성화 ▲지역문화행정의 현안 ▲지역문화시설의 현안 ▲지역문화활동의 현안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의 현안 등 7가지 주제별로 이틀간 진행됐다.

김재경 기자

인도 빈민가 봉사자 파견

크리스찬아카데미(이사장 강원룡 목사)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신자 7명으로 구성된 인도 빈민지역 돕기 자원봉사자를 15일 파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인도 불가촉 천민 지역인 틈사 지역과 원시부족 거주지 아헤리 지역 학교와 병원에서 오는 6월말까지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김재경 기자

북녘에 사랑의 내복 보시
국민운동본부 부산협 발족

'북녘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내복 보내기 범국민운동본부 부산협의회'가 11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발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각 스님(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 안관성 종법사(천도교), 정영문목사(부산종교인 평화회의 상임대표), 김기묘 부산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태일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공동회장 등 부산 종교계와 18개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내복 한벌 값인 5천원이면 북녘 동포 한사람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며 "민족화해의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북녘동포 겨울나기 사랑의 내복보내기 범국민운동'은 이달말까지 1차적으로 100만벌을 모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051)557-0385.

김재경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다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납골당 면적제한 해제
납골묘·탑은 150평으로

복지부 '장묘법' 시행

종교단체 납골시설 면적 30평 제한으로 논란을 빚었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부분적인 보완을 거쳐 이달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될 당시 100m²(30평)로 일괄제한했던 종교단체 납골시설 면적은 납골당의 경우 제한을 없애고, 납골묘와 납골탑에 한해서는 500m²(150평)로 확대됐다. 그러나 2m로 제한했던 납골탑의 높이는 그대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사무관은 "이번 최종안은 몇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교계 관계자들은 납골묘와 납골탑의 면적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지만 화장장려와 납골시설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관계자들은 150평 규모면 납골탑의 경우 많아야 50~60기 밖에 들어설 수 없어 그 이상 설치가 불가능한 '운영 지속성'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정석 자문위원은 "면적을 확대하는 식의 조처가 정부가 의도한 화장문화 정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실직자 돕기 바자회
조계사, 2월1~7일

조계사(주지 지홍)가 실직자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자비의 바자회'를 2월1일부터 7일까지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개최한다.

1일 오전 10시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게 될 이번 바자회에는 경봉·만공·구산·석주·혜암·고산·일타 스님의 글씨와 도예가 설봉 보광 스님의 도자기, 오채현·강행복씨의 석불과 판화 등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편 조계사는 15일 불교회관 1층에서 주지 지홍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홈페이지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된 홈페이지(ijogyesa.net)는 '사찰안내', '신행', '교육·정보', '야단법석'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02)720-1390 한명우 기자

불교복지시설 "한파 여전"

후원금-후원자 최대 40% 감소
경제악화 주원인…"대책 절실"

교계 복지시설의 후원금이 줄고 있다. 97년 IMF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던 복지시설 후원금이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 경제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급격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규모도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에까지 이른다. 심지어 보현의 집과 아침을 여는 집 등 노숙자시설의 후원은 거의 끊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시설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승가원의 경우 매달 평균 2억여원이던 후원금이 지난해 11월 1억 4천여만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 1월까지도 감소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후원자 역시 줄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신규후원자는 151명인 반면 430명이 후원을 중단했다.

IMF를 기점으로 10%의 감소세를 보였던 연꽃마을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10% 정도 줄어들었고 이같은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도 20% 정도 감소했다. 후원금 의존도가 30%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복지관들의 상황은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심각하다. 길음복지관과 구미 금오복지관의 경우는 40%가량 줄었고, 청담·옥수복지관은 20~30%, 그밖에 자양·모전·덕유·본동·속초복지관 등 대부분의 교계 복지관들도 10% 가량 감소했다.

부대사업 구상등 골몰

각 복지시설들은 이같은 현상이 어려워진 경제여건 탓도 있지만 후원 프로그램 부족과 후원자 관리·확보 소홀도 주요 원인으로 판단, 이를 극복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승가원은 후원금 감소에 따라 각종 사업이 불안정해지자 경비절감 차원의 조직개편과 함께 다음달부터 '목각인장 판매사업'을 벌여 부족한 복지사업기금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옥수복지관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했던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하는 '녹색가게'를 활성화하는 한편 제과제빵 판매를 통해 후원금 부족분을 메울 방침이며, 구로·길음복지관은 일일찻집 등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연꽃마을은 올 한해를 후원회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각종 이벤트와 함께 직원들이 직접 홍보에 나서게 하는 등 후원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모전·청담복지관은 관내 공공관서 등에 모금함을 설치해 모금과 함께 홍보에 전력키로 했다. 또 자양복지관은 홈페이지상에서 후원자와 대상자를 연계시켜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며, 속초복지관은 지역 공무원들과 불우이웃간의 1대1 결연사업인 '사랑가족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각 시설들은 후원금 감소가, 개별 후원자들의 후원액이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기존의 후원이 끊기거나 신규 후원자가 감소한 요인도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홍보횟수를 늘리는 한편 소식지 발송, 감사편지 보내기 등 후원자 관리와 확보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감사편지·소식지 발송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문위원 권경임씨(종교사회복지포럼 회장)는 "후원금만 내게 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견학이나 교양강좌, 성지순례 등을 통해 후원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환경운동 참여 여성불자 적다"

여성환경연대 설문

환경운동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63.6%(182명)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종교별로는 기독교가 44%(80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천주교와 불교가 각각 29.7%(54명)와 22.5%(41명)를 차지했다. 99년도 전국 15세 이상 여성의 종교분포가 불교 48.8%, 기독교가 35.1%, 천주교가 13.4%인 것과 비교하면 불교 여성의 환경운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8월3일부터 9월10일까지 전국의 35개 여성·환경단체에서 일하는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2.5%인 236명이 전문대 이상을 졸업했으며 10.8%인 31명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환경운동을 하게 된 동기로는 현재 가입단체의 환경운동 공감(50%)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19.9%), 수질 및 대기오염 관심(1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재경 기자

NGO 자료집 만든다

시민사회硏 인명·논문 모집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가 시민사회(NGO) 인명·논문목록을 발간하기 위해 관련 인물과 연구자료를 모집한다.

대상은 국내 시민사회·자원봉사 단체에서 일하는 시민운동가 및 시민윤리·NGO·시민운동·자원봉사·비영리단체·민간복지 등 관련 분야의 논문(석·박사)이나 연구자료를 발표한 대학교수 및 강사 등이다. 관련 저서와 논문집은 90년 이후 학위논문이나 저술, 세미나·심포지엄·학술모임 등에서 발표된 것이면 된다. 접수기간은 2월15일까지.

문의 (02)751-9451, ngo21@joongang.co.kr 한명우 기자

정토불교대학
6개지역 확대운영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정토불교대학을 올해부터 대구·대전·청주·마산 정토법당 중심의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법륜스님 등 불교·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불교교리와 수행,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2년 과정으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587-8994 김재경 기자

사형제 폐지 종교인모임 결성

불교, 개신교, 가톨릭을 중심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모임이 발족됐다.

불교인권위원회와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등 3대 교단의 사형폐지운동 단체들은 19일 서울 중곡동 천주교주교회의 사무실에서 3차 모임을 갖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가칭)을 결성키로 했다.

3개 종단 대표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이 구성되는대로 그동안 불교인권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전개해온 사형제도 폐지 서명운동을 범종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4월말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포스터와 소책자를 발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스님은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에는 원불교와 천도교 등 다른 종단들도 모두 참여시켜 생명과 인권 존중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현대불교사회문화원 창립

출·재가 참여 NGO
사회봉사등 적극추진

출·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불교운동단체가 창립됐다.

현대불교사회문화원(원장 중원·관음사주지)은 최근 서울 인사동 동일빌딩에 60여평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2월9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원법회 및 초청강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현대불교사회문화원은 앞으로 이웃돕기와 사회봉사, 포교, 국제불교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도덕문화 및 사회정의규범 확립과 한민족 전통문화 및 동양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를 통해 민족전통문화 계승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사랑의 쌀 나누기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민속명절 설을 맞아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진선여중·고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쌀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

인터넷 세상
'자유 티베트'

티베트넷(www.tibet.net)개설

중앙티베트행정부(CTA)는 전 세계인들에게 티베트 및 티베트 문제에 관한 정보를 보다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5일자로 공식 다중언어 웹페이지인 '티베트넷(www.tibet.net)'을 선보였으며, 15일 티베트 글로 이메일 사용이 가능한 '티베트메일(www.tibetmail.net)'도 개설했다.

티베트어로 구성된 최초의 대규모 사이트인 티베트넷은 티베트, 영어, 힌두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티베트의 종교, 문화, 역사발전 및 현재의 이슈 등과 중앙티베트행정부 내의 여러 부서와 기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번 사이트 개설은 티베트인들이 가상공간에서 투쟁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함은 물론 티베트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이와 관련 "더 많은 정확한 정보들이 국제사회에 제공되면 티베트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사이트 개설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티베트인들의 비폭력 투쟁을 이해하고 느껴주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아바타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2001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종단 승려·포교사 ·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통신 80명		
	4년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2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중국어(한의대입학과정)과		■주간 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기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2. 제 10회 졸업생 배출(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 2급 자격취득
※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1년 2월 9일까지
·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8 FAX. 02)511-1080
E-mail : samhwade@kornet.net
· 일본동경분교 TEL 055)233-184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한의과대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 수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2. 학교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 : 25-6798171 팩 스 : 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팩 스 : 02-511-1080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길도 경계도 사라진 순백의 백두설원 걸음마다 희망이…

백두대간 속으로 〈28〉

매봉산→피재→구부시령


◇매봉산에서 바라본 동해 일출.

눈(雪)은 길을 지운다. 하지만 눈길은, 내가 가면 곧 길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눈길은 조심스럽다. 뒤에 올 사람까지 허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은 경계를 지운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우고, 백년이나 천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길을 만든 사람과, 지금 그 길을 가는 사람의 경계를 지운다. 그래서 눈길은, 옮기는 걸음걸음을 희망으로 들뜨게 한다. 답습이 아니라 개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길은 고독하다. 끝없이, 이 길이 바른 길인가 하고 묻게 만들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다 어디선가 마주 오는 발자국을 만났을 때, 비로소 안도한다. 제대로 왔구나 하고. 그러면서 마주 온 발걸음에 포개어 앞으로 나아가다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만나게 되면, 한 순간 걸음은 엇박자가 된다. 내려오는 이와 오르는 이의 보폭과 발자국 모양이 어긋나는 탓이다. 그때 떠오르는 한 생각, '입장 바꿔 생각하기'의 어려움이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결국은 한 길인데, 모양과 방법의 작은 차이에 걸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었구나.

눈 덮인 겨울은 또 이렇게 가르친다.

역·지·사·지(易地思之)!

백두대간이 심호흡을 하는 곳, 매봉산(1,303.3m). 천의봉이라고도 불리는 이 곳의 입지에 대해서는 정교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태백산맥을 왜 낙동정맥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북에서 남으로 곧게 흐르던 이 땅의 등뼈가 이 곳에서부터 남서로 방향을 틀어 내륙 깊숙이 속리산을 솟구쳐 올리고 다시 남하하여 지리산에 이르는 그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대동여지도의 발문에서 밝힌 바, '산은 물을 가른다山自分水嶺'는 우리 고유의 지리인식 체계를 적용해 보자. 이른바 낙동강 수계라 불리는 영남 일대는, 매봉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과 매봉산에서 부산의 몰운대에 닿는 낙동정맥에 의해 형성된다. 산이 물을 가름으로써 사람살이의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사실은 낙동강과 한강이 백두대간을 분수령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모두가 아는 대로, 낙동강 천 삼백 리(525.15km)가 영남의 북쪽 정점이자 백두대간 남쪽 기슭인 태백(황지)에서 발원하고, 한강 또한 백두대간 북쪽 기슭의 태백(금대봉 자락 검용소)에서 시작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하루빨리 일제의 산물인 산맥 중심의 지리인식 체계는 고쳐져야 한다. 우리 땅은 1대간 1정간 13정맥의 체계로 파악해야만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주장은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닐 뿐더러 '우리 것'만을 고집하는 국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딱딱한 얘기는 여기서 접기로 하면서 사족 하나, '산이 물을 가른다' 할 때의 '가름'은 배타적 가름이 아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조화의 다른 말이다. 음과 양, 물과 땅, 구름과 비 같은 관계를 일컫는 말인 것이다.

무릎 빠지는 건의령 눈길 '물길 거스르듯'
겸손 가르치는 겨울산은 '인생의 교사'

매봉산에서 피재(920m)로 내려서는 백두대간은, 요즘 같은 눈길에도 1시간 남짓이면 족할 정도로 편안한 길이다. 삼척 쪽에서 난리를 피하여 넘었단 고개라는 데서 유래한 피재는 달리 '삼수령'이라고도 불린다. 이 고갯마루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세 갈래로 나누는데, 갈라진 물들은 각기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삼척 오십천으로 흘러든다.

피재에서 건의령으로 향하는 백두대간은


◇길을 열며 나아가는 삼설 산행의 묘미는, 자연의 길과 인간의 길을 일체화하는 데 있다.

눈이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그리 힘들지 않다. 그렇지만 룻노래를 부를 정도는 아니다. 조망이 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옴망졸망한 봉우리들을 거푸 만나야 하므로.

건의령에서부터는 추위와 눈이라는 '산 넘어 산'을 함께 올라야 했다. 이 곳에서부터, 몇 십년 전의 기록을 갈아치운 눈의 높이와 수은주의 깊이 사이에서 헤매게 된 것이다. 날 세운 바람의 올은 무자비하게 살갗을 파고들었고, 무릎 가까이 빠지는 눈은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 다리의 근육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어쩌랴, 구르는 호박이 아니라 좁쌀 신세인걸. 한 걸음 한 걸음 밟아나가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더욱이 그것만이 체온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보면, 이동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존의 몸짓이기도 했다.

간간이 앞서 간 토끼 발자국을 만난다. 그 여린 발자국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절감한다. 참으로 강한 인간이 되고자 하면 '겸손'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멋들여, 이번 산행에서는 '춥다, 힘들다, 길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것과 같은 지극히 동물적(?) 본능만이 나를 지배했다는 사실도 고백해야겠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이란 존재의 무력함이나 인간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절실히 느꼈다.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산은 엄부(嚴父)와 자모(慈母)의 모습을 아울러 갖춘 인생의 교사가 아닐 수 없다.

평상시 같았으면 서너 시간이면 족할 거리를 하루를 다 바쳐 도착한 곳은 '구부시령'을 눈 앞에 둔 봉우리 아래. 눈을 다져 천막을 치고, 눈을 녹여 밥을 지어 먹고는 가진 옷 다 꺼내 입고 침낭으로 몸을 감싼다. 따뜻한 아랫목과 그리운 얼굴들을 그려본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해진다.

또, 아침,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기계를 움직이듯이 몸을 일으켜 세운다. 밤새 성에로 바뀐 입김이 눈처럼 쏟아져 내린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전생을 거쳐 오며 쌓인 업(業)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스친다. 졸로, 매 순간이 전(全) 생애와 같은 무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옮겨간다. 너무 거창한 생각일까?

아직 가야할 길이 멀건만, 산행 목표의 반도 못 채우고 덕항산 아래 구부시령에서 태백시 하사미동 쪽 하산 길을 택한다. 계속 가는 일은 접어야 할 욕심(?)임이 분명했다.

구부시령. 그 옛날, 요절한 남편 아홉을 모시고 살아야 했던 어느 기구한 아낙네의 삶에서 비롯한 이름이라 한다. 그런 신산스런 내력을 지닌 고개건만, 상념에 젖을 겨를도 없이 내려서는 발걸음은 야박스럽게 가볍다.

다음 산행에서는 심설(深雪) 산행의 운치와 겨울 산의 장쾌함을 전하기 위해 좀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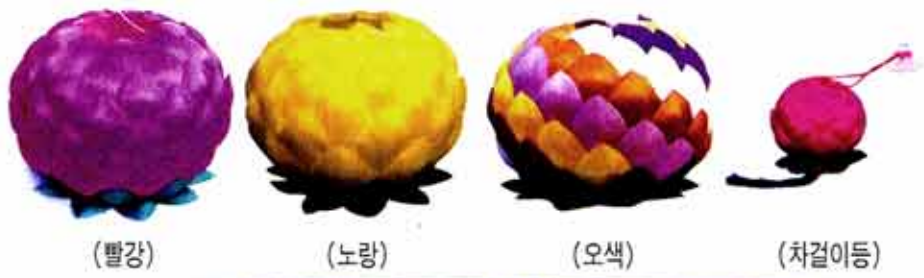
새천년의 발원
- 온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안새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한국일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